

제1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번

- *맑지 ->[막찌]
- *짧게 ->[짤깨]
- *얇다 ->[알따]
- *밟고 ->[밥꼬]
- *넓디넓은 ->[널띠널븐]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똥글다]

**보충: 맑게 [말깨], 물고 [물꼬], 얽거나[얼꺼나]

12번

몇 일 전부터 해질녁만 되면 꽃내기 총각의 마음 한 켠에는 그녀 모습이 으레 떠올랐다.

- *몇 일 -> 며칠
- *해질녁 -> 해질녘
- *꽃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 모두 옳다.
- *한 켠 -> 한편
- *으레 -> 으레

**보충: 일반적으로 발음과 표기는 같은 것으로 인식하나, 모든 발음을 완벽하게 적는 문자 표기란 있을 수 없으니 주의.

13번

- *우레, 천둥 -> 둘은 같은 뜻. 우레는 ‘올다’의 올 에서 기원
- *가랑비, 이슬비 -> 둘 다 ‘가늘게 내리는 비’란 뜻이나 다른 개념.
‘가랑비’ > ‘이슬비’ > ‘논개’ 로 굵기를 구별함
- *애벌레, 어린벌레 -> ‘애벌레’만 옳은 표현.
- *부엌, 정지 -> 정지는 방언. 부엌만 표준어로 인정
-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 ‘신기롭다’만 표준어

14번

- *해거리: 한해를 거름, 도는 그런 간격 ex) 이 대회는 해거리로 열린다.
- *해동갑: 해가 질 때까지의 동안, 어떤 일을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함
ex) 해동갑으로 발일을 하다.
- *해거름: 해가 거의 넘어갈 무렵 ex) 해거름이 되니 추워진다
- *들마: 가게 문을 닫을 무렵 ex) 들마에 손님들이 몰려왔다.
- *해포: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세여(世余) ex)해포가 지났는데 일은 제자리 걸음이다.

15번

- *사박스럽게: 성질이 독살스럽고 야멸차게
- *꿈바르기로: 국량이 좁고 몹시 인색하기로 *국량: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 주며 일을 능히 처리하는 힘
- *뒤넘스러우면: 주제넘게 건방지면
- *이물스러운: 성질이 음험하여 측량하기 어려운
- *새살스러운: 성질이 차분하지 못하고 가벼워 실없이 수선 부리기를 좋아한다

16번

- *묘령: 스무살 안팎의 여자 나이. 묘령의 여인, 묘령의 처녀로 표현. 묘령의 소녀는 틀림.
- *운옹의 묘: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도, 규정 등을 잘 활용해서 재치있고 절묘하게 처리하는 것. 운옹의 묘를 살려 일을 처리하자. 는 식으로 표현한다. 운영의 묘는 틀림.
- *쉬파리 꿀뜯: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모여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쉬파리는 똥파리. 쇠파리는 소나 말 등에 붙어사는 파리.
- *쇠털같이 많은 날: 소털 같이 시간이 많음. 새털같이 많은 날은 틀림.
- *떼어 놓은 당상이다: 보통 ‘떼어 둔 당상이다.’, ‘따 놓은 당상이다.’라고도 함. 당상관 자리를 떴어서 놓았다는 뜻으로 ~ 하는데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단 듯.

17번

『위대한 작품은 ()으로 느껴야 한다.

웅보는 정선창의 말만 들어도 ()에 응어리진 것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에 비추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에 어울리는어휘.

*한: 응어리진 마음 ->세 문장 모두 x

*마음: 1.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

2.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3.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4.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5.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

6.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

7.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가슴: 마음이나 생각.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 심장 혹은 폐 ->세 번째 문장 x

*정신: 영혼이나 마음. 판단하는 능력, 자세, 태도, 사상 ->세 문장 모두x

*심장: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세 번째 문장 x

18번

*지정: 1.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 ex) 지정 좌석에 앉으시오

2. 관공서, 학교, 회사, 개인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줌.
ex)지정 병원, 문화재 지정

*설정: 1. 새로 만들어 정해 둠 ex) 상황 설정 / 200해리 경제 수역 설정

2. 제한 물권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위 ex) 담보 설정

*선정: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ex) 작품 선정/ 사업자 선정

*조율: 1.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름.

2.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 사전 조율

*조정: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ex) 선거구 조정/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조절: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 ex) 체온 조절/ 인구 조절

19번

개나리는 어느 꽃보다도 먼저 봄기운을 알려주는 꽃이다. 늘어진 줄기 마다 노란 꽃으로 일제히 물들이는 그 개나리꽃은 () . 워낙 야생의 꽃이라 그런지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도 공사장 같은 조그만 공터라도 있으면 봄의 공간을 눈부시게 치장해 준다.

*황금의 폭포수요, 빛의 함성이다. - 49.1% -> 이것이 맞는 표현.

*야생의 잔치요, 도시의 순수이다. - 40% -> 두번째 문장 다음에 오면 어울림.

20번

*亂舞(난무) 어지럽게 추는 춤,

*群舞(군무)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추는 춤,

*圓舞(원무) 원을 그리며 추는 춤,

*獨舞(독무) 홀로 추는 춤,

*農舞(농무) 농촌에서 농민의 장치에서 행해지는 춤, 僧舞(승무) 불가에서 승려들이 추는 춤

21번

*華: 화. 꽃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십(十)자가 6개 들어 있고 거기에 일(一) 자 한개가 들어 있어 사람나이 61세를 뜻하는 글로도 애용. 커다란 꽃을 뜻함.

*榮: 영. 무리지어 피어있는 것. 개나리 같은 것. 나무위에 불이 타고있는 형상.

*榮華: 영화. 붓꽃처럼 타오르는 군집적인 꽃을 모두 합쳐 이르는 말.

22번

*還甲환갑, 周甲주갑, 回甲회갑, 還曆환력 - 61세

*進甲진갑, 望七망칠 - 62세

*七旬칠순, 古稀고희 - 70세

*望八망팔 - 71세

*八旬팔순 - 80세

*望九망구 - 81세

*米壽미수 - 88세

*九旬구순 - 90세

*白壽백수 - 99세

23번

*혁신목표: 革新目標

*호국영령: 護國英靈

*의견수렴: 意見收斂

*초석: 礎石

*역할: 役割

24번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의심 받음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반포보은(反哺報恩):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풍목지비, 풍수지감, 풍수지비.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상명지통(喪明之痛):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 아들이 죽은 슬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각골난망(刻骨難忘):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아니함.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하게 지내더라도 항상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대비함.

*천석고황(泉石膏肓): 산수를 사랑함이 지극하여 마치 불치의 깊은 병에 걸린 것같이 되었음을 이르는 말.

*망양지탄(亡羊之歎):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 학문의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

*망양지탄(望洋之嘆):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한탄이란 뜻으로,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때에 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

25번

*유도리 -> 여유, 융통

*보합세 ->멈춤세

*머니론더링(Money Laundering) ->돈세탁, 자금 세탁

*가드레일(Guard Rail) ->보호 난간, 철책 방호책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국제 표준

**보충: 외국어-다른 나라의 말. 원어의 발음, 형태, 의미가 유지된다.

외래어-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원어의 발음, 형태, 의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국어화한 외국어이므로 사전에 실린다.

26번

※사이시옷※

*뒹푼이, 뒹뜰 (x) -> 뒤푼이, 뒤뜰 (0)

*춧점, 헛점 (x) -> 초점, 허점 (0)

*숫꿩, 숫나사 (x) -> 수꿩, 수나사 (0)

*댓가, 갯수 (x) -> 대가, 개수

**보충: 수꿩(‘수꿩’과 ‘숫꿩’은 틀림),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황소’도 표준어), 수은행나무,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탉, 수키와(‘숫기와’는 틀림),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VS 숫양, 숫염소, 숫쥐

27번

※두음법칙※

*출산률(x) -> 출산율: ‘ㄴ’받침 뒤에서는 ‘률’을 ‘율’로 써야 한다.

*년간(x) -> 연간: 두음 법칙에 의해 ‘연간’으로 써야 한다.

*남존녀비(x) -> 남존여비: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가정란(家庭欄)(x) -> 가정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원음을 살려 ‘가정란’으로 써야한다.

**보충: 두음 법칙관련 한글 규정

(1) 한자음 ‘녀, 뇨, 뉴, 니’

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첫머리 올시 여 요 유 이 로 적는다.

ex) 신여성, 공염불

2.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 은 열, 율로 적는다.

ex)나열, 진열, 규율, 실패율

3.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ex) 역이용, 연이율, 열역학, 해외여행

(2)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

1. 라 래 로 뢰 루 르 가 첫머리 올시 나 내 노 뇌 누 느 로 적는다. ex)낙원, 낙성

2.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 본음쓰 ex) 고루, 광한루, 가정란

3.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음

ex) 내내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28번

*늘이다: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ex) 고무줄을 늘이다.

*늘리다: ‘늘다’의 사동사. 길이, 넓이, 부피, 실력, 힘, 기운, 살림, 소득 등에 사용.

ex) 학생수를 늘리다. 소득을 늘리다.

*달이다: 액체를 끓여 진하게 만듦다. 액체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

ex) 보약을 달이다.

*달리다: 재물이나 기술, 힘 따위가 달리다. ex)일손이 달리다.

*들이다: ‘들다’의 사동사 ex)친구를 방에 들이다.

*들르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ex) 친구 집에 들르다. 친구 집에 들렀다.(‘들렀다.’는 틀림)

*벌이다: 1.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ex)친구 집에 들르다.

2.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ex)장기판을 벌이다.

3.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ex)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벌여 두고 공부를 한다.

4. 가게를 차리다. ex) 읍내에 음식점을 벌이다.

5.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ex)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

*벌리다: 1.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ex) 줄 간격을 벌리다. 가랑이를 벌리다.

2. 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ex) 생선의 배를 갈라 벌리다.

3. 우물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ex)자루를 벌리다.

*씩이다, 썩히다: 둘 다 ‘씩다’의 사동사인데, ‘씩이다’는 ‘속을 상하게 하다’의 의미.

‘씩히다’는 ‘거름을 썩히다.’

29번

- *뉘세포가 ‘망가진다든지’ 하여 ... (0) : 회상이 아니라 선택이므로 ‘든지’
- *설 연휴가 총 ‘사흘이어서’ 실제로는 ... (0) : ‘사흘이어서’는 불필요한 | 모음 첨가로 틀림
- *꼭 ‘돌아올게’...(0) : 약속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ㄹ게’이다.
- *학교에서도 잘 ‘가르친대요’..(0) : 누구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표현. 맞는 표현.
- *잘못했다고 엮드려 ‘사과하십시오.’..(0) : 종결 어미는 요가 아니라 오.

- **보충**
- 더라, 든, 던지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 으로 적는다.
ex) 어제 몹시 춥더라. / 깊던 물이 알아졌다. / 그렇게 좋던가? / 말 잘하던데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ex)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 /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조사 ‘요’와 어미 ‘-오’
- 둘의 구분이 쉽지 않은데, 생략해도 말이 되면 ‘요’를, 생략하면 말이 안되면 ‘-오’를 넣으면 된다. ex)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 30번**
- *보따리를 ‘풀어’ 놓다. : 풀다에 어미 ‘어’가 붙어 맞는 표현.
 - *건물에 ‘내걸은’ (x) : 기본형은 ‘내걸다’로 ‘걸어, 거니, 거오’처럼 활용한다. 따라서 ‘내건’ 으로 써야 맞는 표현.
 - *무슨 일을 ‘저지를런지’ (x) : 기본형은 ‘저지르다’로 ‘저질러, 저지르니’처럼 활용한다. ‘저지르다’에 어미 ‘-르’가 결합했으므로 ‘저지를지’로 써야한다.
 - *‘자랑스런’ 수상소식 (x) : 자랑스럽다 가 기본형으로 - 스러워, -스러우니 처럼 활용한다. ‘자랑스러운’이 맞다.
 - *직위에 ‘결맞는’ (x) : 결맞다 가 기본형으로 형용사이다. 현재 상태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 -은 두가지가 있는데, 형용사일 경우에는 -는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은이 결합한다. 따라서 ‘결맞은’으로 써야함.

- 31번**
- *철교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인데’ 있었다. -> ‘구조적인 데’로 써야 맞는 표현.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인 ‘것이나 일’에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데’는 의존 명사
 - *교각 부석이 ‘진행되는데도’ -> 어미 ‘-는데’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제 때’ 보수가 이루어 져야.. -> ‘제때’로 써야 맞는 표현. ‘제때’는 ‘일이 있는 그때’를 나타내는 한 단어으므로 붙여써야 하.
 - *안되는 것도 -> 안 되는 으로 띄어써야 함. ‘아니’의 의미를 나타내는 ‘안’은 부사.
 - *끝난지 -> 끝난 지 로 띄어써야 함.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동안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명사.

- **보충**
1. ㄱ. 떠난 지(가) 사흘되었다. (시간 경과의 ‘지’: 의존명사)
 ㄴ. 언제 오는지 모른다. 언제 울지 모른다. (사실의 ‘-ㄴ지/-ㄹ지’: 어미)
 ㄷ. 어찌나 아픈지.(감탄의 ‘-ㄴ지’ : 어미)
 ㄹ. -ㄹ지라도, -ㄹ지언정, -ㄹ지니라. (어미)
 2. ㄱ. 그가 사는 데는 고급 주택가이다. (처소의 ‘데’: 의존명사)
 ㄴ.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경우의 ‘데’: 의존명사)
 ㄷ. 소비가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안 는다. (경우의 ‘데’: 의존 명사)
 ㄹ. 소비가 늘어나는데 수입은 안 는다. (설명 of ‘-ㄴ데’: 어미)
 ㅁ. 키가 꽤 큰데. (감탄의 ‘-ㄴ데’: 어미)

- 32번**
- *‘4분의 3’은 3/4으로 적는다. (0)
 - *아 달이 밝구나! (X) -> 아, 달이 밝구나!(0) : 아는 감탄사므로 ‘ , ’ 붙임.
 - *낱말(單語) (X) -> 낱말[單語] (0) :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 ‘낱말’에 직접 대응하는 한자가 아니므로, 대괄호 []를 써야한다.
 - *예로부터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다. (X) -> 인용 혹은 강조 등의 상황에 따라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로 쓰든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로 써야 함.
 - *철수와, 민수와, 수영이와, 용준이가 거기에 가다고 들었다. (X) -> 나열하는 상황이므로 ‘철수와 민수와 수영이와 용준이가’ 처

럼 써야 함.

****보충:**

- 대괄호의 쓰임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씀.

ex) 나이[年歲], 낱말[單語],手足[손발]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씀.

ex)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

- 빗금(/)의 쓰임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씀.

ex) 남궁만/ 남궁 만, 백이십오 원/ 125 원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ex) 3/4 분기, 3/20

33번

*데뷰 -> 데뷔

*쥬스 -> 주스

*메세지 -> 메시지

*리더쉽 -> 리더십

*로보트 -> 로봇

****외래어는 본래 언어 발음, 원지음에 준해 표기하는 것이 원칙.**

34번

*네델란드 -> 네덜란드

*싱가폴 -> 싱가포르: 국제음성기호 [r]은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 ‘르’로 표기한다.

(응시생의 45%가 싱가포르를 택함)

*덴마크 -> 덴마크: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샷쁘르 -> 샷포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

*팔라룸푸르 -> 쿠알라룸푸르: 원래 ‘팔라룸푸르’가 정답이었으나, 제1회 시험이후 인 2004년 12월 20일 ‘쿠알라룸푸르’를 표준 표기로 결정되었다고 함.

35번

*민용하: Min YongHa -> Min Yongha(Min Yong-ha) : 국어의 로마자 성명표기법-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허용함. ex) 박재상 Park Jaesang(Park Jae-sang)

*종로 2가: Jongro 2-ga -> Jongno 2-ga

*집현전: Jiphyeonjeon

*독립문: Tongnimmun -> Dongnimmun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Chungcheongbuk-do

36번

*1~2 : 한둘, 한두

*2~3,4 : 두서넛, 두서너

*3~4 : 서넛, 서너

*4~5 : 네댓, 너더댓, 네다섯, 너덧 vs 네댓 (x)

*5~6 : 대여섯, 대엿

*6~7 : 예닐곱 vs 여닐곱(x)

*7~8 : 일고여덟, 일여덟

*8~9 : 열아홉 (‘열’에 주의)

*열이 조금 넘는 수: 여남은

37번

*전원을 켜면 기기가 작동됩니다. -> 앞 절의 주어(가)가 생략되어있으나 괜찮은 듯 보인다. 그러나 뒤 절의 주어는 기기인데 술어가 피동이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된다.

- *전원을 켜면 기기가 작동합니다. -> 주어가 생략됐으나, 능동 표현이기에 한국어 다운 문장이다.
- *전원이 켜지면 기기가 작동됩니다. -> 문장구성상 문제없다. 그러나 피동형 문장이라 한국어답지 못한 흠이 있다.
- *전원이 켜지면 기기가 작동합니다. -> 한 문장이 피동과 능으로 구성. 어색하다.
- *전원을 켜게 되면 기기가 작동됩니다. -> '되면'이라는 접사까지 붙어 더욱 피동을 강조하는 우를 범함.

38번

- *창작된 놀이를 '아이들에 의해' 즐기도록 한다. -> 아이들이
- *'신음소리로 인해' 고통 받는 내 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 신음소리로
- *사랑하는 '처자를 갖고 있는' 가장은 부지런할 수 .. -> 처자가 있는
-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 이 소설에서
-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 -> 그 사람에게서

**보충:

(1) 일본어투

- ~ 에 다름 아니다 -> ~ 에 지나지 않는다. ~에 불과하다. ~일 뿐이다. ~이 틀림없다.
- 주목에 값하다 -> 주목할 만하다.
- 그에게 있어서 조국은 -> 그에게 조국은
- 그것에 의하여 -> 그것으로, 그것에 따라
- 한국에 있어서 -> 한국에서
- 현대시에 있어서 -> 현대시에서

(2) 영어투

-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함이 당연하다.
- 이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 이거을 고려한다면
- ~할 필요가 있다, ~을 필요로 하다 -> ~이 필요하다.
- 할 예정으로 있다. -> ~할 예정이다. ~ 할 것이다. ~할 참이다.
- 납득이 가다 -> 납득할 수 있다. 납득하다.
- 회의를 가지다 -> 회의하다.

39번

- *체온이 감소되었다. -> 체온이 내렸다.
- *건물은 철망으로 둘러쌓였다. -> 철망으로 둘러쳐졌다.
- *승객 190명을 싣고 출발하였다. -> 태우고
- *요금 인상폭을 크게 줄일 생각이다. (0)
- *불법 거래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 시정되고, 고쳐지고

40번

- *한 달째 지속됐던 ㄹㄹ병원 파업이 오늘 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 파업이 ~ 타결되다: 주술 호응 불일치. 타결은 의견의 조율을 통해 일이 마무리된 경우를 가리키므로 '파업이 타결되다.'는 부자연스럽다.
- *노조는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 노조는 ~ 방침이다: 주술 호응 불일치. '정부는 ~ 정책이다', '재판부는 ~ 판결이다' 처럼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 주술 호응 불일치를 유의해야한다.
- *이 때문에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0)
- *환자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난항 속에 협상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 난항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협상의 어려움을 드러내려다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생성된 예.
- *그러나 병원 파업 사태는 오늘 밤 간신히 합의가 도출해 났에 따라 일단락 지었습니다.
-> 사태가 ~ 일단락 지었습니다. : 주술 호응 불일치. 누군가가 사태를 일단락 짓는 것이므로, '사태를 일단락 짓다'나 '사태가 일단락 지어지다'처럼 써야한다.
- *합의가 도출해 났에 따라: 주술 호응 불일치. 합의는 누군가가 도출해 내는 것이므로 '합의를 도출하다'나 '합의가 도출되다'처럼 써야함.

제2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번 - 표준발음

- *밝지 [박찌]
- *밝다 [박따]
- *밝기 [발끼]
- *밝도록 [박또록]
- *밝고 [발꼬]

[문항해설]

겹받침 ‘ㄹ,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보충]

*밝다 -> 밝디 밝게 [박띠 발게] 맑다 -> 맑디 맑게 [막띠 말게]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앓다[안따] 여덟[어덜] 넓다[널따] 외곶[외골] 할다[할따] 값[갑] 없다[업:다]

다만, ‘밝-’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밝다[밥:따] 밥소[밥:쏘] 밝지[밥:찌] 밝는[밥:는->밤:는] 밝게[밥:게] 밝고[밥: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똥글다]

12번 - 장단음

<단음>

<장음>

- | | |
|----------------------------|-----------------|
| *굴 요리가 아주 맛있다 | 굴을 파 놓았다 |
| *공과 사를 분명히 하다 | 공에 바람이 빠졌다 |
| *벌을 호되게 받았다 | 벌에 쏘인 자리가 부어올랐다 |
|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 발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다 |
| *길에 서려 잘 안 보인다 / 길을 매고 있었다 | |

[보충]

고유어 중에 장단음으로 서로 달리 발음해야 하는 동형이의어

가:마(탈 것) 가마(머리털/가마솥)	다:(모두) 다(-장조)	술:(-질하다) 술(소나무)
골:(깊은 구멍/고을) 골(-이 아프다)	돌:(-멩이) 돌(-잔치)	굽:다(아름답다) 굽다(구부러지다)
되:다(반죽이-) 되다(봄이-)	적:다(수가-) 적다(글로-)	말:(-과 글) 말(동물/쌀 열-)
중:(-살이하다) 중(-을 치다)	길:(-이 넘는 물 속) 길(통행하는 곳/방법)	말:다(그만두다) 말다(종이를-)
줄:(연장) 줄(가로-)	끼:다(안개가-) 끼다(반지를-)	문:다(안부를-) 문다(땅에-)
나:리(나으리) 나리(꽃)	밤:(-을 굽다) 밤(과 낮)	한:눈(-팔다) 한눈(-에 반하다)
내:(-를 건너다) 내(나의)	새:집(새가 사는 곳) 새집(-으로 이사가다)	한:데(-서 잠을 자다) 한데(-모이다)
눈:(-이 내리다) 눈(-을 뜨다)		

13번 - 표준어

- *저만치 : 명사로는 ‘저만큼 되는 데’, 부사로는 ‘떨어진 거리가 저만큼 되는 데에서’를 뜻함
 - *봉우리 : ‘산봉우리’의 준말.
 - *‘봉오리’ : ‘꽃봉오리’의 준말
 - *가르마 :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털을 갈라 빗을 때 생기는 금’을 말함
 - *가리마 : ‘옛날에 부녀자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큰 머리 위에 덮어 쓰던 검은 헝겊’을 말함
 - *어슴푸레 : ‘기억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고 몹시 흐리마리한 모양’이나 ‘뚜렷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희미한 모양’을 뜻함
 - *아슴푸레 : ‘어슴푸레’의 작은 말
- *‘뜨락’은 ‘뜰’의 북한 방언으로 표준어가 아니다.

14번 - 단위어

- *죽 : 옷이나 그릇 열 벌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자립 명사로도 쓰이고 단위성 의존 명사로도 쓰인다.
‘그들은 예전부터 죽이 맞는 사이다’에서 쓰인 ‘죽’은 자립 명사로 쓰임
‘버섯 한 죽’, ‘접시 두 죽’에서 쓰인 ‘죽’은 의존 명사로 쓰임.
- *괘 : 북어의 묶음을 나타내는 단위로만 쓰임. 한 괘는 스무 마리
- *축 : 오징어의 묶음을 나타내는 단위로만 쓰임, 한 축은 스무 마리
- *접 : 채소나 과일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백 개 (‘마늘 한 접’, ‘꽃감 두 접’)
- *쌈 :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로 쓰일 때는 한 쌈이 스물네 개를 이룸.
옷감이나 피혁 따위를 셀 때는 특정한 수효가 아니라 적당한 분량으로 싸서 덩이를 놓은 단위를 이룸
금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한 쌈이 백냥종을 이룸. 금 한 냥종은 37.5g 정도

15번 - 뜻풀이

- *그 노인이 하는 빨로 따라 하면 된다. -> 일이 되어 가는 형편과 모양
- *그 여인은 맛깔 있어 보이는 점심상을 본치도 좋게 들여왔다. -> 남의 눈에 띄는 태도나 걸모양
- *자꾸 혀를 날름 내밀다가 그것이 발이 되면 고치기가 힘드니 조심해라. -> 나쁜 버릇이나 관례
- *배고픈 김에 허발을 하고 음식을 걸어 먹었다. -> 몹시 굶주려 있거나 궁하여 체면 없이 함부로 먹거나 덤빔
- *네 이놈, 정녕 네가 영금을 보아야 잘못을 뉘우칠 수 있단 말이나? -> 따끔하게 당하는 곤욕

16번

- *‘물 건너 온 범’ : ‘한풀 꺾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오지랖 : ‘웃웃이나 윷도리에 입는 걸옷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말,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 드물게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의 뜻으로도 쓰임.
- *‘절에 간 색시’ :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 ‘아무리 싫어도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 *변죽 : ‘그릇이나 세간, 과녁 따위의 가장자리’를 뜻함.
 (“화살이 과녁의 변죽을 꿰뚫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상의 변죽을 두드리며 흥을 돋우었다.”)
 ‘변죽을 울리다’는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의 뜻, 달리 ‘변죽을 치다’로도 쓰임
- *자라목 : ‘보통 사람보다 짧고 발은 목’ (“그는 자라목이라서 키가 더 작아 보인다.”)
 ‘자라목이 되다’는 ‘사물이나 기세 따위가 움츠러들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자라목 오그라들듯’은 ‘송구스럽거나 부끄러워 목이 움츠러드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쓰이므로 혼동해선 안 된다.

17번 - <보기>의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단어는? (답 : 5번 안광)

<보기>

- *그는 ()이 나빠 안경을 쓴다.
 - *당신은 사람을 보는 ()이 매우 높구려.
 - *남의 ()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추천하시오.
- 1)눈 2)시력 3)시선 4)안목 5)안광

[보충]

*‘눈’은 기본적으로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하는데, 의미가 확장돼 ‘시력(視力)’,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달리 안목(眼目)’, ‘무엇을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 ‘사람들의 눈길, 달리 시선(視線)’, ‘태풍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 등의 뜻으로 쓰임.

*‘안광(眼光)’은 ‘눈의 정기’를 뜻하는 말로서 “안광이 번뜩인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유의어로 ‘눈빛’이 있다. 확장하여 ‘사물을 보는 힘’의 뜻으로 “안광이 날카롭다.”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목(眼目)’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해력에 초점이 놓이므로 ‘판단력’을 포함하는 안목과 차이가 있다.

18번 -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그동안 학설로만 주장되어 오던 우리 고유의 청동종 밀랍 주조 기술이 이번에 (실제) 종을 제작하는 데 적용되었다.
- *경찰이 오랫동안 추적하던 용의자는 수사 결과 (실재) 의 인물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임이 드러났다.

[보충]

- *실제(實際) : 사실의 경우나 형편 (실제 상황)
- *실재(實在) : 실제로 존재함 (실재의 인물)
- *실체(實體) :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다.)
- *실존(實存) : 실제로 존재함, 또는 그런 존재 (신의 실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19~20번 지문

네 꽃은 쓰고 내 꽃만 달다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노래나, 광활한 대지보다 비좁은 바위가 좋다는 ㉠ 은둔, 도피의 노래 등 우리의 꽃노래에는 한결같이 너그러움과 긍정적인 삶의 희열이 두절된 ㉡ 각박한 마음이 엿보인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설과 민요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이 그만큼 상상력의 억눌림 속에서 살아왔다는 증거이다. 쫓기고 굶주리고 학정 속에서 몸부림쳐 온 서민들에게는 자기 (㉢)를(을) 창조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다. 우리에게 동물적인 침식의 안락만 추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자는 일만 되풀이한다는 것은 하나의 ‘욕’이었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데도 (㉤)하시냐고 물었던 것이다.

자고 먹는 일에 바빴던 선조의 생활에서는 하나의 신화가 생겨날 만한 (㉥)가(이) 없었다. 모든 면에서 (㉥)가(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또 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19번 - ㉠~㉥에 들어갈 말

정답 : 신화, 이상, 침식이 여일, 여유

20번 - ㉡, ㉢의 한자

- *은둔(隱遁) : 隱 숨을 은 / 遁 달아날, 피할, 숨을 둔
- *각박(刻薄) : 刻 새길 각 / 薄 얇을 박

21~22번 지문

한자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강[川]'은 중국인에게 재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소통의 상징이었으며, '심장[心]'은 심리나 정서, 또는 성품의 상징이었다.

황허 강 주위에 사는 중국인에게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홍수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갑골문에서 원래 강물이 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불을 의미하는 글자와 결합하여 지금의 (㉠)이(가) 된 것은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강은 물의 흐름, 즉 소통이 발생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로 본다면 (㉡)은(든) 가르친다는 것이 뜻을 잘 소통하도록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心]'으로 생각한다고 보았는데, '愚'나 '想'이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예이다. 또한 '心'은 '情, (㉢)'처럼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고, '忠, 恭, 懼, 怠, 愚'처럼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1번 - ㉠, ㉡에 들어갈 한자

- *㉠ : 災(재앙 재)
- *㉡ : 訓(가르칠 훈)

[기타 보기 한자]

*淡(뭍을 담), 說(말씀 설), 巢(집 소), 話(말할 화), 冰(얼음 빙), 談(말씀 담), 炎(불탈焰), 講(익힐 강)

[보충]

- *상형(象形) :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을 본뜬
ex) 山(외 산 ; 산을 본뜬), 木(나무 목 ; 나무를 상형), 鳥(새 조 ; 새를 상형)
- *지사(指事) :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으로 가리킴.
ex) 一(한 일), 上(위 상)
- *회의(會意) : 각각 뜻이 있는 두 개 이상의 글자를 모아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
ex) 明(밝을 명 : 발광체인 해[日]와 달[月]을 결합하여 '밝음[明]'을 표현)
- *형성(形聲) :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발음을 나타내는 요소를 결합하여 구성함.
ex) 淸(맑을 청) = 氵(水)(물 수 ; 의미 요소) + 青(푸를 청 ; 발음 요소)
花(꽃 화) = 艹(艸)(풀 초 ; 의미 요소) + 化(뒵 화 ; 발음 요소)
- *전주(轉注) - 자형(字形)은 그대로 두고 자음(字音)과 자의(字義)를 새로 만들.
ex) 度(법도 도, 헤아릴 탁), 更(고칠 경, 다시 갱), 降(항복할 향, 내릴 강)
- *가차(假借) : 본래의 의미와 관계없이 그 음(音)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거짓으로 빌려 씀.
ex) 亞細亞(아세아) : 'Asia'의 음차 표기 / 伊太利(이태리) : 'Italy'의 음차표기

22번 - ㉢에 들어갈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3번)

- 1)怒(성낼 노) 2)怨(원망할 원) 3)悉(모두 실) 4)悶(번민할 민) 5)恨(원망할 한)

[보충] -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

快(쾌할 쾌)	喜(기쁠 희)	驚(놀랄 경)	悲(슬플 비)
哀(슬플 애)	愧(창피할 괴)	慌(황홀할 황)	憾(섭섭할 감)
嬉(질투할 호)	感(고마울 감)	樂(좋아할 요)	好(좋아할 호)
惡(미워할 오)	煩(괴로워할 번)	怒(화낼 노)	懼(두려워할 구)

23번 - 한자 병기

- *촉진(促進), 도모(圖謀), 인식(認識), 계승(繼承), 보전(保全)
- *보전(保全)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생태계 보전, 환경 보전, 보전에 힘쓰다)

24번 - 한자 성어

- *다정다감(多情多感) :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다
-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와신상담(臥薪嘗膽) : 거북한 삶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 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동병상련(同病相憐) :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전전반측(輾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전전불매(輾轉不寐)
- *구중심처(九重深處) :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임금에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구중궁궐(九重宮闕)
- *화촉동방(華燭洞房) :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자는 방
- *독수공방(獨守空房) : 1)혼자서 지내는 것, 2)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방촌지간(方寸之間) : 사람의 마음 속, 흉중(胸中)을 이르는 말.
- *무인동방(無人洞房) : 임이 없는 외로운 여인의 방

25번 - 어려운 표현을 쉽게 순화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1번)

- 1) 나대지 -> 혈벗은 땅
- 2) 시건장치 -> 잠금 장치
- 3) 장물을 은닉하다 -> 장물을 숨기다
- 4) 등기를 해태한 자 -> 등기를 게을리 한 사람
- 5)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

풀이

- 1) '나대지(裸垓地)'는 '집터이지만 아직 집을 짓지 않는 땅'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 '빈 집터' 내지 '공터'로 고쳐 쓸 수 있다. 나(裸)가 결합하지 않은 '대지(垓地)'는 '집터로서의 땅'을 뜻하는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라 있다.
- 2) '시건장치(施鍵裝置)'는 '문 따위를 잠그는 장치'로서 '잠금 장치'로 순화할 수 있다.
- 3) '장물(贓物)'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는 법률 용어. '은닉(隱匿)'의 한자가 모두 '숨기다'를 뜻하는 말이므로 굳이 '숨기다' 대신 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 4) '해태(懈怠)'는 모두 '게으름, 게으르다'를 뜻하는 한자로 구성된 말이므로 '게으름', '게을리 하다'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
- 5) '개전(改悛)'은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음'을 뜻하는 한자어로 특히 '전(悛)'자가 흔히 쓰는 한자가 아니므로 쉬운 말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함.

26번 - 사이시옷의 쓰임이 모두 바른 것은? (답 : 4번)

- 1) 윗쪽, 윗층 2) 윗니, 전셋방 3) 머릿말, 인삿말 4) 단춧구멍, 김칫국 5) 댓구(對句), 횡수(回數)

[해설]

- 1) 윗쪽, 윗층 -> 위쪽, 위층 : ‘ㄱ, ㄷ, ㅂ, ㅍ’나 ‘ㄴ, ㄷ, ㅍ, ㅈ’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 2) 2) 윗니, 전셋방 -> 윗니, 전세방 :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하는 예외적인 한자 여섯 개(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
- 3) 머릿말, 인삿말 -> 머리말, 인사말 : ‘머리말’은 [머리말]로, ‘인사말’은 [인사말]로 소리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 5) 댓구(對句), 횡수(回數) -> 대구, 횡수 : ‘대구’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하는 예외적인 한자가 아니다.

[보충]

사시시옷이 들어가려면 합성어여야 함. 단일어나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음. 동시에 합성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함.

환경	사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바닷가, 뱃길, 깃병, 텃세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아랫니, 냇물, 갯날, 양치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난다.	뒷일, 깃잎, 예삿일, 훗일

27번 - 바른 단어 표기

- *넙을 잃고 걷다가 그만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했다. -> 부딪히고 : 피동표현
- *우산을 받혀 들고 서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다. -> 받쳐
- *어머니의 속을 씩힌 저의 지난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 씩인
- *알맞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직원 채용을 미룰까 합니다. -> 알맞은 :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라 '알맞은, 걸맞은'이 맞다.
-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소년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

[보충]

- *부딪치다 : 차와 차가 마주 부딪치다.
부딪히다 :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히다.
피동 표현일 때는 '~에 부딪히다'가 맞다.
- *바치다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받치다 : 우산을 받치고 간다. / 책받침을 받치다.
받히다 : 쇠뿔에 받히다.
받치다 : 술을 체에 받치다.
-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28번 - 표현의 적절성

- *가늠하다 : ①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 ②일이 되어 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살펴서 짐작하다.
가름하다 : ①따로따로 나누다. ②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다.
- *너머 : 산 너머 산이라고 첩첩산중으로 생고생이로구나. -> 동사 '넘어'가 맞다.
넘어 :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나. -> 의존 명사 '너머'가 맞다.
- *'갑절'과 '곱절'은 동의어로 쓰이지만 '서너' 같은 수사 뒤에서는 '곱절'이 쓰인다.

갑절 : =배(倍) ('그의 몸무게는 나보다 갑절이나 무겁다' / '이 집은 다른 집보다 갑절이 더 비싸다')

곱절 : =배(倍) ('생산량이 작년보다 곱절이나 늘었다' / '그 상점은 도매보다 가격을 곱절로 더 비싸게 부른다')

*갱신(更新) : ①=경신(更新) (자기 갱신 / 환경 갱신/ 동맹 갱신 / '단체 협상 갱신이 무산됐다')

②법을 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계약 갱신 / 비자 갱신/ '여권 갱신을 받다')

경신(更新) : ①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고침'으로 순화. ≒ 갱신(更新)

②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기록 경신)

*껍질 :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썩. (굴의 껍질을 까다 / 양파의 껍질을 벗기다)

껍데기 : ①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달걀 껍데기를 깨뜨리다)

②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 (이불의 껍데기를 갈다 / 베개 껍데기를 벗기다)

③화투에서, 낫수가 없는 패짜.

29번 - 바른 표기

- *건강할쥬대 무엇이 걱정이냐? -> 건강할진대
- *손에 쥐면 터질쥬라. -> 터질세라
- *아마도 그는 거기에 가지 않았을걸. -> 않았을걸
- *나중에 전화할게요. -> 전화할게요
-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쏘냐? (○)

[보충]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 (으)르거나	- (으)르 <u>꺼</u> 나
- (으)르 <u>겉</u>	- (으)르 <u>꺼</u> 겉
- (으)르 <u>게</u>	- (으)르 <u>꺼</u> 게
- (으)르 <u>세</u>	- (으)르 <u>꺼</u> 세
- (으)르 <u>세</u> 라	- (으)르 <u>꺼</u> 세라
- (으)르 <u>수</u> 록	- (으)르 <u>꺼</u> 수록
- (으)르 <u>지</u> 라도	- (으)르 <u>꺼</u> 지라도
- (으)르 <u>진</u> 대	- (으)르 <u>꺼</u> 진대
- (으)르 <u>진</u> 저	- (으)르 <u>꺼</u> 진저
- <u>올</u> 시다	- <u>올</u> 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으)르 <u>까</u> ?	- (으)르 <u>꼬</u> ?	- (스)브 <u>니</u> 까?
- (으)리 <u>까</u> ?	- (으)르 <u>쏘</u> 냐?	

*어미 혼동 표기 사례 모음

①단수 표준 어미

○	X	○	X
-습 <u>니</u> 다	-습 <u>디</u> 다	-시 <u>피</u>	- <u>십</u> 이
-고, -다 <u>고</u>	- <u>구</u> , -다 <u>구</u>	- <u>게</u> 끔	- <u>게</u> 시리
-기 <u>에</u>	- <u>길</u> 래	- <u>에</u> 는	- <u>엘</u> 랑
-사 <u>오</u> 니	- <u>아</u> 오니[있 <u>아</u> 오니]	- <u>거</u> 야	- <u>게</u> 야
- <u>구</u> 만	- <u>구</u> 만	- <u>더</u> 러[나 <u>더</u> 러]	- <u>르</u> 더러[날 <u>더</u> 러]
- <u>르</u> 는지	- <u>르</u> 런지	- <u>르</u> 게, - <u>르</u> 진대	- <u>르</u> 께, - <u>르</u> 핀대
- <u>르</u> 까, - <u>르</u> 쏘냐	- <u>르</u> 가, - <u>르</u> 소냐	- <u>이</u> 관 <u>데</u>	- <u>관</u> 대
- <u>건</u> 대	- <u>건</u> 데		

②복수 표준 어미

-다마다 = -고말고	-기 마련이다 = -게 마련이다
-인만큼(-인만치) = -이니만큼(-이니만치)	-지만- = -지마는('지만은'은 틀림)
-세요 = -셔요	-스레하다 = -스름하다
-며 = -면서(동시 진행의 '-며')	-ㄴ다며 = -ㄴ다면서

특히 다음 종결 어미는 어간 말음이 자음, 모음이냐에 따라 구별한다.

선행 어간음	<해요체>	<하오체>
자음 말음 어간말	책이에요 = 책이어요	책이오
모음 말음 어간말	차예요 = 차여요	차요

③헛갈리는 어미

-구려(명령 어미) / -그려(감탄 조사)	-대요(=-다고 해요) / -데요(회상)
-러(목적) / -려(의도)	-으므로(이유) / -음으로(수단)
-로서(자격) / -로써(수단)	-던(회상) / -든(선택 방임)

30번 - 바른 표기

-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났다. -> 부스스
- *친구에게 부죈돈을 전달하였다. -> 부죈돈, 부조금
- *식구가 아주 단출하시네요. (O)
- *글씨를 개발새발 그려 쓰고 있다. (O)
-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시력을 해친다. (O)

31번 - 띄어쓰기

- *합격자는 나밖에 여러 명이었지만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형밖에 없었다.
-> 합격자는 나밖에 여러 명이었지만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형밖에 없었다.
: 여기서 '나 밖에'의 '밖'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형밖에'의 '밖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정부는 남은 조치를 마저 취하기로 하고 이들의 집회와 시위마저 제한하기로 했다.
-> *정부는 남은 조치를 마저(부사) 취하기로 하고 이들의 집회와 시위마저(조사) 제한하기로 했다.
- *"1년만 기다려라."라고 했던 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 "1년만(조사) 기다려라."라고 했던 그가 10년 만(의존명사)에 돌아왔다.
: 시간을 나타내는 '만'은 의존 명사이고, 제한적 의미의 '만'은 조사이다.
- *취재진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상당했지만 다들 구경만 할 뿐 아무도 거드는 이가 없었다.
-> 취재진뿐(조사) 아니라 관광객들도 상당했지만 다들 구경만 할 뿐(의존 명사) 아무도 거드는 이가 없었다.
- *다시 검토했바, 어제 조사한 바와 일치합니다.
-> 다시 검토했바(어미), 어제 조사한 바(의존 명사)와 일치합니다.

[보충]

품사	의미	예문
밖(명사)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합격자는 너 밖 에도 여러 명이 있다.
밖에(조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공부 밖에 모르는 학생
마저(부사)	남김없이 모두	내 말을 마저 들어라
마저(조사)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 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만(조사)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만(의존 명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십 년 만 의 귀국
뿐(조사)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 뿐 이다.
뿐(의존 명사)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모두들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나바(어미)	(문어체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서류를 검토한 나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바(의존 명사)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내가 알던 바 와는 다르다.

32번 - 문장부호

* 「무정」은 춘원 이광수(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 '무정'으로, 낫표(「」)는 세로쓰기에서 사용한다.

*그는 1945. 8. 15(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났다.

-> '15' 다음에도 온점을 찍어야 한다.

*어머니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꾸중만 들었다.

-> '어머니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처럼 줄표는 앞뒤에 모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중간에 인용한 말이 문장일 때에는 온점을 넣어야 한다. 따라서 '~구멍이 있다'에도 온점을 넣어 '~구멍이 있다.'

*'새마을 운동, 국어 순화 운동' 등 '~ 운동'이 참 많았다. (O)

33번.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정식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어 'Noblesse oblige'의 한글 표기는?

*Noblesse oblige : 노블레스 오블리주

34번 - 외래어 표기

*랑데뷰 -> 랑데부(rendez-vous)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Malaysia)

*알루미늄 샴시 -> 알루미늄 새시

*스프링쿨러 -> 스프링클러(sprinkler) : '살수기'로 순화하여 쓰는 게 좋다.

*발렌타인데이 ->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

35번 - 로마자 표기

*팔당 : Paldang

-> 로마자 표기에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남산 : Namsan

-> 자연 지물 명, 문화재 명, 인공 축조물 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전라도 : Jeolla-do / 양촌리 : Yangchon-ri

->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그리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ㄹㄹ’은 ‘ll’로 적는다.

*한복남 : Han Bocknam 또는 Han Bok-nam

->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만, 인명을 적을 때에는 자음 동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띄어 쓰되, 이름은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36번 - 어림 낱수

*1일 남짓 : 날포 (O)

*4~5일 : 너댓새 (O)

*5~6일 : 다섯새 (X) -> 대엿새

*6~7일 : 예니레 (O)

*7~8일 : 일여드레 (O)

[보충]

① ‘날포, 달포, 해포’에 붙는 ‘포’는 옛말에서 ‘거듭’을 뜻하는 부사로도 사용되었으며, 본디 ‘거듭되다’ 또는 ‘넘다’를 뜻하는 ‘꼭다’에서 파생한 형태이다.

② 4~5일을 나타내는 ‘너댓새’는 ‘너더댓새’로도 쓰인다. 그런데 어림수 3~4는 ‘서너’인데 어림 낱수 3~4일은 ‘사나흘’인 점을 참고해 둘 만하다.

37번. 한국어의 특징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표현은? (답 : 5번)

- ①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②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 ③ 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 ④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다.
- ⑤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해설

①~④는 ‘~에게’로 하면 간결하고 국어다운데 ‘에 대하여’라고 번역투를 쓰거나, ‘경주(傾注)’ 같은 한자어를 썼고, ‘갖다’와 같은 have의 번역투를 써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다.

38번 - 번역투 고치기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있습니다.

*소설의 쓸데없는 과장성마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주목에 값한다. -> 주목할 만하다.

*그는 거짓말을 할 최후의 사람이다. -> 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입시 제도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따져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보 산업의 선두 주자임을 자부하는 ○○의 새로운 시스템에 많은 호응 있으시기 바랍니다. ->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이고 있다’의 경우 ‘보이다’나 ‘있다’만 써도 된다. 예컨대 ‘음영을 보고 있고’라면 ‘음영이 있고’나 ‘음영을 보이고’로 쓰면 된다. ‘보이고 있다’의 ‘있다’는 보조 용언으로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거나 어떤 상태가 지속하다’의 뜻이다. 그리고 ‘보이다’는 ‘눈에 들어오거나 살피어지다’의 뜻이다. 그런데 ‘보이다’에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있다’를 붙이면 어색하다.

39번

*그따위 못된 짓은 그만두지 않겠다. -> 가만두지

*그는 사업을 크게 떠벌렸다가 손해만 보았다. -> 떠벌이다.

: ‘떠벌리다’는 이야기를 과장하여 늘어 놓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다. 사업 등을 굉장한 규모로 차릴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떠벌이다’이다.

*그 남자는 몸이 방대하여 뛰어나는 것이 곤란하다. -> ‘비대하다’

: 사람의 몸에 살이 썩어서 크고 뚱뚱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방대하다’가 아니라 ‘비대하다’이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에 국민들의 분노가 작렬하였다. -> 작열하였다.

: ‘분노가 작렬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작렬(炸裂)’은 포탄 따위가 터져서 짹 퍼지거나,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 따위가 포탄이 터지듯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경우에만 사용한다. ‘분노’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듯 들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작열(灼熱)’이다.

*속웃이 비어져 나와 보기가 민망했다. (O)

40번. 기사문을 고쳐 쓴 것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 4번)

① 폭풍의 기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그러들다’가 아니라 ‘수그러들다’이다.

② 차가 워낙 엷히고 섧혀서(->엷히고섧켜서) 견인차도 진입하지 못합니다.

-> ‘엷히고섧키다’는 ‘일 따위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되다’라는 뜻의 하나의 단어이다. ‘섧키다’로 적고 앞에 붙여 쓴다.

③ 운전자는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굴립니다(->동동 구릅니다).

-> ‘동동’과 호응하는 동사는 ‘굴리다’가 아니라 ‘구르다’이다. ‘동동’이 사용되어 한 단어를 이룬 ‘동동거리다’와 ‘동동대다’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 요즘 젊은이들은 웬(->웬) 불만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웬’은 ‘어떠한’이라는 뜻이고, ‘웬’은 ‘어찌 된’, ‘무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을 써야 한다.

⑤ 그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붙이기로(->부치기로) 합시다.

->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부치다’로 적습니다.

풀이

④은 정확하게 쓰인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이다. 고친 이유에서도 ‘웬’과 ‘웬’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 있다.

[보충]

①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는 ‘사그러들다’가 아니라 ‘수그러들다’이다. ‘사그러들다’라는 동사는 없다. ‘불길’이나 ‘햇빛’ 등과 호응하며 삭아서 없어진다는 뜻의 ‘사그라지다’와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수그러들다 : (1) 안으로 굽어 들어가거나 기울어져 들어가다. (나팔꽃은 밤이 되면 꽃이 수그러든다.) (2) 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든다. (더위가 수그러들다.)
* 사그라지다 : 삭아서 없어지다. (불길이 사그라지다. / 햇빛이 사그라지다.)

②‘엷히고섧키다’는 ‘일 따위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되다’라는 하나의 동사이다. 붙여 써야 하고 ‘섧히다’가 아니라 ‘섧키다’로 적는다. (엷히고섧킨 인연 / 일이 엷히고섧켜서 풀기가 어렵다)

③부사 ‘동동’에 호응하는 동사는 ‘굴리다’가 아니라 ‘구르다’이다. ‘동동’이 사용되어 한 단어를 이룬 동사 ‘동동거리다’와 ‘동동대다’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 사람들이 언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학부모들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문 밖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대며 버스를 기다린다.

④ 웬(관형사) : (1) 어찌 된. (웬 영문인지 모르다. /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2) 어떠한. (골목에서 웬 사내와 마주치다.)

웬지(부사) :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듣자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웬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웬지'로 써야 한다.

제3회 KBS한국어 능력시험

11. 어휘-발음 맞는 것 고르기.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 소리를 첨가해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늑막염[능망념]
- *식용유[시공뉴]
- *숨이불[숨니불]
- *등용문[등용문] ▷예외 :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 [송버련] 등용문[등용문]

보충▷'ㄴ'소리를 첨가해서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도 있는 사례들

-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마금]
- *검열[검:널/거:멸]
-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 *금융[금녕/그몽]

12. 어휘-장음에 굵은 표시

- *부자(父子)/부자(富:者)
- *시계(時計)/시계(視:界)
- *음식의 간이 맞다/간(肝:)이 아파 병원 신세를 졌다
- *사과(沙果)가 탐스럽게 익었다/사과(赦:過) 하기는커녕 화냈다
- *여권(旅券)을 발급받았다/여권(女權) 신장은 여성의 참정권 확대에서 비롯된다.(둘 다 단음)

보충▷

'가' 중 장음 : 可, 苛, 假, 佳, 暇, 榎, 檣 외 다 단음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거짓 가(假)로 시작하는 한자어들 가면, 가봉, 가불 등은 모두 첫음절을 길게 발음하고 집 가(家)로 시작하는 한자어들 가구, 가사, 가장, 가전 등은 모두 단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 어법

- *안절부절했다(X)/안절부절 못했다(O)
- *케케묵다(X)/케케묵다(O) :
- ①물건 따위가 아주 오래돼 낡다
- ②일, 지식 따위가 아주 오래되어 시대에 뒤떨어지다.
- *주책이다(X)/주책없다(O)
- *지리하다(X)/지루하다(O)
- *어리숙하다(X)/어수룩하다(O) = 유사한 고유어로 숫되다, 후하다, 빙충맞다 등이 있다.

14. 어휘

- *파임내다: 일치된 의논에 대해 나중에 탄소리를 하여 그르치다.
- *지지재재하다: 이러니저러니 하고 자꾸 지껄이다.
- *그루박다: ①물건을 들어 바닥에 거꾸로 탁 놓다
②사람을 기를 펴지 못하게 억누르다
③말을 다지거나 힘을 주어 단단히 강조하다
- *콩팍칠팔하다: ①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마구 지껄이다
②하찮은 일을 가지고 시비조로 캐묻고 따지다
- *생게망게하다: 행동이나 말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다.

15. 어휘

*재다: ①잘난 척하며 으스스대거나 뽐내다

②어려모로 따져 보고 해야리다.

③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 두다. EX) 인삼을 꿀에 찌다.

④총, 포 따위에 화약이나 탄환을 넣어 끼우거나 담뱃대에 연초를 넣다.

⑤동작이 재빠르다,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볍다.

16. 어휘

*옥실옥실:

①유별나게 여럿이 한데 모여 오글거리는 형상.

②아기자기한 재미 따위가 많다.

*까칠까칠하다: 아위거나 메말라 살갓이나 털 등의 여기저기가 매우 윤기가 없고 거칠다. '가칠가칠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몽텅몽텅: 잇따라 제법 크게 잘리거나 끊어지는 모양.

*곰슬곰슬: 털이나 실 따위가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모양

*자글자글:

①액체나 기름 따위가 걸쭉하게 잦아들면서 자꾸 끓는 소리

②걱정스럽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못마땅하여 마음을 줄이는 모양

③어린이가 아파서 열이 자꾸 나며 몸이 달아오르는 모양.

17. 어휘 용법

'문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반드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에 나타난 '사회 : 문자'의 관계와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문자와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문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지문이 제시됨.)

정답▷ 국가 : 법

관계 규정의 축은 문자라기 보다는 사회로, 사회가 필요에 따라 문자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국가에 반드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발전 과정 속에서 필요에 의해 법이 생성된다.

18. 어휘-관용어

*눈에 밝히다 :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르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 ①검소한 생활을 하다. ②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에 임하다.

*입에 발린 소리=입에 붙은 소리 : 마음에도 없이 겉치레로 하는 말.

*입에 침 바른 소리 : 걸만 번지르르하게 꾸미어 듣기 좋게 하는 말.

*배알(뺨)이 뒤틀리다=배알이 끌리다 : 비위에 거슬러 아니꼽게 생각된다

19. 어휘-관용 표현

*가을 들이 딸네 집보다 낫다=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 : 가을 들에는 먹을 게 많다는 말

*가을 머슴꾼 비질하듯 : 가을걷이 후 머슴의 쓰레질처럼 '일을 성의없이 대강 해치운다'는 뜻

*가을 중의 시주 바가지 같다 : 가을은 곡식 풍성해 시주도 많다는 뜻으로 '무엇이 가득 담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 중 싸대듯 : 수확이 많은 가을에 시주 얻으려 중이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의미에서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바람에 새털 격이다 : 가을바람에 새털이 잘 날 듯이 사람의 처신머리가 몹시 가볍다는 뜻

*가을 들판에는 송장도 덤빈다=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가을 판에는 대부인 마님이 나막신짝 들고 나선다 : 가을걷이 때는 일이 많아 누구나 바빠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다 : 가을에 내놓은 식은 밥이 봄에 가서는 귀중한 양식. '풍족할 때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면 뒷날의 궁핍을 면할 수 있다'는 뜻.

20. 어휘-한자어

*배상(賠償) :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보상(報償) :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을 갚음 /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줬다.

*개선(改善)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호전(好轉) :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뀔 / 병의 증세가 나아짐.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의 개선 호전이 없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안전(安全)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예방(豫防) :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대처하여 막는 일.

▷앞으로는 사고가 없도록 재발 안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자.

*공포(公布) : 법률 등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

*공표(公表) : 학설 등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 = 공개 발표, 발표로 순화

▷학회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새 학설의 공포 공표를 미루기로 했다.

21. 문맥에 맞는 어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무작정 모방 정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된다.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좀 쉬는 게 최선이다.

*무위(無爲) :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 또는 이룬 것이 없음.

*모방(模倣)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22. 어휘

*결제(決濟) : 처결하여 끝낸다. 매매 당사자 간 거래를 끝맺는 경우. EX) 숙박비를 결제했다.

*결재(決裁) :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재량해 승인한다.

*구좌(口座) : 일본식 한자어. 계좌(計座)가 표준어다.

EX) 은행에 내 명의로 신규 구좌 계좌를 개설하였다.

23. 어휘-한자어

*풍광(風光) : 경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의 용모와 품격을 나타냄.

*천분(天分) : 타고난 재능이나 복.

*형안(炯眼) : 빛나는 눈. 날카로운 관찰력을 소유한 사람을 비유.

*재질(才質) : 사람의 재주와 기질 / 재질(材質) : 건축 재질, 기구, 재목을 가리킴.

*특장(特長) : 특별히 뛰어난 장점. 독특한 개성이 있는 장점 강조.

24. 어휘-한자어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기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 자기 말과 행동에 얽혀 곤란하게 됨=자업자득(自業自得)

*불철주야(不撤晝夜) :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자강불식(自強不息) : 수양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쉬지 않음.

*주경야독(晝耕夜讀) : 낮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어렵게 공부함. =청경우독

25. 어휘-한자어

*간섭(干涉) :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천명(闡明) :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 밝힘

ex)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반복해서 천명했다.

*전모(全貌) : 전체의 모양, 전체의 내용.

ex) 공범이 검거되었으니 이번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여론(輿論) :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거부(拒否) : 요구나 제의 따위를 단호히 물리침

26. 어휘

*닷, 엇 : 되, 말, 냥, 마지기 등의 의존명사 앞에서 5, 6의 뜻으로 사용함.

*석, 녁 : 냥, 되, 섬, 달, 자 등의 의존명사 앞에서 3, 4의 뜻으로 사용함

*두어 : 2~3. 대부분의 의존명사 앞에서 다 쓰임.

참고▷ 수량 단위

뒷밀: 곡식을 되로 되고 남는, 한 되에 차지 못하는 분량.

두력: 놀이나 노름을 위해 여럿이 모인 때, 또는 여러 집이 한 군데 모인 때.

- 두레: 둥근 쪼로 된 시루떡 덩이,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 두름: 조기나 청어 같은 물고기를 두 줄로 열 마리씩 엮은 것, 또는 고사리 따위 산나물을 열 모숨가람 엮은 것.
- 두매한짝: 다섯 손가락을 가리키는 말.
- 뜸: 한 마을 안에서 몇 집씩 따로 한 군데 모여 사는 구역.
- 마리: 시의 편수를 세는 단위. 수(首).
- 마속: '말'이나 '되'로 된 용량.
- 마장: 오 리나 십 리가 못 되는 거리를 말할 때 '리(里)' 대신 쓰는 단위.
- 마투리: 한 가마나 한 섬에 차지 못하고 남는 양.
- 자밤: 양념이나 나물 따위를 손가락 끝으로 집을 만한 정도의 분량.
- 조짐: 쪼갠 장작더미를 세는 단위.
- 채: 인삼 백 근을 세는 단위.
- 하름: 마소나 개의 한 살. '한습'이라고도 함. 하름(한습), 두습(이습), 사름(세습), 나름...

27. 표현 순화

-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물체를 촬영할 때는
- *에어필터 장치의 커버를 탈거시킨 후 필터를 교체합니다→공기 여과기의 덮개를 벗긴 후 여과지를 교체합니다.
- *일반 의자는 골반과 요추 상부를 지지하지 못합니다.→일반 의자는 엉덩뼈와 허리등뼈 윗부분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 *공지로 된 고수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공사 시방서를 만들었다.→빈터로 된 둔치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공사 설명서가 나왔다.

▷참고

- *귀속(歸屬) :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 어떤 개인이 특정 단체의 소속이 됨.
- *귀책(歸責) :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 의사에 의해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임. ex)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귀책사유(歸責事由) :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

28.

- *삼수갑산(三水甲山)을 가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산을 넣어 '매우 힘들고 험난한 곳으로 가거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라는 의미.
- *오곡백과(五穀百果) : 온갖 곡식과 과실.
- *절체절명(絶體絶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동고동락(同苦同樂)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 *혈혈단신(孑孓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풍비박산(風飛雹散)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29. 어법

- *'멋쟁이' 누나가 산다→멋쟁이 누나가 산다 ▷장미 : 대장장이처럼 기술자를 말할 때. 쟁이 : 성격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
- *뒤엎김 '덩쿨'(X)→덩굴, 넝쿨. 덩굴과 유사한 넝쿨이라는 단어가 혼동돼서 유사 단어들의 뒤섞임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런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가르키다, 가리치다 같은 오용 사례.
- *사글세=삭월세(朔月貰) : 둘 다 맞는 표현이다.

30.

- *들어내다 :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 사람을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다
ex) 그는 땀을 흘리며 이삿짐을 들어내고 있었다.
- *드러내다 :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나게 하다.
ex) 그녀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미소지었다.
- *깃들다 : 서려있다, 스며있다의 의미
- *깃들이다 : 짐승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 사람이나 건물이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잡다.

31.

<'에서'의 쓰임>

- ①출발점의 뜻 - 집에서 학교까지

- ②행동이 이뤄지는 처소의 뜻- 가게 앞에서 싸웠다
- ③근거의 뜻- 고마운 마음에서
- ④비교의 기준- 죽은 부모가 다시 산들 이에서 더 기쁘진 않을 것이다
- ⑤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냄-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32.

*'깨끗히'(X) / 깨끗이(O)

*'삼가하다'(X) / 삼가다(O)

- ①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 ②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횡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

*담배를 피다(X) / 담배를 피우다(X)

- ①피다 : 1)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
 - 2) 연탄이나 숯 따위에 불이 일어나 스스로 타다
 - 3) 사람이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지다. ex) 얼굴이 피고 살이 올랐구나!
 - 4) 구름이나 연기가 커지다. ex)소나기가 오려는지 먹구름이 피었다.
 - 5) 가정이 수입이 늘어 형편이 나아지다 ex) 사업이 잘돼 형편이 피었다.
 - 6) 천에 보풀이 일어나다 ex) 스웨터에 보푸라기가 피다
 - 7) 웃음이나 미소가 나타나다
 - 8) 곰팡이, 버짐, 검버섯이 생겨 나타나다. ex) 식빵에 곰팡이가 피다.
 - 9) 액체가 종이나 천에 묻어 퍼지다 ex) 한지에 먹이 피다

② 피우다

- 1) 피다1), 2), 4)의 사동사.
- 2)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보내다.
- 3)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명사가 뜻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ex) 게으름을 피우다.
- 4) 냄새나 먼지 따위를 퍼뜨리거나 일으키다 ex) 향내를 피우다.

*주십시오(x) / 주십시오(o)

33. 띄어쓰기가 바른 것 고르기.

*차려입다, 알아보다, 들어서다, 내몰다 : 합성동사이므로 하나의 단어. 붙여 쓴다.
ex)장사꾼만 들어서면 종업원이 성가시다는 얼굴로 그들을 서둘러 내몰았다.

*갈아 엮고 : 갈다, 엮다 두 동사로 이뤄진 복합 동사구이므로 띄어 씀.
ex) 계산대 앞의 여주인이 축음기판을 갈아 엮고 있었다.

*갈아타다 : 환승이라는 굳어진 의미로 쓰이는 경우 합성 동사로 인정해준다.

34-35. 외래어 표기 맞는 것

*air conditioner : 에어컨(condition의 외래어 표기가 '컨디션'이기 때문)

*contents : 콘텐츠

*contest : 콘테스트

*continuity : 콘티뉴이티

*tape : 테이프

*gas range : 가스레인지

*network : 네트워크

*chipmunk : 치프멍크

*sickness : 시크니스

*newton : 뉴턴

*rousseau : 루소

*Einstein : 아인슈타인

*Shakespeare : 셰익스피어

*Chingiz Khan : 칭기즈칸

36. 지명 로마자 표기 맞는 것

*독도 : Dokdo

*백령도[백령도] : Baengnyeongdo

*마라도 : Marado

*백마[백마] : Baengma

*신문로[신문노] : Sinmunno

*종로[종노] : Jongno

*왕십리[왕심니] : Wangsimni

*별내[별래] : Byeollae

*신라[실라] : Silla

37. 번역투, 일본식 표현 순화 맞는 것

*범죄에 다름 아니다→범죄일 뿐이다.

*주의가 요구된다→주의해야 한다

*세 시간에 도달하다 보니→세 시간이나 되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협조가 많기를 바랍니다.

*설문 결과가 말해주고 있듯→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

38. 번역투, 일본식 표현 순화 맞는 것

*인간으로서는 그곳은→인간에게 그곳은

*이마로부터 흘러내리는→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하늘이며 땅이 모두→하늘과 땅이 모두

*작가와와의 대화→작가와 대화

제4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 밑줄 친 발음이 바른 것은?

1. 거을[기으글] (기여글) 2. 스으로[시오스로] (시오스로) 3. 츠에[치으체] (치으체)
4. 크이[키으기] 5. 트은[티그슨] (티으슨)

12. 밑줄 친 말의 발음이 긴 소리로 나지 않는 것은?

1. 만은 천의 열 곱절이다.
2. 십은 열의 다섯 곱절이다.
3. 넷은 셋에 하나를 더한 수이다.
4. 백은 아흔아홉에 하나를 더한 수이다.
5. 이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13.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1. 까다롭다 - 까탈스럽다
2. 소고기 - 쇠고기
3. 서럽다 - 싫다
4. 떨어뜨리다 - 떨어트리다

14. 다음 []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묶인 것은?

촛불 아래 누운 청암 부인이 누렇게 바랜 노안에, 흔들이는 불 그림자가 일렁거린다. 그래서 두드러져 뼈가 솟은 곳은 메마른 나무를 깎아놓은 것 같고, 움푹 패어 그림자가 고이는 곳은 적막한 골짜기 같았다. 사람의 얼굴을 두고 [a]와/과 [b], 그리고 [c](이)며 [d]을/를 일러 [e](이)라 한 말이 참으로 옳은 것을 알겠다. 이미 오래 전에 살을 다 벗어버리고 개결한 뼈로만 남은 듯한 청암 부인의 얼굴은 말 그래도 산악처럼 느껴진다.

- | | | | | |
|--------|-----|-----|-------|----|
| 1. 코 | 인중 | 입술 | 양 뺨 | 오악 |
| 2. 이마 | 코 | 턱 | 양 광대뼈 | 오악 |
| 3. 입 | 양 눈 | 콧구멍 | 콧구멍 | 오공 |
| 4. 양 눈 | 코 | 귀 | 입 | 오공 |
| 5. 이맛살 | 콧마루 | 인중 | 양 볼 | 오맥 |

15. 다음 밑줄 친 속담의 뜻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은?

- A :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걸 너무하잖아.
B :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C : 이거 완전히 개구리 낫짝에 물 붓기구먼.

1. 개구리는 물 없인 살 수 없으니까 남에게 큰 도움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 말일 거야
2. 개구리는 물을 좋아하니까 이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배려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야.
3. 개구리 얼굴이 미끈거리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약삭빠른 행동을 일컫는 말일거야.
4. 개구리처럼 힘없는 동물을 괴롭히니까 이걸 상대를 괴롭히는 심성 나쁜 행위를 일컫는 말일 거야.
5. 개구리는 물을 끼얹어도 별로 놀라지 않으니까 상대에게 아무 소용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일 거야.

16. '뜨다'를 활용하여 () 속에 넣을 수 없는 것은?

1. 과장님은 워낙 말수가 () 분이다.
2. 자꾸 뜸 () 말고 빨리 결혼합시다.
3. 집에서 직접 만든 메주가 () 시작했다.
4. 터진 데를 한두 바늘만 () 될 걸 그냥 놔두니?
5. 예전에는 겨울에 얼음장을 () 여름에 사용했다.

17.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1. 뚜껑을 여는 순간 고약한 냄새가 물큰 코를 찔렀다.
 - 냄새 따위가 한꺼번에 확 풍기는 모양
2. 소년은 너무 배가 고파서 산에 있는 돌기까지 마구 따 먹었다.
 - 채 익지 않은 과일
3.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애오라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냐?
 - 겨우
4. 위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재겹게 들렸다.
 - 재미있고 정겹게 (조금 지겹게)
5.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되어 떨어져 내렸다.
 - 밤 따위가 잘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18. <보기>의 조건을 고려할 때,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 그 뜻이 서로 정반대이다.
- 동시에 부정할 때 모순이 생긴다.

1. 살다 : 죽다 2. 쉽다 : 어렵다 3. 덩다 : 좁다 4. 길다 : 짧다 5. 높다 : 낮다

19.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1. 그는 마침내 눈물을 떨구며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2. 오늘 경기에서 토고 팀의 전술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3. 그는 별을 세는 순수한 마음으로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4. 요즘 사람들은 허벅지나 허리가 두꺼운 것을 싫어합니다.
5. 고무줄놀이도 하고 들에서 달래도 따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1. 떨어뜨리며 / 떨어트리며
2. 다름 / 달라질
3. 세다1. 머리카락이나 수염 따위의 털이 희어지다 / 얼굴의 핏기가 없어지다
 세다2.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다 / (북한어) 어떤 자격 또는 성격으로 여기거나 간주하다
 세다3. 힘이 많다
 밑고 나가는 기세 따위가 강하다
 물, 불, 바람 따위의 기운이 크거나 빠르다
 능력이나 수준 따위의 정도가 높거나 심하다.
4. '굵은'이 옳은 표현 (두꺼운 / 두터운 둘 다 잘못된 표현)
5. '캐다'가 옳은 표현

20.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히 채소 재배 비닐하우스 농가의 폐해가 가장 컸습니다.
2. 작황이 부진하여 농산물 값의 폭증 사태가 우려됩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 정부는 국민의 위생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5. 약속한 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공원에서 해후하였습니다.

1. 피해
2. 폭등
4. 건강(위생 자체에 건강을 증진하다는 뜻이 포함돼 있음)
5. 해후(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만남)

21. 다음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일껏 붓을 가누어 ()하게 그은 획이 그만 비뚤어 버린 때 저는 우선 그 부근의 다른 획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서 그 실패를 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물론 지우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상 획의 성패란 획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획과 획의 관계 속에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획이 다른 획을 만나지 않고 어찌 제 혼자서 자(字)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획도 흡사 사람과 같아서 ()하지 못하는 반쪽인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자가 잘못된 때는 그 다음 자 또는 그 다음다음 자로써 그 ()을/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 | | | | |
|-------|----|----|----|
| 1. 조급 | 첨삭 | 자존 | 결여 |
| 2. 신중 | 첨가 | 자립 | 결손 |
| 3. 정교 | 개정 | 양립 | 흠결 |
| 4. 조신 | 개척 | 독존 | 결함 |
| 5. 정확 | 수정 | 독립 | 훼손 |

22. 밑줄 친 단어의 한자 병기가 잘못된 것은?

중국인의 의식 중심에는 언제나 중화사상과 화이관이 놓여 있다. 분열(分列)과 통일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갈리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변민족을 통일 제국 시기의 중국사 일부로 편입(編入)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중국 지식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符合)한다고 주장한다.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였을 때 친 중국파가 정권(政權)을 잡게 한 뒤 북한을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완전 배제(排除)할 수 없다. 1961년에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우호조약에 의하면 상대 국가가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

- 분열(分列) - 각각 갈라져서 늘어섬
 분열(分裂) - 찢어서 나누어짐. 집단이나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뉨

23. a~c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a		2.			
					4.	
			3.			
			b			
					d	

<가로>
 1.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려움
 3.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

<세로>
 2.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4. 분에 넘치는 듯싶어 매우 고맙게 여김

1. 翁-嘆-馬 (노인옹 탄식할탄 말마)
 2. 塞-樹-感 (변방새 나무수 느낄감)
 3. 翁-風-德 (노인옹 바람풍 덕덕)
 4. 馬-風-德 (말마 바람풍 덕덕)
 5. 感-樹-耳 (느낄감 나무수 귀이)
1. 새옹지마 2. 마이동풍 3. 풍수지탄 4. 감지덕지

26. 다음 중 수(數)를 가장 자연스럽게 읽은 것은?

1. 나는 올해 우리 나이로 63(육십셋)이야.
 2. 답안지를 모두 126(백스물여섯) 장 걷었습니다.
 3. 관련 교재가 현재까지 무려 32(삼십이) 가지입니다.
 4. 사고 선박은 기계적 결함이 40(마흔)여 군데나 됩니다.

27. 제시된 단어를 활용한 문장으로 잘못된 것은?

1. 검히다 : 양털 구름이 말짱히 검혀 버렸다

- 거치자 : 더 이상 거칠 과정은 없다.
2. 받히다 : 그는 설움에 받혀 울음을 터뜨렸다.
받치다 : 달려오는 승용차에 받쳐 크게 다쳤다.
3. 맞히다 :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히기가 힘들다.
마치다 : 목이 메어 말을 채 마치지 못했다.
4. 앉히다 : 이사회는 그를 사장으로 앉혔다.
안치다 : 술에 쌀을 안치러 부엌으로 갔다.
5. 젖히다 : 나뭇가지를 잡아 뒤로 젖혔다.
제치다 : 선두를 제치고 맨 앞으로 나섰다.

받치다 :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쓰다 / 배경 음악이 화면을 잘 받쳐 주었다.

받히다 : 머리카락이 뽕 따위로 세차게 부딪히다
부딪히다 / 부딪치다 / 부딪다 용례 구분해 사용할 것.

28. 다음 법조문을 쉽게 풀이한 것 중 잘못된 것은?

-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
- 수탁판사는 피고인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제방을 결계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

1. 장리 - 일을 맡아 처리하며
2. 공표 - 공개 발표된
3. 거소 - 사는 곳을
4. 전촉 - 전달하여 촉구할
5. 결계 - 무너뜨리거나

29.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1. 공장으로 짐을 실러 갔다. (실으러)
2. 철새가 북쪽으로 날라갔다. (날아갔다)
3. 물에 불른 공을 넣어야 합니다. (부른)
4. 컴퓨터도 이번 기회에 바꿀려고 해. (바꾸려고)
4.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 다음 안내문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리는 말씀>
본 아파트 입주주민님 소유 차량 외에는 차량 출입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방문객 이외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OO아파트 관리소장백)

1. 민수 : ‘입주민’은 ‘새로 지은 집 따위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란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님’ 자를 붙인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주민’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2. 상희 : ‘차량 출입을 절대로 금지합니다.’에서 ‘절대로’라는 말은 어색한 표현이에요. ‘차량 출입을 금지합니다.’ 정도로 하면 될 텐데요.
3. 영철 :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앞 문장처럼 ‘금지합니다.’ 로 바뀌어야 해요. ‘금하다’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등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을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4. 창식 : ‘관리소장 백’ 이라고 띄어 써야 할 것 같지만, ‘백(白)’이란 말은 이름, 직책 뒤에 붙어서 ‘-이/가 말씀드린다.’ 의 뜻으로 쓰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이 안내문처럼 붙여 써야 돼요.
5. 우현 : 안내문은 그 뜻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어야 하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눈에 보기 어렵게 만들었네요.

31.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1. 이런 일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상상하기조차)
- 2.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 3.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 4. 자기가 먹을만큼 그릇에 담아 먹었다. (먹을 만큼)
- 5. 나누어 먹기는 커녕 자기도 안 먹었다. (먹기는커녕)

32. 다음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젓가락은 ‘ㅅ’ 받침인데 왜 숟가락은 ‘ㄷ’ 받침이야?

해설 - 젓가락의 ‘ㅅ’은 사이시옷이고, 숟가락의 ‘ㄷ’은 원래 ‘술’의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거야

34. 밑줄 친 말의 표기를 잘못 고친 것은?

- 1. 오늘 선수들 상태가 아주 좋으네요 - 좋네요
- 2. 우리 직원들은 아주 친절한 거 같애 - 같아
- 3. 절망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에요 - 거에요
- 4. 삶이 잠시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 힘들다고
- 5. 얼마나 웃었던지 배꼽이 빠질 지경이었답니다 - 웃었던지

35. 지명표기가 잘못된 것은?

- 1. 브라디보스톡 2. 베네수엘라 3. 라스베이거스 4. 로스앤젤레스 5. 벤쿠버

36.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은?

- 1. 앙케이트 2. 스노타이어 3. 유모어 4. 년센스 5. 페스티발

37.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은?

- 1. 땅끝마을(TTangKKeutmaeul)
- 2. 경희궁(Gyeonghigung)
- 3. 영동(Youngdong)
- 4. 내설악(Naeseolak)
- 5. 합천(Hapcheon)

경희궁(Gyeongheigung) 영동(Yeongdong) 내설악(Naeseorak) 합천(Hapcheon)

38. 다음 보기와 같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은?

<보기> 더불어 함께 하는 기쁨

- 1. 더러운 오명을 벗도록 하여라.
- 2. 농번기철에는 쉴 틈이 전혀 없다.
- 3. 대략 절반쯤은 다시 복습해야 한다.
- 4. 그 사건은 고의적인 방화에 의한 것이다.
- 5. 계속되는 동족 간의 전쟁은 피해야만 한다.

- 1. 더러운-오명(중복) 2. 농번기-철(중복) 3. 대략-절반쯤(중복) 4. 고의적인-방화(중복)

39. 밑줄 친 번역투의 표현을 잘못 고친 것은?

- 1. 나의 경우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 나에게 있어서
- 2. 지난 주 금요일에 입사 동기 모임을 가졌다. - 모임이 있었다.
- 3. 이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필요로 한다. - 수리해야 한다.
- 4. 이 사건은 외신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 외신 보도로

5. 먼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생각합니다.

40. 문장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합의가 처음 도출된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였다. 2. 그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이 있어왔지만, 리우 회의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들이 환경을 문제삼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관철되었다. 3. 그래서 회의는 선진국에 한해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라는 의무가 부과됐다. 4. 그리고 1997년 교토회의는 2010년까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줄이자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됐다. 5. 그런데 교토의정서 체결에 동참했던 미국에서 결정을 번복해 국제 협력의 틀이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 1. 합의가 처음 도출된 - 합의를 처음 도출한
- 3. '회의는'에 호응하는 술어가 없음.
- 4. '교토회의'에 호응하는 술어가 없음.
- 5. '국제 협력의 틀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처럼 써야 자연스럽다.

<제 4회 KBS한국어능력시험 정답>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4	1	2	5	2	4	1	3	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	1	3	3	4	2	2	4	5	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	4	3	5	1	2	1	5	1	2

제5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 표준발음

표기상으로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지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시) 문고리, 산새, 손재주, 길가, 물동이, 발바닥, 굴속, 술잔, 그믐달, 아침밥, 잠자리, 강가, 초승달, 등뿔, 창살, 강줄기

- ① 바람결[바람꺄]
- ② 인기척[인끼척]
- ③ 눈동자[눈똥자]
- ④ 신바람[신빠람]
- ⑤ 불장난[불장난] : [불짱난] 아님 (관형격 사이시옷 안 들어감)

12. 발음의 장단음

장음	단음
한눈 : 마땅히 볼 데를 보지 않고 딴 데를 보는 눈	한눈: 한 번봄, 잠깐 봄
돌: 돌맹이의 돌	돌: 어린아이가 태어 날부터 한해 되는 날
상(上) : 물체의 위쪽	
부정(否定) :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부정(不正) : 옳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무력(武力) : 군사상의 힘	무력(無力)

13.

- * 아까 빵이라도 ㉠먹을걸.
 - ㉠‘먹을걸’은 문장에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며, ‘~을걸’은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의 뜻을 나타낸다.
- * 나는 ㉡먹을걸 구경하지 못했어.
 - ㉡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 ‘구경하다’의 보어 역할
 - 먹 +을(관형형 어미) + 거(의존명사)+르(조사)
 - ‘먹을 걸’ 이라고 띄어쓰기

14. 적절한 단어 채우기

()을/를 간질이는 정선 아리랑의 애절한 가락을 들은 일이 있는가?

“귀청” “귓가” 모두 가능함. => 문제가 “귀청”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

15.

- * 낮이 넓다 : 아는 사람이 많다.
- * 낮이 두껍다 : 뻘뻘하다.
- * 귀가 질기다 :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말을 싹싹하게 잘 듣지 않고 끈덕지다.
- * 눈이 가매지도록 : 몹시 기다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 * 손을 맺다 : 할 일이 있는데 아무도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다.
- * 귀(가) 여러다 :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다.
- * 귀가 절벽이다 : ㉢세상 소식에 어둡다, ㉣귀가 아주 들리지 아니하다
- * 눈에 거칠다 : 보기가 싫어 눈에 들지 아니하다
- * 눈이 무디다 : 사물을 보고 깨닫는 힘이 약하다
- * 발을 달다 : 끝난 말이나 이미 있는 말에 말을 덧붙이다.
- * 발(이) 길다 : 음식이 먹는 자리에 우연히 가게 되어 먹을 복이 있다.
- * 손이 걸다 : ㉤ 이 일 저일 두루 일삼씨가 날쌔거나 좋다. ㉥쌈씨가 후하다

16. ‘꽤다’의 의미

- ① 곡식의 이삭 따위가 나오다.
- ② 사내아이의 목소리가 변성기를 지나 깊고 굵게 되다.
- ③ 머리 따위가 몹시 아프고 쑤시다.

④ 사정없이 마구 때리다.

⑤ 도끼를 장작 따위로 쪼개다.

⑥ ‘파이다’의 준말 ex) 목이 둥글게 팬 옷.

** 그는 호적을 () 가지고 나가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오답으로 ()아 에는 ‘파다’가 들어간다. ‘패다’는 동사 ‘파다’의 피동사인 ‘파이다’의 준말이기도 하지만(예시-땅이 파이다, 땅이 패다), 주어진 문장은 능동 문장이므로 ‘패다’가 들어 갈 수 없다.

17.

① 곰비임비 : 물건이 거둠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 = 연달아

② 까라지다 : 기운이 빠져 축 늘어지다.

③ 해망쩍다 : 영리하지 못하고 아둔하다. 잇속을 챙길 줄 모른다. / 엉뚱한(오답)

④ 괴괴하다 :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

⑤ 설명하다 : ㉠아랫도리가 가늘고 어울리지 아니하게 길다, ㉡옷이 몸에 맞지 않고 짧다

18.

① 검토 : 제안 = 진단 : 처방 => 문제적 사안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시간적 논리적인 선후관계

② 풍부하다 : 싸다 = 드물다 : 비싸다 =>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관계

③ 밝다 : 광도 = 잦다 : 빈도 => ‘상태 혹은 자질’과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

1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우리말에서는 고유어 한단어가 여러 한자어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착용(着用)하다 :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함

*고치다 : 수리(修理)하다, 치료(治療)하다, 수선(修繕)하다, 수정(修整)하다, 개정(改正)하다, 개혁(改革)하다

*요리(料理)하다 : 고다, 삶다, 데치다. 데치다, 썰다, 볶다, 부치다, 끓이다, 지지다.

20.

*괘념(掛念) :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개념(概念) :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곤욕(困辱) :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곤혹(困惑) :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당황(唐惶/唐慌) :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공상(空想) :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환상(幻想) :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덕분(德分) :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 덕택(德澤)

21. 문맥상 어휘 (정답: 단순-운치-화두-계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22. 한자 병기

상식(常識), 회의(懷疑), 용납(容納), 경계(警戒), 축적(蓄積)

23. 신체와 관련된 표현

*면목(面目)이 없다. : 얼굴, 낯

*골치가 아프다 : 머리, 뇌

*애달픈: 창자나 쓸개의 옛말

*부아가 치밀다: 허파

*염치(廉恥)없다 : 廉(청렴하다), 恥(부끄럽다)는 뜻의 말로 신체와 관련 없음

24. 한자와 우리말의 합성어

우리말 어휘 중에는 고유어로 보이지만 사실을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 인 경우가 많다.

*굳+건(建)하다

*익+숙(熟)하다

*마+땅(當)하다

*튼+실(實)하다

25.

*고유어(固有語) :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외래어(外來語)

*한자어(漢字語)

*합성어(合成語)

*복합어(複合語)

26. 조사

*이/가 : 주어를 만드는 조사,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때 (예시-아프리카에는 추장이 살고 있다.)

*은/는 : 주제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보조사 또는 특수조사,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쓸 때

*(강릉에 대해 말하자면) 강릉이 공기가 맑아서 좋다. =>강릉은 공기가 맑아서 좋다.

27. 조사 “에”

① 구청장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 ‘에’와 ‘에게’는 ‘주다, 보내다, 가다, 묻다’의 동상에 같이 쓰인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는 ‘에게’가 쓰인다.

② 이 차는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 -> 이 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

③ 시상에는 작곡가 정나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 시상은 작곡가 정나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 불필요한 조사 ‘에’ 삭제

④ 이번 휴가는 고향의 부속한 일손을 도웁시다. -> 이번 휴가에는 고향의 부속한 일손을 도웁시다.

⑤ 이곳은 산호로 만든 섬세한 공예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

이곳에서는 산호로 만든 섬세한 공예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28. 법률용어

*수권(授權)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 권한 부여에 흠이 있을 때에는

*보정(補正)을 명하고 : 바로잡도록 명하고

*최고(催告) : 재촉하는 뜻을 알림,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게기(倂記) :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함.

*치욕(恥辱) : 모욕을 당함

*위식(違式) : 일정한 규정이나 관습에서 벗어남.

*준용(準用)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안분(按分) :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추심(推尋)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추인(追認) : 지난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인낙(認諾) : 인정하여 승낙함

*권원(權原) : ‘법’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경락(競落) : ‘법’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29. 바른 표기

* 기다랗다 :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한글 맞춤법 제21항 2의 ‘다만’ 참조)

예시)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쭙하다. 실끔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 시리다 : 찬 것 따위에 닿아 통증을 있다. 시렵다(x), 시러워(x), 시러웠다(x)

* 남세스럽다 :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 ‘남우세스럽다’의 준말.

* 일그러지다 : 물건이나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우글쭈글하여 지다.

* 가파르다 : 산이나 길이 몹시 비탈지다/ 가팔라서(가파르+아서)

30.

① 제 2호 -> 제2호, 제2 호 ('제'와 '2'를 붙여 써야함)

'제-'는 접두사 이므로, 언제나 뒤에 오는 체언에 붙여 쓴다. 한편 '호(號)'는 단위성 의존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수관형사와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수관형사가 숫자일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② '(저는) 바라겠습니다'는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표현임

'-겠'은 미래, 추정,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고, 동사 '바라다'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는 뜻으로 '꼭 참석하여 빛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쓰는 것이 맞다.

③ 한글 맞춤법 제40항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앓고, 앓지, 앓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울림소리(ㄱ, ㄷ, ㅂ)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갑갑하지 않다 -> 갑갑지 않다 -> 갑갑잡다.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잡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넉넉잡다.

답답하지 않다 -> 답답지 않다 -> 답답잡다.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 -> (못잡다)

생각하다 못하여 -> 생각다 못해

④ 일절(一切) (부사) : 아주, 전형,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 쓰는 말.

일체(一切) (명) : 모든 것,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⑤ '행복하십시오' ->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으)십시오'는 합쇼할 자리에 쓰여 명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비록 합쇼체로서 '아주높임'의 화계(話階)이나 기본적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초청장의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형용사 뒤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는 것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31. 띄어쓰기

① 좋고말고

'-고말고'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좋고말고'로 붙여 써야한다.

② 보시다시피

'-다시피'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보시다시피'로 붙여 써야한다.

③ 잘할뿐더러

'-ㄹ뿐더러/을뿐더러'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잘할뿐더러'로 붙여 써야한다.

④ 도착했음 직하다 /도착했음

'직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 형용사인데 주로 '-ㄹ/음 직하다'의 구성으로 쓰인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착했음 직하다'로 띄어 써야한다.

반면 어떻다고 여길만한 속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접미사 '-ㄹ/음직하다'가 있다. '믿음직하다, 큼직하다, 먹음직하다'처럼 쓰이

므로 구별해야 한다.

⑤ 쓰디쓴

형용사 어간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어미 '-디'가 '-디-ㄴ/은'의 구성으로 쓰이는데, 관행적으로 이 구성을 붙여 쓴다.

32.

- ① '아무 상관없다'의 '아무'는 관형사이므로 뒤에 명사가 와야 한다. '아무 상관'으로 묶이므로 띄어쓰기는 '아무 상관 없다'가 된다.
- ② '아버지의 동생' => 작은아버지
주어 '키가'에 호응하는 서술어 '작은'이 필요하므로 '키가 작은 아버지'는 띄어 쓴다.
- ③ '나물이 쓴맛이 난다'와 '첫 패배의 쓴맛'에서 '쓴맛'은 한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④ '한 번'이 횟수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쓰고, '동네 인심이 한번 고약하구나'의 어떤 상태나 상황을 강조하는 뜻을 더하는 말로의 '한번' 붙여 쓴다.
- ⑤ '아이가 우는 소리'는 [아이가 우는]으로 묶이므로 '주어-서술어'의 구조다. 따라서 '아이가 우는 소리로' 띄어 써야한다. 이에 비해 '꼭 우는소리를 하더라'의 '우는소리'는 '엄살을 부리며 곤란한 사정을 늘어놓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붙여 쓴다.

33. 단어 쓰임

① '쌓다'와 '싸다'의 차이

- '쌓다' : '(~에 ~을)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라는 뜻의 동사다. '쌓이다' 피동형이다.
- 싸이다 : '(~을~에), (~을 ~으로)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섞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라는 의미로 '싸다'의 피동사다.

② '낫다', '날다'

- 낫다 : '낫다'는 형용사로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는 뜻이다. '나아', '나으니'로 활용된다.
- 날다 : '아이를 날다',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의 의미.

③ '띄다'와 '띠다'

- 띄다: 눈에 보이다
- 띠다: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와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라는 뜻.

④ '꼽다', '꼇다'

- 꼽다: 수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리다, 골라서 지목하다
- 꼇다: 쓰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ex) 체온계는 꼇다

⑤ 걸잡다, 견잡다

- 걸잡다: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 견잡다: 주로 '없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한방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34.

① 째졌다 / 오답(째졌다x)

제13항한단어 안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꼇꼇하다	꼇꼇하다
쌈쌈	쌈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눔눅하다
뚝뚝뚝뚝	뚝닥뚝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삭씩삭		씩씩하다	씩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쌈쌈하다	쌈삭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쌈쌈하다	쌈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째째하다	째잘하다

② 넓적한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홀지다, 낫두리, 옆댕이, 앞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늑시, 늑정이, 덮개, 뜯게질, 값작값작하다, 값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랄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늑다랄다, 늑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다만 님음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쭙하다, 실끔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③ 푸르러서

제18항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뵙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둥그니, 둥근, 둥굽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2.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가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 :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④ 빼꾸기

제23항 ‘~하다’ 나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갈쭙이, 꿀꿀이, 눈깜짝이, 더떨이, 배불뚝이, 빼죽이, 살살이, 싹싹이, 오뚝이, 코납작이, 푸석이, 흘쭙이

[붙임] ‘~하다’ 나 ‘~거리다’ 붙을 수 없는 어근에는 ‘~이’ 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빼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⑤ 도저히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 나는 것 : 깨끗이, 느긋이, 따뜻이, 반듯이, 의젓이, 가까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툼툼이 등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등

3 ‘이’, ‘히’로 끝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과감히, 꼼꼼히, 열심히, 당당히, 분명히 등

35. 외국의 고유명사

① Caesar : 시저 : 로마명이 아닌 제3국의 발음인 영어 발음 따서 ‘시저’

② 상해(上海) : 상해, 상하이 :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며,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을 이를 허용해, 상해, 상하이 모두 가능하다.

③ Scotland : 스코틀랜드 : 외래어 표기법에는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다르지 않는 비음 [m],[n] 앞에 올 때에는 ‘ㄹ ㄹ’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스코트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다.

④ Pacific Ocean : 태평양 : 고유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에 따른다.

⑤ Mon Blanc : 몽블랑 산 :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와 붙을 때에는 띄어쓴다.

36.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의 예시

오렌지, 토마토, 카메라, 라디오, 마라톤

‘소시지’의 경우 우리 외래어 표기의 경음 지양과 관련 있다.

3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① 사람 이름을 기존 일부 관행과는 반대로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

- ②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 lisan 일산, Sorokdo 소록도
- ③ 국어의 글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ex) Silla 신라
- ④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음절 사이에 붙임표(-)을 쓸 수 있다. ex) Jung-ang
- ⑤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이: Lee, 현대:Hyundai)

38. <보기>의 문장이 지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 고르기.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늘 빵이나 우유를 마셨다.

==> 서술어 '마시다'에 걸리는 두 개의 목적어 중 '빵'이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는다.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점

- ① 응급 센터는 지진 발생 5분만에 해일 경보와 대비를 권고했다.
-> '해일 경보'와 '권고했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 ② 건강관리를 위해 주중에는 수영을 주말에는 관악산을 오른다.
-> '오른다'와 '수영을'이 호응하지 않는다.
- ③ 꾸준히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시청하다'와 '신문'이 호응하지 않는다.
- ④ 여야는 해당 사안은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 '다시'와 '재론'의 의미가 중복된다. 불필요한 중복이다.
- ⑤ 폭식과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해 체중이 8킬로그램이나 늘었다.
-> '폭식'과 '좋아해'가 호응하지 않는다.

39.

- ① 성장기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 아이에게 : 불필요한 '있어서'를 빼야 한다.
- ② 가장 필수적인 것 중 하나는 -> 필수적인 것은 : 영어의 one of the의 용법으로 한국어 적용된 사례
- ③ 부모로부터 느끼는 친밀감이다. -> 부모에게서 : from을 직역한 경우다, 문맥으로 볼 때 이 경우는 '~로부터'보다 '~에게서'가 더 자연스럽다.
- ④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면, ->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오답) : 조사 '와/과' 와 '의'를 함께 붙여 쓰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올바르다.
- ⑤ 아동은 유아기에로 회귀하는 등 -> 유아기로 : 불필요한 '에'를 뺀다.

40. 가장 자연스럽지 않는 문장?

- ⑤ 간장을 직접 담그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오답)

=> 간장을 직접 담그는 데에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간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로 간추릴 수 있다. 이렇게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나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운 표현은 '~하는데 비용이 든다'이다. 다른 문장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쌀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와 '쌀을 사는 데에는 돈이 든다'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문장은 아니다.

제6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

표준발음법 제28항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EX.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쏙] 술-잔[술짚]
-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 등-불[등뽇] 창-살[창쌀] 강-줄기[강짚기]

표준발음법 제30항 :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EX. 냇가[내:까/뉘:까] 셋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똥/뻬래똥]
- 룻등[코똥/콘똥] 깃발[기뻬/긴뻬] 대팻밥[대:뻬뻬/대:뻬뻬]
- 햇살[해쌀/햐쌀] 뱃속[배쏙/뻬쏙] 뱃전[배뻬/뻬뻬] 고갯짓[고개짚/고갯짚]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EX.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랜니→아랜니] 뒷마루[똥:마루→똥:마루]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EX. 베갯잇[베갸넛→베갸넛] 깻잎[깻넛→깻넛] 나뭇잎[나뭇넛→나뭇넛]
도리깻잎[도리깻넛→도리깻넛] 뒗웃[똥:눈→똥:눈]

- 12.
- 한눈 : 「1」 한 번 봄. 또는 잠깐 봄.
EX. 한눈에 반하다/한눈에 사랑에 빠지다
「2」 한꺼번에, 또는 일시에 보는 시야.
EX.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다/이 전광대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 한눈 : 마땅히 볼 데를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보는 눈.
 - 부정 : (不正)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EX. 부정 축재/입시 부정/부정을 방지하다/부정을 저지르다/
 - 부정 : (不定) 일정하지 아니함.
 - 부정 : (不貞)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 흔히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 일을 이른다.
 - 무력 : (武力) 「1」 군사상의 힘. ≒군사무력.
「2」 때리거나 부수는 따위의 육체를 사용한 힘.
 - 무력 : (無力) 힘이 없음.

13.
한글 맞춤법 제 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EX. 아는 **것이** 힘이다. / 나도 할 **수** 있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을걸’ : (어미 ㄹ 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뒤에 붙어)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아니한 DJeJl 일에 대하여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EX.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먹을 걸. /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맡을걸. / 그들이 가까운 데에 살았으면 좀 더 잘해 줬을 걸.

14.
귓가 : 귀의 가장자리.
EX.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다/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귀청 : =고막
EX. 수화기 저쪽에서 쿵쿵한 사내의 목소리가 나의 귀청을 울려왔다

15.
<관용어>
낮이 넓다 : 아는 사람이 많다
귀가 질기다 : 「1」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2」 말을 tLRtR하게 잘 듣지 않고 끈덕지다
눈이 가매지도록 : ‘몹시 기다리는 모양’의 비유적인 표현 ≒ 눈이 빠지도록, 목이 빠지도록
발이 크다 : 동작이 날쌔다
손을 땀다 : 할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다
귀가 여러다 : 속은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다
EX. 그 사람은 귀가 여러서 남이 하는 말을 잘 믿는다.
귀가 절벽이다 : 「1」 귀가 아주 들리지 아니하다.
EX. 할머니는 귀가 절벽이다.
「2」 세상 소식에 어둡다.

눈에 거칠다 : 보기가 싫어 눈에 들지 아니하다

EX. 그는 항상 눈에 거친 일만 한다.

눈이 무디다 : 사물을 보고 깨닫는 힘이 약하다

발을 달다 : 끝난 말이나 이미 있는 말에 말을 덧붙이다

EX. 그는 자세히 부탁의 말을 하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어 다시 발을 달아 신신당부를 하였다.

발이 길다 : 음식 먹는 자리에 우연히 가게 되어 먹을 복이 있다.

손이 걸다 : 「1」 이 일 저 일에 두루 일삼씨가 날쌔거나 좋다.

EX. 이번 일은 손이 건 당신에게 맡길 테니 완벽하게 끝내 주시오

「2」 씹씹이가 후하다.

EX. 그 집 며느리는 워낙 손이 걸어서 음식을 항상 많이 한다.

16.

‘패다’의 다양한 의미.

1. 패다 「1」 곡식의 이삭 따위가 나오다.

EX. 보리가 패다 / 벼는 패기 시작해서 불룩불룩 댐 이삭이 배를 가르고 나온다

「2」 사내아이의 목소리가 변성기를 지나 깊고 굵게 되다.

2. 패다 머리 따위가 몹시 아프고 쑤시다.

EX.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어김없이 머리가 팬다.

3. 패다 사정없이 마구 때리다.

4. 패다 도끼로 장작 따위를 쪼개다.

5. 패다 ‘파이다’의 준말.

17.

곰비임비 : 물건이 거둬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

까라지다 : 기운이 빠져 축 늘어지다

해망쩍다 : 영리하지 못하고 아둔하다

괴괴하다 :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고요하다

설명하다 : 아랫도리가 가늘고 어울리지 아니하게 길다

EX, 설명한 바지를 입고 나타난 그

18. 단어들 간의 유의 관계에 관한 문제

-반의 대립어 : 형용사 ‘밝다’는 정도성 형용사로서, ‘어둡다’와 반의 대립어를 이룬다. 예를 들어 ‘길다/짧다’, ‘쉽다/어렵다’ 등이 반의대립어에 해당한다. 반의대립어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한쪽의 단언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나, 한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단언을 함의하지 않는다.

EX. X는 밝다 → X는 어둡지 않다 (○)

X는 어둡지 않다 → X는 밝다 ?? (X)

2. 대립관계에 있는 두 어휘 항목을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는 양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 X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3. 반의대립어는 정도부사로 수식될 수 있으며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EX. X는 (조금, 매우, 꽤) 밝다/어둡다, X는 Y보다 더 밝다.

4.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이다 즉 ‘X가 밝다’라고 했을 때 X가 성냥불이나 태양이나를 상정해 보면, 결국 이 때의 밝음은 상대적 인 밝음임을 알 수 있다.

19.

우리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반드시 1: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유어대 한자어가 일대 다 대응인 경우가 많다.)

EX1. 한자어 ‘착용하다’에 대응하는 고유어는 ‘(양말을)신다’, ‘(안경을)쓰다’, ‘(장갑을)끼다’ 등등이다.

EX2. 한자어 ‘오리하다’에 대응하는 고유어는 ‘고다’, ‘삶다’, ‘데치다’, ‘쑤다’, ‘볶다’, ‘끓이다’, ‘지지다’ 등등이 있다.

EX3. 고유어 ‘고치다’에 대응 는 한자어는 ‘수선(修繕)하다’, ‘치료(治療)하다’, ‘(矯正)교정하다’, ‘수정(修整)하다’, ‘(改正)개정하

다', '(改革)개혁하다', '(改造)개조하다' 등등이다.

20.

괘념 : (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개념 : (概念) 「1」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2」 『사회』 사회 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곤욕 : (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곤혹 : (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당황하다 :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황당하다 :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공상 : (空想)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또는 그런 생각.

환상 : (幻想)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때문 : 「의존명사」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

덕분 : (德分) 「명사」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21. 문맥에 적합한 어휘 선택하기

22.

상식 : (常識)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보통지식.

회의 : (懷疑) 「1」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2」 『철학』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

「3」 『철학』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이나 전통적인 권위를 긍정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의심하여 보는 일. 이러한 태도는 철학적 정신의 근본이 된다.

(*참고 : 회의(주관자가 기안한 것을 관계자들에게 돌려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함)의 한자어는 回議.)

용납 : (容納) 「1」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2」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임.

경계 : (警戒) 「1」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2」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3」 『군사』 적의 기습이나 간첩 활동 따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지킴.

축적 : (蓄積)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

23. 신체와 관련된 단어

면목 : (面目) 얼굴, 낯

골치 : 머리, 뇌

애 : 창자의 옛말. 창자, 쓸개 (EX.애달픈)

부아 : 허파

24. 한자어 음 달기

25.

고유어 固有語 굳을 고, 있을 유, 말씀 어

한자어 漢字語 한나라 한, 글자 자, 말씀 어
 복합어 複合語 겹칠 복, 합할 합, 말씀 어
 합성어 合成語 합할 합, 이를 성, 말씀 어
 외래어 外來語 바깥 외, 올 래, 말씀 어

26 ‘은/는’과 ‘이/가’ 구별하기

‘이/가’ : 주어를 만드는 조사, 즉 주격 조사

‘은/는’ : 주제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조사, 즉 보조사 또는 특수조사

*주제어 : 해당 문장이 서술하는 중심 어휘

‘은/는’은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제시할 때 tm임.

‘이/가’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때 쓰임.

27.

*조사 ‘에’의 쓰임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옷에 먼지가 묻다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3.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학교에 가다

4. 앞말이原因的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바람에 꽃이 지다

5.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나는 그의 의견에 찬성한다.

6.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7. 앞말이 ARHVV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몸에 좋은 보약

8.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9. 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냈니?

10. 앞말이 기준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11.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그 아버지에 그 아들

12. 앞말이 말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반장에 그가 뽑혔다.

13. 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포유동물에 무엇이 있지?

14.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오

15.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EX. 국에 밥을 말아 먹다

28.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위식 : (違式) 일정한 규정이나 관습에서 벗어남.

준용 : (準用) 「1」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2」 『법률』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안분 : (按分)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추심 : (推尋)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추인 : (追認) 「1」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2」 『법률』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에만 인정한다.

인낙 : (認諾) 「1」 인정하여 승낙함.

「2」 『법률』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또는 그 진술.

권원 : (權原)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경락 : (競落)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경매 차지'로 순화.

29.

기다랗다 :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 (길다랗다X)

시리다 : 「1」 몸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

「2」 찬 것 따위가 달아 통증이 있다.

「3」 ((주로 '눈'과 함께 쓰여))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

(시렵다 X)

남세스럽다 :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

≡ 남세스럽다, 남사스럽다, 남세스럽다, 우세스럽다

일그러지다 : 물건이나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우글쭈글하여지다 (이그러지다X)

30. 표현의 문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한글 맞춤법 제40항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준말)

간편하게→간편케

다정하다→다정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정결하다→정결타

가하다→가타

흔하다→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일절과 일체

일절 : (一切) 부사.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 쓰는 말.

EX. 출입을 일절 금하다/일절 간섭하지 마시오./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일체 : (一切) 「명사」 「1」 모든 것.

「2」 ((‘일체로’ 꼴로 쓰여))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부사」 「1」 모든 것을 다.

「2」 → 일절02(一切).

31. 띄어쓰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쓴다.

-어미는 붙여쓴다.

‘직하다’ : 앞말이 뜻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 형용사.

주로 ‘-ㄴ/음 직하다’로 쓰임.

‘-고말고’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인다 EX. 좋고말고

‘-다시피’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인다 EX. 보시다시피

‘-르뿐더러/을뿐더러’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인다. EX. 잘할뿐더러

‘-디-ㄴ’은 종종 형용사 어간의 의미를 강조할 때 어미 ‘-디’가 바뀐 형태로 쓰이는데 붙인다. EX. 쓰디쓴

33.

*‘쌓다’와 ‘싸다’

쌓다 :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피동형은 ‘쌓이다’ EX. 책상에 먼지가 쌓이다, 옷이 한 무더기 쌓여 있다.

싸다 :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

피동형은 ‘싸이다’ EX. 바다로 싸인, 화염에 싸이고

*‘нат다’와 ‘날다’

нат다 : 「1」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2」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날다 : 「1」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2」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3」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

*‘뜨이다’와 ‘띠다’

뜨이다 : 눈에 보이다.

띠다 : 「1」 물건을 몸에 지니다.

「2」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

「3」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

「4」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5」 어떤 성질을 가지다.

*‘벌리다’와 ‘벌이다’

벌리다 : 「1」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2」 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3」 우므러진 것을 퍼지거나 열리게 하다

벌이다 : 「1」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2」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가계를 차리다,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비치다’와 ‘비추다’

비치다 : 「1」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2」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3」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4」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5」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6」 사람 몸속의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다.
비추다 : 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34.

한글 맞춤법 제13항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취한것 ← 버린것)

딱딱←딱닥
꼳꼳하다←꼳꼳하다
쌉쌉←쌉쌉
놀놀하다←놀롤하다
씩씩←씩씩
눅눅하다←눔눅하다
똑똑똑딱←똑닥똑닥
밋밋하다←민밋하다
씩씩씩씩←씩씩씩씩
씩씩하다←씩씩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연련불망
쌉쌉하다←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유류상종
쌉쌉하다←쌉슬하다
누누이(屢屢-)←누루이
짹짹하다←짹짹하다

35.

<외래어표기법> 제 1장 표기의 원칙

제 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 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 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37.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사람 이름을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 ex. 홍범도는 Hong Beomdo이지 Beomdo Hong 이라고 적지 않는다. 이유는 ,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 사람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사실을 아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39. 번역투 표현

‘있어서’ : ex. ‘아이에게 있어서’에서 ‘있어서’는 불필요한 표현

‘~것 중의 하나는’ : 영어의 ‘one of the~’가 적용된 사례.

‘~로부터’ : (문맥에 따라) from (‘~로부터’)가 적용된 사례.

‘~할 필요가 있다’

제7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번

* 본데없이 자란 놈 같으니라고

→ ‘본데없다’는 ‘보고 배운 것이 없다’, 또는 ‘행동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

* 나도 모르게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 ‘볼메다’는 말소리나 표정에 성난 기색이 있다’는 의미의 형용사.

* 그 얼마나 볼썽사나운 물골이던가

→ ‘볼썽사납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는 의미의 형용사.

* 보암보암으로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암보암’은 주로 ‘보암보암에’ ‘보암보암으로’의 꼴로 쓰여 ‘이모저모 살펴보고 짐작할 수 있는 걸모양’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 그는 성공하여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 ‘보란 듯이’는 ‘남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자랑스럽거나 멋있게’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12번

* ‘3’에 대한 고유어 수 관형사

‘~돈, ~말, ~밭, ~푼’일 때는 ‘세/석’을 버리고 ‘서’를 취한다.

‘~냥, ~되, ~섬, ~자’일 때는 ‘세’를 버리고 ‘석’을 취한다.

* ‘4’에 대한 고유어 수 관형사

‘~돈, ~말, ~밭, ~푼’의 경우에는 ‘너’로

‘~냥, ~되, ~섬, ~자’의 경우에는 ‘넉’으로 표현한다.

13번

* 푸지다 : 매우 많아서 넉넉하다.

* 폭하다 : 겨울 날씨가 퍽 따듯하다.

* 이올다 : 꽃이나 잎이 시들다./ 점점 쇠약해지다./ 해나 달의 빛이 약해지거나 스러지다.

* 늦되다 :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제철보다 늦게 익다./ 나이보다 늦게 철이 들다.

* 사위다 :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다.

14번

* 토렴하다 : 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여 덥게 함.

15번

* 가누다 : ①기운이나 정신, 숨결 따위를 가다듬어 차리다

②일을 돌보다 잘 처리하다

③말이나 행동 따위를 가다듬어 바로잡다

16번

* 계제(計除) : 셈을 따져서 제할 것을 제함

* 게재(掲載)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개재(介在) :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17번

* 여우비 :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우리말)

* 굶다 : 비가 잠시 그치다 또는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다.

* 비설거리 : 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에 맞으면 안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

* 빗밀 : 비가 그치어 날이 개는 속도

- 오던 비가 그치고 날이 개는 속도가 빠를 때는 ‘빗밀이 가볍다’.

- 오던 비가 그치고 날이 개는 속도가 느릴 때는 ‘빗밀이 무겁다’

* 비거스름이 : 비가 갠 뒤에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

18번

- * 숙환(宿患) : 오래 묵은 병 또는 오래된 걱정거리
- * 향년(享年)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즉 죽을 때의 나이
- * 조문(弔問) : 남의 죽음에 슬퍼하는 뜻으로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하는 것
- * 발인(發柩) :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해 상여 따위가 떠나는 것 혹은 그 절차
- * 장지(葬地) :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

19번

- * 오지랖이 넓다 :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 또는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 (= 치마 폭이 넓다, 치마폭이 스물네 폭이다.)
- 오지랖 : 옷웃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옷자락
- *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는 근심이 끊일 날이 없다.
-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하다 : 여러 곳에 빚을 많이 걸머졌음
- * 상투를 틀다 : 총각이 장가를 가서 어른이 되다 (= 국수 먹다)
- * 떼어 놓은 당상 : '당상관 벼슬을 떼어서 따로 놓았다'에서 유래한 말로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음. (= 받아 놓은 밥상)
- 당상(堂上) : 조선시대에 두었던 정3품 상(上)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쉽게 말해 고위 관직을 말한다.
- * 파김치가 되다 : 기운이 몹시 지쳐서 매우 노작지근하게 된 상태 (= 녹초가 되다)

20번

- * 비극(悲劇) :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궤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의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제부분에 따로따로 삽입된다.
- * 형식(形式) : 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 일을 할 때의 일정한 절차나 양식 또는 한 무리의 사물을 특징짓는 데에 공통적으로 갖춘 모양/ 다양한 요소를 총괄하는 통일 원리,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
- * 형식(型式) : 자동차, 기구 따위의 구조나 외형의 특징을 이루는 형태

21번

- * 사기(四氣) :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 * 사기(些技) : 변변치 못한 기예, 또는 사소한 기능
- * 사기(砂器/沙器) : =사기그릇
- * 사기(邪氣) :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
- * 사기(詐欺) : 나쁜 꾀로 남을 속임

22번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없는 한자가 많아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23번

- * 세모(歲暮) : 한 해가 끝날 무렵, 설을 앞둔 선달그믐께
- * 애당초 : 일의 맨 처음
- * 수모 : 모욕을 받음. ('창피당함'으로 순화)

24번

- * 눈을 돌리다 : 관심을 다른 곳으로 두다
- * 눈이 무섭다 :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다
- * 눈을 감다 : 못 본 체하다
- * 눈을 붙이다 : (잠깐 동안) 잠을 자다
- * 눈을 뜨다 : 정신을 집중하다, 신경을 긴장시키다

25번

- * 학부형(學父兄) : 학생의 보호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학생의 아버지나 형을 뜻하는 남성 중심의 표현. ('**학부모**'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미숙아 :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을 모자라다고 여기는 표현 ('이른둥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연주황색 :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살색'을 바꾸어 표현했던 말이다. 그런데 연주황색이라는 용어가 크레파스와 물감을 자주 쓰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이라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다시 '살구색'으로 바뀌었다.
- * 처녀 출전 : 여성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말이라서 '첫출전'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신용불량자 : 비객관적, 인권침해적인 표현이므로 '금융채무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

26번

<표준발음법 문제>

제 7장 음의 첨가 중에서 제 29항 'ㄴ'음 첨가에 관한 내용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 규정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① 합성어 및 파생어일 것 ② 앞 단어는 받침을 가질 것 ③ 뒤 단어는 [i]나 [j]를 가질 것. 예) (합성어) 꽃잎[꼴닙]. 색연필[생년필] (파생어) 영업용[영업농], 신여성[신녀성]

27번

<소리의 길이>

- * 성(姓) : 성씨. (장음)
- * 성품(性品) :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장음)
- * 성황(盛況) : 모임 따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 활기에 찬 분위기 (장음)
- * 성(聖)스럽다 :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다 (장음)
- * 성인(成人) :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보통 만 20세 이상의 남녀

28번 <외래어 표기>

- * fantasy : 판타지
- * royalty : 로열티
- * aluminium : 알루미늄
- * business : 비즈니스 (이 말은 '사업'으로 순화하였으므로 가급적 순화한 말을 쓰도록 해야겠다)
- * placard : 플래카드 ('현수막'으로 순화되었다)

29번 <외래어 표기>

- * Mozart : 모차르트
- * Bach : 바흐
- '뉴턴, 루소,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 칭기즈칸'도 유의해야 할 외래어
- caesar : 시저 (영어 발음의 관습을 따랐다)

30번

- * 청와대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Cheongwadae

31번

- * '(이)나마' : 만족할 만한 조건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
- 돈푼이나마 있다고 거만하다 (X) 돈푼{이나/깨나} 있다고 거만하다 (O)

32번

- * 갖다 : 본말은 '가지다'. 준말의 어간 '갖-'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갖은'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가진'으로 활용해야 한다.
- * 머물다 : 본말은 '머무르다'. 준말의 어간 '머물-'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머물으렵'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머물렴'이나 '머무르렴'으로 활용해야 한다.
- * 서둘다 : 본말은 '서두르다'. '서둘르-다간'에서 어간으로 분석되는 '서둘르-'는 본말과 준말이 혼용된 오용형이다. '-다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므로 이때는 본말과 준말의 어간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서두르다간' 또는 '서둘다간'이 모두 가능하다.
- * 발딘다 : 본말은 '발디디다'이다. 준말의 어간 '발딘-'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발딘을'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발디딜'로 활용해야 한다.

* 서툴다 : 본말은 '서투르다'이다. 준말의 어간 '서툴-'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가 붙으면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서툴
-+-니→서투니.

33번 <수화의 구성원리에 관한 문제라 생략합니다>

34번

- * 내(1) : '나'가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 앞에 쓰일 때의 형태 예) 내가 살던 집
- * 내(2) :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줄어든 말 예) 내 생각/이리 와서 내 가까이 서 있어라.

보기

내 스스로 나의재주가족히백만냥을모을수있다고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그것을어찌알겠소?

- * '내'는 '나의'라는 뜻이다 : '내 스스로'에서 '내'가 '나의'가 줄어든 관형어라면 뒤따르는 '스스로'는 명사라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부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으므로, '내 스스로'가 '관형어+부사'의 구성으로 해석될 수 없다.
- * '내'는 '나'로 바꿀 수 있다 : '스스로'가 부사로 쓰일 때는 '명사+부사'의 구성이 자연스럽다. '나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또는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와 같이 쓴다.
- * '나의'는 '내(1)'로 바꿀 수 있다 : '나의'가 줄어든 말은 '내(2)'이다. '내(1)'은 대명사 '나'의 이형태로서 '내가'로 쓰인다.
- * '낸들'의 '내'는 '내(2)'이다. : '낸들'에서 '내'는 '내(2)'일 수 없다. '내(2)' 뒤에는 어떤 조사도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명사+보조사'의 구성이므로 '나+ㄴ들→난들'이 되어야 한다.
- * '나인들'이 줄어든다면 '낸들'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이 성립하려면 '나(대명사)+이(서술격 조사)+-ㄴ들(어미)'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보기의 문맥에서 'ㄴ들'은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의 용법으로 보이므로 '난들'이 되어야 옳다.

35번

- * 넓이 :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의 크기. '원의 넓이를 구하다'로 쓴다.
- * 너비 : 넓은 물체를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 * 넘다 : 일정한 수치보다 많아지다.
- * 넘치다 :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다.
- * 엮어지다 : 서 있는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다. '땅바닥에 엮어지다'로 쓴다.
- * 넘어지다 : 한 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 '얼음판에서 넘어지다'로 쓴다.
- {엮어지면/넘어지면} 코 달을 데 :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더 적절한 것은 '엮어지다'.
- * 보내다 :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
- * 넘기다 : 일정한 수치보다 많아지게 하다.
- * 넓다 : 면적이 크다.
- * 넓적하다 :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 '떡을 넓적하게 썰다'로 써야한다.

36번

- * 하계체는 화자보다는 신분이 낮으나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 * 간접 존대 :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딸린 것 곧 가족, 신체 일부, 소장품, 생각 따위를 높이는 것.
예) 할머니, 손자가 참 귀여우시네요
- * 과잉 공대 :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말에 '-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화자가 청자를 특별히 대접하려는 뜻에서 '-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한복은 한복이신데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37번

- * 두런두런 :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
- * 조잘조잘 : 조금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을 계속하는 모양
- * 소곤소곤 :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
- * 술렁술렁 : 자꾸 어수선하게 소란이 이는 모양
- * 중얼중얼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 하는 소리나 모양

38번 <종결어미>

- * -지 : 원래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내용을 말할 때 '-지'를 쓴다.
- * -구나 :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표현할 때 쓴다. 가벼운 감탄이나 놀라움의 뜻이 담겨 있다.
- * -데 :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쓴다.
- * -더라 :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때 쓴다. '-데'와 비슷하지만 '-데'에서 느껴지는 감탄이나 자랑의 뜻은 발견되지 않는다. 평범하게 과거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다.
- * -겠어 : 추측의 뜻을 가진 '-겠-'과 반말체 종결어미 '-어'가 결합한 말이다.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몇 가지 근거로 미루어볼 때 그럴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39번<사이시옷 적용원리>

'하룻동안'의 표기를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 만약 '하룻동안'이 올바른 표기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합성어이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고, 두 단어가 모두 고유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이시옷 적용 원리에서 한 단어가 아닐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하룻동안'은 잘못된 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40번

김치찌개는 매콤하고 시원한 맛과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나무랄 곳 없는 음식이다.

이 문장은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전체 문장 구조는 잘 짜여있지만 문장의 가운데 관형사절을 안고 있는데, '매콤하고 시원한 맛과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이 바로 그것이다. 이 관형사절 속에서는 하나의 서술어 '보충할 수 있는'이 두 개의 목적어 '매콤하고 시원한 맛'과 '부족한 영양분'을 공유하고 있다.

문장 성분의 공유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적절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ㄱ) 매콤하고 시원한 맛과 (ㄴ)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수있는 (목적어 공유)

→ 매콤하고 시원한 맛을 보충할 수 있는(X)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O)

제8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번.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땃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 ② 그는 늘 숨김없이 흰소리를 하는 소탈한 사람이다.
- ③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해 아내에게 지청구를 들었다.
- ④ 이번에 잡도리를 못하면 더 버릇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 ⑤ 그냥 국으로 있었으면 오늘날 저 지경은 안 됐을 것이다.

*해설

- 땃바람 : 당장, 단 한번에
-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 지청구 : 꾸지람,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 잡도리 :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일 /대책
- 국으로 : 제 생긴 그대로, 또는 자기 주제에 맞게

*추가해설

- 1)잡도리를 차리다
:아주 엄하게 다루려고 준비를 하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다
- 2)잡도리 -하다 (사용의 예)
: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하였다.
: 자식을 엄하게 잡도리 하였다
: 경찰은 범인을 철저히 심문하며 잡도리하였다.

12번

*이지러지다 : 달 뜨위가 한쪽이 차지 않다/ 한쪽 귀통이가 떨어져 없다/ 얼굴이 일그러지다(불쾌)/성격, 생각, 행동 따위가 빼뺀다.

예)달은 좀 이지러졌으나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

*스러지다 :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예)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스러지는 것과 같다

*호젓하다 :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다/ 매우 흥분하여 쓸쓸하고 외롭다

예)모두들 가 버린 호젓한 개펄에 순이 혼자만 남았다.

*어리다 : 빛, 그림자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다/ 눈물이 조금 괴다/ 연기,안개,구름 따위가 모이다

예)아지랑이가 어리기 시작한다

*아리다 : 혀끝을 찌를 듯이 알알한 느낌/ 지르는 듯 아프다/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

13번. 밑줄 친 부분의 소리의 길이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 ① 전화를 잘 받는 것도 인격이다. ② 전반기 판매 실적은 대체로 좋았다.
- ③ 책임은 전적으로 폐수 방출 업체에 있다. ④ 정밀 공학 분야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 ⑤ 문서가 전달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해설
전 電 : 길게 예) 전화
전 前, 全, 傳 : 짧게 예) 전반기, 전적으로, 전달

14번, 발음
1) 'ㄴ'으로 끝나는 2음절 한자 뒤에 'ㄹ'이 오면 'ㄴ'으로 발음한다

- *공권력[공권력]
- 의견난[의:견난]
- 인진란[인:진란]
- 생산량[생:산량]
- 횡단로[횡:단로]
- 결단력[결:단력]
- 동원령[동:원령]
- 상견례[상:견례]
- 이원론[이:원론]
- 입원료[이:원료]

2)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야,여,요,유'가 오면 'ㄴ'이 첨가된다
*구속영장[구송녕장], 솜이불[솜니불], 막일[막닐], 녹막염[능망념], 영업용[영업농]

3) 안올림소리(ㄱ, ㄷ, ㅂ, ㅅ) + 안올림소리(ㄱ, ㄷ, ㅂ, ㅅ, ㅈ)가 만나면 '된소리'가 된다
*폭발음[폭빠름], 꽃고 -> 꼰고 -> [꼰꼬], 옆집 -> 엽집 -> [엽짹]

4) 울림소리(모음 또는 ㄴ, ㄹ, ㅁ, ㅇ) 뒤에 안올림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오면 된소리가 된다.
*산길[산깁]

15번. 어휘
정답 : 속

우현: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왜 그렇게 새침하게 굴어서 그 사람 (㉠)을(를) 태우니?
정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알뜰하고 비겁한데. 어제도 내가 얼마나 (㉡)
(이)가 치밀던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분해 죽겠다고.
우현: 뭐야, 그 정도야? 난 몰랐어. 그 사람, 내가 본때를 좀 보여 줄까?
정애: 아서라. 그런다 한들, (㉢)이(가) 풀릴 것 같지도 않다.
우현: 야, 내가 진짜 (㉣)이(가) 트인 남자 하나 소개해 줄게. 깨끗이 잊어버려.
정애: 난 대체 매번 왜 이러냐. 어쨌든 하나 있는 친구라는 게, 만날 (㉤)만 쓰게 만들고, 미안해.

- [관용구] 속을 쓰다
1. 걱정하거나 염려하다. 2. 남을 돌보거나 좋은 마음을 베풀다.
- [관용구] 속이 치밀다
기분이 언짢아 분한 마음이 복받쳐 오르다.
- [관용구] 속(이) 트이다
마음이 넓고 언행이 대범하다.
- [관용구] 속(을) 굽다
남의 속이 뒤집히게 비위를 살살 건드리다.
- [관용구] 속(을) 꿩이다
마음을 태우다.
- [관용구] 속(을) 뜨다[떠보다]
남의 마음을 알려고 넘겨짚다.
- [관용구] 속(을) 빼놓다
쫓대나 감정을 억제하다.
- [관용구] 속(을) 상우다
마음에 쓰라린 일이 있어 정신에 고통을 주다.
- [관용구] 속(을) 썩이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좋지 못한 일로 몹시 괴로워하다.
- [관용구] 속(을) 주다[터놓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다.

- 16번.
- 거리02 「명」 「의」 「1」 (명사 뒤나 어미 '-을' 뒤에 쓰여) 내용이 될 만한 재료.(㉠)
「2」 (주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
「3」 (주로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제시한 수가 처리할 만한 것.(㉡)
- 거리08 「명」 「1」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따위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
「2」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할 만한 공간적 간격.
「3」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간격.
「4」 비교하는 두 대상 사이의 차이.(㉣)
- 거리09 「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 :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거리가 못 된다.
- ② ㉡ : 그 일은 한 사람 거리의 일이다.
- ③ ㉢ :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50미터이다.
- ⑤ ㉤ : 그는 젊은 패거리들 속에서 떨어져 나왔다.

17번.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 : 땡땡이, 노가다, 와사비, 단도리
*고유어 : 우수리 (1.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2.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

19번. 접두사의 한자

* 생(生)고기 / 양(洋)배추 / 시(媿)부모 / 외(外)삼촌 / 친(親)손자

20. 어휘

- *건들바람 :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 초속 5.5~7.9 (풍력계 4)
- *남실바람 : 경풍. 초속 1.6~3.3미터로 부는 바람이다. (풍력계 2)
- *산들바람 : 깃발이 가볍게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 (풍력계 3)
- *씩씩바람 :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풍력계 12)
- *흔들바람 : 맹풍.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바다 작은 물결이 이는 바람. 초속 8.0~10.7미터

20. <보기>를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배열한 것은?

① 남실바람 < 산들바람 < 건들바람 < 흔들바람 < 싹쓸바람

*바람의 방향에 대한 우리말 표현

- *동풍 : 섯바람
- *서풍 : 갈바람/하늬바람
- *남풍 : 마파람
- *북풍 : 뒬바람/ 댕바람
- *남서풍 : 늦하늬바람
- *북서풍 : 높하늬바람
- *북동풍 : 높새바람
- *동남풍 : 뒬마파람

21. 어휘

- *고다 : 오랫동안 푹 끓여서 우려내다
- *대치다 :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건져내어 무치다
- *뒹다 : 물을 넣지 않고 볶아서 익히다

22. 어휘

- *혼동(混同)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하는 것
예)잠이 덜 깬지 그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을 일으켰다.
- *혼돈(混沌) :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
예)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은 가치관의 (㉡)을 초래하였다.
- *혼선(混線) : 다르게 파악하여 혼란이 생기는 것
예)목적자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는 까닭에 수사는 (㉢)을 빚고 있었다.

23번. 한자

- *불행(不幸)
- *신념(信念)
- *종교(宗教)
- *정열(情熱)
- *학문(學問)

24번. 유사한 의미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 얹친 데 덮친 격이다.
- ② 청출어람(靑出於藍) : 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
- ④ 유유상종(類類相從) :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 ⑤ 임시변통(臨時變通)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다.
- *낭중지추 : 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삶은 숨어있어도 저저로 사람에게 알려진다.

25번.

- *다반사 : (茶飯事)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 ‘예삿일’, ‘흔한 일’로 순화.
- *낭패 :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 *부득이하게 :마지못하여 할 수 없다.

<보기>

- 그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로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다.
- 우리는 기대했던 일이 잘못되어 딱하게 된 경우를 흔히 (㉡)(이)라고 한다.
- 나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27번.문장부호 규정

- ①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반점을 쓴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②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를 쓴다.
예)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③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대괄호를 쓴다.
예)나이[年歲], 낱말[單語]
- ④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물결표를 쓴다.
예) 새마을 : ~운동, ~노래
- ⑤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는 빗금을 쓴다.
예)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28번.어법

<보기>

국어에는 ‘딸랑딸랑 : 뿔렁뿔렁’처럼 모음의 차이만으로 어감이 달라지는 단어쌍이 있다. 이 단어쌍들은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어감의 차이가 있어 작은 것과 큰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등으로 대립된다.

- 비슷한예 들 ① 졸졸 : 줄줄 ③ 파랗다 : 퍼렇다
- ④ 요모조모 : 이모저모 ⑤ 보드랍다 : 부드럽다

29번.어법

<보기>의 예와 같은 유형이 아닌 것은 (4)

국어의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와 그렇지 않은 자동사로 나눌 수 있다.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와 달리 국어는 하나의 형태가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쓰이는 예이다.

예) 철수는 선반 위로 손을 뻗었다.(타동사) / 이 나뭇가지는 남쪽으로 잘 뻗었다.(자동사)
① 그치다 ② 다치다 ③ 멈추다 ④ 비추다 ⑤ 움직이다

*해설
비추다(타동사) : 어둠 속으로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목적어 있음)
비치다(자동사) :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목적어 없음)

30번.어법

*헤어지다/ 헤지다
: 사람들이 헤어지다
: 물체가 헤어지다
: 살갓이 터져 갈라지다

*해어지다/해지다
:달아서 떨어지다

예)
① 입안이 다 헤져 밥을 못 먹겠다. ② 양말이 다 헤져 기워 신어야겠다.
③ 결혼을 앞두고 남녀는 결국 헤어졌다. ④ 구슬들이 바닥에 굴러 짝 헤져 버렸다.
⑤ 찢어지고 헤진 손가락마다 피가 보였다.

31번.외래어표기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타이베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니카라과, 스코틀랜드, 비틀스, 뉴욕타임스, 웨일스

32번. 외래어 표기

스로인(throw in), 오프사이드 (off side)
프리킥 (free kick) , 패밀리(family), 파일(파일)

33번. 로마자 표기법
여의도 : Yeouido

35번. 맞춤법
<보기>와 동일한 원리
보기 : '머칠'은 '몇'에 '일'이 결합한 말이지만 '몇일'로 적을 경우 소리가 [머딜]이 되므로 소리 나는 대로 '머칠'로 적는다.
답 : 아름다워

36번. 맞춤법 제 34항

보기>모음 '해, 개'로 끝난 어간에 '-어, -었 -'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개어 개
베었다 뻘다

예)선물을 꺼내 보렴.
돈이 맞는지 세 봐라.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온다.
길을 잃고 두 시간이나 헤맸다.

37번.

37. <보기>는 국어의 문형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4)

<보기>
무엇이 어찌한다. - 철수가 달린다.
· 무엇이 어떠하다. - 꽃이 예쁘다.
· 무엇이 무엇이이다. - 이것이 연필이다.

- ① '어찌한다'는 '어찌하자'가 가능하다.
- ② '어떠하다'는 '어떠한'으로 쓰일 수 있다.
- ③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문형도 가능하다.
- ④ '어떠하다'는 의문형일 때 '어떠하느냐'가 된다.
- ⑤ '무엇이다'는 '어찌한다'보다 '어떠하다'에 가깝게 활용한다.

38번.

<보기>와 높임법의 등급이 같은 것은?(4)

< 보 기 >
머칠 편히 쉬다 가려무나.

- ① 어서들 오게. ② 옷이 참 곱구려. ③ 얼른 다녀오리다.
- ④ 여비는 내가 보태 주마. ⑤ 오랜만에 만나 참 반가우이.

39번. <대화>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3)

< 보 기 >
구 어에는 말을 이끌어 내는 부가적인 표현들이 나타난다. 또한 구어는 실시간적으로 실현되므로 말실수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말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표현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

리고 상황을 이해해야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은 편이다. 줄임말도 자주 나타난다.

< 대 화 >

이 과장 : ① 어, 김 과장 여긴 웬일이야?

김 과장 : ② 아니, 거래처에서 보자 그래서 왔는데 와 보니까 담당자가 없잖아. 여기서 만났으니 점심 같이 먹지 뭐. 이 과장은 뭐 먹을 거야? 설렁탕? 삼계탕?

이 과장 : ③ 응, 나는 닭.

김 과장 : ④ 나도 삼계탕이니까 삼계탕을 셋 시키면 되겠군. ⑤ 아니다. 돌이지. 두 명이니까.

40번. 자연스러운 문장표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에서는 그 해결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 보호 단체에서는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시장의 논리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다.

-시민 단체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집값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9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1번

‘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단내 : 높은 열에 눈거나 달아서 나는 냄새를 의미하므로 ‘뜨겁다[熱]’가 적절하다.

* 단김 : 달아올라 뜨거운 김을 의미하므로 ‘뜨겁다[熱]’가 적절하다.

* 단숨 : 조사가 결합된 형태인 ‘단숨에’가 ‘쉬거나 그치지 아니하고 곧장’의 의미로 쓰이므로

로 ‘하나[單]’가 적절하다.

* 단결 : 열기가 식지 아니하였을 적을 의미하므로 ‘뜨겁다[熱]’가 적절하다.

* 단물 : 알짜나 실속이 있는 부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달다[甘]’가 적절하다.

12번

한자 접미사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①은 ‘인간성(性)’, ②는 ‘소방수(手)’, ③은 ‘과학화(化)’, ④는 ‘음악가(家)’로 표기해야 맞다.

⑤의 ‘사진사(師)’는 맞게 표기되었다.

* 성(性)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순수성/신속성/양면성

* 수(手) :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소방수/타자수/교환수/무용수

2. ‘선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공격수/수비수/내야수/외야수

* 화(化)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기계화/대중화/도시화/자동화/전문화

* 가(家) :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건축가/교육가/문학가

2. ‘그것에 능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예) 외교가/이론가/전략가

3.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예) 자본가/장서가

4. ‘그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대식가/명망가/애연가

* 사(師)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도박사/사진사/요리사/전도사

13번

이 문제는 우리말의 장단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 상거래(商去來), 상식선(常識線), 상황(商況), 상처(傷處)에서 ‘상-’은 모두 짧게 발음된다.
- * 상상력(想像力)에서 ‘상-’은 길게 발음된다.

14번

이 문제는 우리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 ‘이번 주’는 [이번쭈]로, ‘창고’는 [창고]로, ‘내복약’은 [내봉약]으로, ‘늘기’는 [늘끼]로, ‘잘 입는다’는 [잘림는다]로 발음해야 한다.

15번

고유어 어휘 능력, 고유어 합성어 등의 의미와 쓰임을 알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 * 짹짹 : 끼리끼리만 내통하거나 어울려서 손발을 맞추는 일 또는 옥신각신 다투는 일
- * 입찬소리 :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 * 너나들이 : 서로 너나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넨. 또는 그런 사이
- * 무릎맞춤 :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삼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 * 우렁잇속 : 내용이 복잡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번

자주 쓰이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정확한 한자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 신봉(信奉), 지식(知識), 객관(客觀), 발견(發見)은 모두 맞게 표기됐다. 하지만 개인(皆人)은 개인(個人)으로 표기해야 한다.
- * ‘지식(知識)’과 ‘지식(智識)’은 그 표기와 쓰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의 뜻풀이를 사전에서 찾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식(知識) ㄱ. 명)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예) 지식을 쌓다./지식을 얻다.
나.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예) 사전 지식/전문 지식
- ② 지식(智識) ㄱ. 명) 생각하여 아는 작용. 또는 지혜와 견식.

17번

고유어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 * ‘버리다’는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또는 ‘마음이나 의지를 가다듬고 단련하여 강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여기서는 두 번째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버리다’가 ‘A: 이번 경기에 승산이 있겠어? B: 글썄, 실력은 안 되지 만 투지를 버려야지.’로 문맥에 적절하게 쓰였다.

18번

이 문제는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자주 쓰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 *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가.)
- * 그는 먼 산을 응시하며 담배에 불을 (나.)
- * 이상하게도 가을만 되면 나는 유독 입맛이 (다.)

- * ‘땅기다’는 ‘몹시 썩기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당기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끌리다, 입맛이 돋우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댕기다’는 ‘불이 옮겨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가~다에는 순서대로 ‘땅기다, 당기다, 댕기다’가 들어가야 한다.

19번

이 문제는 자주 쓰이는 한자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1. 그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 했다.
2. 그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3. 철수는 지금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4. 단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되었다.
5. 그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 시정(是正), 치료(治療), 갱신(更新), 개선(改善)은 모두 맞게 표기되었다. 수리(手理)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수리(修理)로 표기해야 한다.

20번

우리말은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들을 문맥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훨씬 더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기) 빵이 말랑말랑 부드럽다.

<보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말랑말랑’은 ‘매우 야들야들하게 보드랍고 무른 느낌’을 나타내는 촉각적인 이미지의 단어이다.

- * 몽글몽글 : 덩이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말로, 촉각적인 표현이므로 정답이다.
- * 새록새록 : 새로운 물건이나 일이 잇따라 생기는 모양,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거듭하여 새롭게 생기는 모양, 또는 잠든 어린아이가 숨 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시청각적인 표현이다.
- * 설레설레 : 큰 동작으로 몸의 한 부분을 가볍게 잇따라 가로 흔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시각적인 표현이다.
- * 슬쩍슬쩍 : 남의 눈을 피하여 잇따라 재빠르게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시각적인 표현이다.
- * 토실토실 : 보기 좋을 정도로 살이 통통하게 찐 모양을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이다.

21번

이 문제는 특정 어휘의 호응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 ‘차마, 미처, 옴짝달싹, 이만저만’은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다. ‘그저’는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하는 말이다.

22번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 * 안치다 : 재료를 솥이나 냄비 등에 넣고 음식이 되게 하다.
- * 잿히다 : 액체가 속으로 스며들거나 점점 줄어들어 없어지게 하다.

- * 한소끔 : 한 번 끓어오르는 모양
- * 폭 : 충분히 끓이거나 삶는 모양
- * 바득하다 : 국물이 적어 툭툭하다.
- * 쟁이다 :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

23번

이 문제는 의미가 유사한 단어의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 * 늦다 : 그는 다른 사람보다 걸음이 낮은 편이다. -> 느린 편이다.
- 느리다 : 그는 평소보다 5분 정도 느리게 도착했다. -> 늦게 도착했다.

* '걸음'은 '느리다'로, 시간은 '늦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4번

이 문제는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1. 아무도 없는 집을 혼자서 황망히 지키고 있다.
2. 선생님께서는 귀찮은 부탁을 흔연히 승낙하셨다.
3. 이제 여덟 식구가 하릴없이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다.
4.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 밥벌이야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5. 가없이 넓은 벌판에서는 아롱아롱한 아지랑이가 떠올랐다.

- * 황망히 :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적절한 쓰임이 아니다.
- * 흔연히 :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 * 하릴없이 :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또는 조금도 틀림이 없이
- * 어련히 :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 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게'라는 뜻으로 대상을 긍정적으로 칭찬할 때 쓰나, 때로 반어적으로 쓰여 비아냥거리는 뜻을 나타내기 도 한다.
- * 가없이 : 끝이 없이

25번

이 문제는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어 중에서 신체와 관련된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 ㄱ. 슬하에 자녀는 몇이나 두셨습니까?
- ㄴ. 그는 톨스토이에 비견할 만한 소설가이다.
- ㄷ. 내각은 이번 내분으로 실각의 위기를 맞고 있다.
- ㄹ.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 * 슬하(膝下) :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아버지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나 '부모의 보호를 받는 태두리 안'을 이른다. 를 받는 태두리 안'을
- * 비견(比肩) :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낮고 못 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함을 이르는 말
- * 실각(失脚) : 발을 헛디딤, 또는 일에 실패하여 있던 지위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는 말
- * 초미(焦眉) :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매우 급함을 이르는 말

26번

사전의 뜻풀이 내용에 알맞은 용례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지다 02

1.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2. 꽃이나 잎 따위가 시들어 떨어지다.
3. 묻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닦이거나 씻겨 없어지다.
4. 불이 타 버려 사워어 없어지거나 빛이 희미하여지다.
5. 목숨이 끊어지다.

예문)

1. 서산에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2. 낙엽이 지는 걸 보니 쓸쓸하다.
3. 옷에 묻은 얼룩이 잘 지지 않는다.
4. 별빛이 지고 나면 곧 해가 뜰 것이다.
5. 의사가 왔지만 환자는 숨이 저 있었다.

* 노을은 해질 무렵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벌겋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노을이 지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지다’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이다. 이 동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다 04’로 등재된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지다 02’의 첫 번째 뜻은 ‘해가 지다, 달이 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을이 지다’와는 다른 것이다.

- * ‘낙엽이 지다’의 ‘지다’는 잎이 시들어 떨어지다는 뜻이다.
- * ‘얼룩이 지지 않다’의 ‘지다’는 묻었던 것이 씻겨 없어지다는 뜻이다.
- * ‘별빛이 지다’의 ‘지다’는 빛이 희미하여진다는 뜻이다.
- * ‘숨이 지다’의 ‘지다’는 목숨이 끊어지다는 뜻이다.

- 보충 -

‘지다 04’의 뜻풀이

- ㄱ.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예) 그늘이 지다./서산에 노을이 지다./치마에 주름이 지다./옷에 얼룩이 졌다.
- ㄴ.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
예) 나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동료와 원수를 진 관계가 되다.

27번

일상에서 흔히 잘못 쓰는 경향이 많은 표현들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다.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1. 멀리서 친구가 아는 체 하며 말을 걸어 왔다. -> 알은체하며
2.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뎈 복숭아뼈 부위를 다쳤다. -> 복사뼈
3. 그는 너무 외곬으로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 외골수로
4. 정작 죄인은 도망을 치고 엄한 사람이 징역을 살았다. -> 애먼
5.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저녁 내내 속이 볶이어 혼났다. -> 보깨어

*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알은체하다’ 또는 ‘알은척하다’라고 한다. 이것은 ‘아는 체하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 ‘복숭아뼈’는 ‘복사뼈’의 잘못이다.

* ‘외곬’은 ‘단 한곳으로만 트인 길’이라는 뜻인데, 주로 ‘외곬으로’로 쓰여 한 가지 방법이 나 방향으로만 무엇을 고집함을 뜻할 때 사용한다. 보기 문항에서 ‘외곬으로 일에 몰두하다’는 올바른 용법이다. 한편 ‘외골수’는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이다. ‘외골수 학자’와 같이 쓴다. 보기 문항에서 고친 말인 ‘외골수로’에서 ‘외골수’는 ‘외곬’의 잘못된 말이다.

*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은 관형사 ‘애먼’이다. ‘애먼 징역을 살다’와 같이 쓴다. 이 말을 써야 할 자리에 ‘엄한’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엄하다’는 성격이나 행동이 철저하고 까다롭다는 뜻이다.

*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 속이 답답하고 거북하게 느껴진다는 뜻의 말은 ‘보깨다’이다.
‘저녁 내내 속이 보깨다’와 같이 쓴다. 이 말을 써야 할 곳에 ‘뉘이다’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뉘이다’는 ‘뉘다’(사람을 괴롭히다)의 피동사다.

28번

우리말의 높임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다.

보기)

우리말은 다양한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이다. 높임의 대상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나, 듣는 사람이냐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높임법이 있다.

1.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드시고 계십니다.
2. 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
3. 선생님께서는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4. 사장님은 자제 분들과 댁에서 쉬고 계십니다.
5. 자네 부친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보기>에서는 우리말 높임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화자가 문장의 주어를 높임의 대상으로 판단할 때는 서술어의 어간에 ‘-시-’를 덧붙인다. 또 주어와 관련된 말을 높이게 되는데 이것을 ‘높임말’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보기 문항에 나타난 높임말들이 주어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판별해 보라는 것이다.

- 1) ‘진지(밥)’는 주체인 할아버지가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화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된다.
- 2) 주체인 아버지보다 객체인 할머니가 상위자이므로 서술어를 높여 ‘모시고’라고 하였다. 객체 높임법이 실현된 것이다. 만약 객체가 하위자라면 서술어가 예사말로 실현되어 ‘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셨다’가 될 것이다.
- 3) 여기서 ‘말씀(말)’은 주체인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되었다.
- 4) ‘자제(子弟)’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주체인 사장님을 대우하여 그의 자녀들을 높여서 ‘자제 분’이라고 하였다.
- 5) 이 문장의 주체인 ‘자네 부친’은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세(나이)’라는 높임말을 사용하였다.

29번

한글 맞춤법 중에서 두음법칙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 둘씩 짝 지은 ‘구름양/구름량’, ‘가십난/가십란’, ‘설립 연도/설립 년도’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고르라는 문제다. ‘연도(年度)’는 두음법칙이 적용된 단어다. ‘설립 연도’와 같은 구에서도 ‘연도’는 두 번째 단어의 첫소리로 쓰였으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나타난다. 설령 ‘설립연도’가 합성어가 된다고 해도 ‘연도’의 표기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합성에서 뒷말은 ‘ㄴ’소리가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서 적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표기된 말들만 고르면 ‘구름양, 가십난, 설립연도’이다.

-보충-

*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두음법칙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양심/역사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연이율/열역학/해외여행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예) 구름-양/허파숨-양

30번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제대로 구별하여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1.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을까?
2. 넓다란 벌판에 곡식이 익어간다.
3. 위험을 무릎쓰고 도전한 그가 자랑스럽다.
4. 얼굴이 너무 헐쓱해져 못 알아볼 지경이다.
5. 자꾸 노트에 쓸데없는 것만 끼적이고 있을 거야?

- * ‘웬일로’는 ‘웬일로’의 잘못이다. ‘왜’는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 ‘웬’은 ‘어찌 된’의 뜻을 지닌 관형사다. ‘왜’는 어미와 결합하여 ‘웬지<-왜+(이-)+-ㄴ지’로 쓰이고, ‘웬’은 명사와 결합하여 ‘웬일, 웬걸’과 같이 쓰인다.
- * ‘넓다란’은 ‘널따란’의 잘못이다.
- * ‘무릎쓰고’는 ‘무릅쓰고’의 잘못이다.
- * ‘헐쓱해져’는 ‘헐쓱해져’의 잘못이다.
- * ‘끼적이고’는 올바른 표기법이다. 글씨를 아무렇게나 쓴다는 뜻으로 ‘끼적이다’ 또는 ‘끼적끼적’으로 잘못 쓰는 경향이 있다. ‘끼적이다’, ‘끼적끼적’이 바른 말이다.

31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의 정확한 표기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1. 밀크셰이크 하나 주세요!
2. 그런 행동은 아마츄어나 하는거야.
3. 옥희의 바이얼린 연주는 일품이더라!
4. 새로 산 내비게이션은 쓰기가 너무 불편해.
5. 문제는 여기서 복잡한 매카니즘이 작용한다는 거지.

- * ‘밀크셰이크’는 ‘밀크셰이크’의 잘못이다.
- * ‘아마츄어’는 ‘아마추어’의 잘못이다.
- * ‘바이얼린’은 ‘바이올린’의 잘못이다.
- * ‘내비게이션’은 올바른 표현이다. 이것을 ‘네비게이션’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 * ‘매카니즘’은 ‘매커니즘’의 잘못이다.

32번

유명한 인물의 외래어 표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1. 맑스 2. 마오쩌둥 3. 크레오파트라 4. 장 다르크 5. 콜롬버스

- * ‘맑스’는 ‘마르크스(Marx)’의 잘못이다. ‘맑시즘’은 ‘마르크시즘(Marxism)’의 잘못이다.
- * ‘마오쩌둥(Mao Zedong[毛澤東])’은 올바른 표기다.
- * ‘크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Cleopatra)’의 잘못이다.
- * ‘장 다르크’는 ‘잔 다르크(Jeanne d’Arc)’의 잘못이다.
- * ‘콜롬버스’는 ‘콜럼버스(Columbus)’의 잘못이다.

33번

우리말의 지명을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에 따라 적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다.

- * ‘Tae’an(태안)’은 올바른 표기다. 여기서의 자음 ‘ㄷ’이 ‘t’에 대응하고, 모음 ‘ㅐ’는 ‘ae’에 대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

- * 'Imshil(임실)'은 'Imsil'의 잘못이다. 우리말의 자음 'ㅅ'은 어떤 모음과 결합하든지 항상 's'로 표기된다.
- * 'Kimhai(김해)'는 'Gimhae'의 잘못이다. 여기서의 우리말 자음 'ㄱ'이 로마자 'g'에 대응하고, 모음 'ㅞ'는 'ae'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기된다.
- * 'Whaseong(화성)'은 'Hwaseong'의 잘못이다. 우리말 자음 'ㅎ'은 로마자 'h'에 대응하고, 이중모음 'ㅜ'는 'wa'에 대응한다. 따라서 '화'는 'hwa'로 표기된다.
- * 'Pyongchang(평창)'은 'Pyeongchang'의 잘못이다. 여기서의 우리말의 이중모음 'ㅟ'가 로마자로는 'yeo'로 표기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로 표기된다.
고, 모음 'ㅞ'는 'ae'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기된다.
이중모음 'ㅜ'는 'wa'에 대응한다.
마자로는 'yeo'로 표기된다는 것을

34번

부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1. 작년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2.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3.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푼다.
4. 그녀는 사뿐사뿐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갔다.
5. 우리는 다행히 그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 '많이'는 서술어 '내렸다'를 수식한다. 부사가 문장 성분의 하나인 서술어를 수식하는 전형적인 용법을 보인 것이다.
- * 부사 '바로'가 뒤따르는 체언 '너'를 수식한다.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몇몇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 * 부사 '너무'가 후행하는 형용사 '어려워서'를 수식한다. 문장의 한 성분인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의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 * 상징부사 '사뿐사뿐'이 뒤따르는 동사 '걸어서'를 수식한다. 상징부사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로만 쓰인다.
- * 부사 '다행히'가 수식하는 말은 뒤따르는 문장 전체이다. 그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하다는 뜻이다. 문장부사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다행히 우리는~),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와 자리를 바꾼 것이다(우리는 다행히~).

적인 용법을 보인 것이다.
지만 몇몇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는 성분부사의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낸 말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로만 쓰인다.
다행하다는 뜻이다. 문장부사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다행히 우리는~),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와 자리를 바꾼 것이다(우리는 다행히~).

35번

단어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보기>

붙임표는 사전에서 접사나 어미를 나타내거나 단어의 구성 성분을 보여 준다. ㄱ. 하지만 붙임표는 모든 구성 성분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먹음직-스럽다'는 '먹-'에 '-음직-'이 결합하고 여기에 다시 '-스럽다'가 결합한 말이지만 사전에서는 '먹음직-스럽다'로만 표시한다.

- * 깨끗-이 :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과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이들은 최 종 구성성분으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 * 겨울-옷 :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다. 이 명사들은 단일어로서 쪼갤 수 없는 말이다.
- * 은근-슬쩍 : '은근하다'의 어근 '은근'과 부사 '슬쩍'이 결합한 합성부사다. 둘 다 어근으로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말이다.
- * 일그러-지다 : 일단 '일그러'와 보조용언 '지다'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일그러'는 용언의 활용 형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원형이 밝혀지지 않는 말은 분석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형처럼 보이지만 원
- * 잡아먹-히다 : 합성동사 '잡아먹-'과 피동 접미사 '-히-'로 분석된다. '잡아먹다'는 동사의 활용 형태 '잡아'와 동사 용형 '잡아'와 동사
'먹다'로 분석된다. '잡-아'는 어간과 어미로 분석된다.

36번

유사한 발음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어미나 조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제다.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잘못된 것은?

1. 월급이래야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2. 돈이 무엇이관데 나를 이리 괴롭히는가?
3. 사람들이 제시간에 올런지 나도 모르겠어.
4. 이미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모른 척했다.
5. 내 친구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야.

- * ‘이래야’는 ‘이라고 해야’가 줄어든 말이다. 앞의 말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임을 나타낸다.
- * ‘이관데’는 서술격 조사 뒤에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결합한 말이다.
- * ‘-르런지’는 ‘-르는지’의 잘못이다. 발음의 영향으로 잘못 표기하게 되는 대표적인 어미다. ‘올런지’는 ‘올는지’로 표기하여야 한다.
- * ‘마는’은 반대 상황을 나타내는 종결보조사다.
- * ‘-래서’는 ‘-라고 해서’가 줄어든 말이다.

37번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 * 끝이야 : ‘ㅌ’로 끝난 명사 뒤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서술격 조사 ‘이’가 연속한 것이다. 이럴 때는 구개음화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끄치야]로 발음이 나며, 표기는 원형을 살려서 적는다.
- * 발이랑에 : 두 개의 명사 ‘발’과 ‘이랑’이 결합한 합성어다. ‘이랑’에서의 ‘이’는 단어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지 앞말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가 아니다. 따라서 구개음화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발음도 [반니랑<-반니랑]으로 실현된다. [반니랑에]로 발음이 난다.
- * 너같이 : 대명사 ‘너’에 조사 ‘같이’가 결합한 말이다. 조사 ‘같이’는 부사에서 전성한 것이다. 이것은 형용사 어간 ‘갈-’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이때 접미사는 앞말과 종속적 관계를 이루므로 구개음화의 적용 대상이 되어 [가치]로 발음된다. [너가치]로 발음이 난다.
- * 곧이든질 : 부사 ‘곧이’와 동사 ‘듣다’가 결합한 합성어다. 부사 ‘곧이’는 형용사 어간 ‘곧-’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구개음화의 적용 대상이 되며 [고지]로 소리 나고, 표기는 원형을 밝혀서 ‘곧이’로 적는 것이다.
- * 단힐 : 능동사 ‘단다’의 피동형이다. 동사 어간 ‘단-’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접미사는 앞말과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므로 [다칠]로 소리 나며, 표기할 때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38번

일상생활에서 흔히 잘못 쓰이는 표현을 올바르게 고쳐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보기>

아저씨께서는 귀를 잡수셔서 잘 듣지 못하셔.

1. 귀를 먹어서
2. 귀를 잡쉬서
3. 귀를 들어서
4. 귀를 드셔서
5. 귀를 자셔서

- * 동사 ‘먹다’는 동음이의어이다. 음식을 배 속으로 들여보낸다는 뜻도 있지만, 코나 귀가 막혀 냄새 맡거나 들을 수 없다는 뜻도 있다. ‘코가 먹다’ 또는 ‘귀가 먹다, 귀를 먹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먹다’를 음식을 먹는다는 뜻으로 잘못 생각하여 ‘먹다-잡수시다’로 예사말과 높임말의 짝을 짓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보기>에 제시한 것과 같이 ‘아저씨는 귀를 잡수셔서’와 같은 잘못된 문장을 쓰게 된다. ‘귀가 잡수시다, 귀를 잡수시다’는 ‘귀를 먹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동사의 형태 변화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다.

<보기>의 ㄱ-ㄴ-ㄷ의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 * 오늘은 슬픈 영화를 보고 ㄱ. 울다.
- * 슬픈 영화를 보고 하루 종일 ㄴ. 웁.
- * 슬픈 영화를 보니 ㄷ.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1. 졸다[睡] - 줌 - 줌
2. 살다[生] - 삶 - 삶
3. 풀다[解] - 품 - 품
4. 열다[開] - 엽 - 열음
5. 밀다[推] - 밍 - 밀음

<보기>에서는 동사 ‘울다’를 제시하였는데 이 동사의 명사형은 ‘울+ㅏ+ㅁ->웁’이고, 파생명사는 ‘울+ㅏ+음->울음’이 된다. 여기서는 ‘ㄱ’ 받침을 가진 어간의 명사형은 ‘ㄷㅁ’으로 실현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동사 ‘졸다, 살다, 풀다, 열다, 밀다’의 명사형은 ‘줌, 삶, 품, 엽, 밍’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보기 문항 중에서 파생명사의 예들을 보여 주는 ㄷ의 용례들만 잘 살펴보아도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파생명사로 사용된 것은 2.의 ‘삶’밖에 없다.

- * ‘졸다’의 명사형은 ‘졸+ㅏ+ㅁ -> 줌’이고, 파생명사는 ‘졸+ㅏ+음 -> 졸음’이다.
- * ‘살다’의 명사형은 ‘살+ㅏ+ㅁ -> 삶’이고, 파생명사는 ‘살+ㅏ+ㅁ -> 삶’이다. ‘살다’의 경우는 명사형과 파생명사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와 기능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백 살까지 삶’(명사형), ‘행복한 삶을 누리다’(파생명사)
- * ‘풀다’의 명사형은 ‘풀+ㅏ+ㅁ -> 품’이고, 파생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열다’의 명사형은 ‘열+ㅏ+ㅁ -> 엽’이고, 파생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 ‘밀다’의 명사형은 ‘밀+ㅏ+ㅁ -> 밍’이고, 파생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성된 원고를 읽으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나 비문을 찾아 교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어색한 표현이 들어 있는 문장은?

<보기>

1. 최근,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2. 그런데 실제 상황인 것으로 믿었던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 대다수의 국민들이 프로그램 조작에 대해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4. 이번 프로그램 조작 사건으로 방송에 대한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이를 계기로 방송은 시청률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문장으로 어색하지 않다.
- *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는 문장인데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 * ‘이번 사건으로 방송에 대한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지만 보기 문항과 같은 피동 표현을 굳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이를 계기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장이다. 문장의 골격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 번역투의 문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절한 표현이다.

11번

- * 휘발성 : 일차적인 의미 ‘보통 온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어 날아 흩어지는 성질’
- <보기>의 ‘휘발성 발언’ :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할 정도로 폭발력 있는’의 의미로 사용

12번

- * 마각(馬脚) : 말의 다리, 가식하여 숨긴 본선이나 진상. ‘마각이 드러나다’는 ‘말의 다리로 분장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다’는 뜻으로 곧 숨기고 있던 일이나 정체를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

13번

- * 맥맥하다 : 코가 막혀 숨쉬기가 갑갑하다, 생각이 잘 돌지 아니하여 답답하다, 기운이 막혀 갑갑하다
- * 무르녹다 : 과일이나 음식 따위가 충분히 익어 흐무러지다, 일이나 상태가 한창 이어지려는 단계에 달하다
- * 푼푼하다 :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거나 웅졸하지 아니하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다
- * 거울지다 : 되비치어 보이다
- * 데생기다 : 생김새나 됨됨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못나게 생기다

14번

- * 구메구메 : 남모르게 틸틈이
- * 휘적휘적 : 걸을 때에 두 팔을 자꾸 몹시 휘젓는 모양
- * 토닥토닥 : 잘 울리지 아니하는 물체를 잇따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 곰실곰실 : 작은 벌레 따위가 한데 어우러져 조금씩 굼뜨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 허위허위 : 손발 따위를 이리저리 내두르는 모양 또는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모양

15번

- * 사기(士氣) :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 * 용기(勇氣) :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 * 체기(滯氣) : 먹은 것이 잘 삭지 아니하여 생기는 가벼운 체증
- * 천기누설(天機漏洩) : 중대한 기밀이 새어 나감
- * 경기(驚氣) : 경증이 발작할 때에 몸이 뻗뻗해지고 오랫동안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

16번 한자어

- * 주제 : 主題
- * 전제 : 前提
- * 방송 : 放送
- * 언급 : 言及
- * 불특정 : 不特定

17번

- * 정체성(停滯性) : 사물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특성
- * 정체성(正體性) :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18번

- * 소쿠리 :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우리말이다.
- * 유도리 : ‘시간, 금전, 기력 등의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우리말 ‘유통성’
- * 아싸리 : ‘아예, 그럴 바에는, 그것보다’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우리말 ‘차라리’
- * 무데뽀 : 일의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우리말 ‘막무가내’
- * 쿠사리 : ‘남을 구박하거나 면박을 줄 때 쓰는 속어’로 일본어의 잔재, 우리말 ‘핀잔’

19번

- * 쌍심지를 켜다 : 몹시 화를 내어 눈에 열화를 띠다
- * 간간오월 : 해가 길어서 일하기가 지루한 달
- * 들은풍월 : 남에게서 얻어들어 알게 된 변변치 않은 지식

*바지저고리로만 다닌다 : '사람의 몸뚱이는 없고 바지저고리만 걸어다닌다'는 뜻으로 사람이 아무 속이 없고 맏힌 데가 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에 풀칠을 하다 :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것

20번

*쓰다

-장기나 옷놀이 따위에서 말을 규정대로 옮겨 놓다.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다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원서, 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 따위를 작성하거나 일정한 양식을 갖춘 글을 쓰는 작업을 하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에 덮은 상태가 되다.

-사람을 어떤 일정한 직위나 자리에 임명하여 일을 하게 하다.

*내다

-연기나 불길이 아궁이로 되돌아 나오다.

-가게 따위를 새로 차리다.

-(방언) 쌀, 콩, 팥 따위의 곡식을 팔다.

*돋다

-해나 달 따위가 하늘에 솟아오르다.

-속에 생긴 것이 겉으로 나오거나 나타나다.

-살갓에 어떤 것이 우툴두툴하게 내밀다.

*삼다

-짚신이나 미투리 따위를 겹어서 만든다.

-삼이나 모시 따위의 섬유를 가늘게 찢어서 그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 잇다.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짓다

-재료를 들여 밥, 옷, 집 따위를 만든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약을 만든다.

-시, 소설, 편지, 노래 가사 따위와 같은 글을 쓰다.

-한데 모여 줄이나 대열 따위를 이루다.

-논밭을 다루어 농사를 하다.

-거짓으로 꾸미다.

21번

*붓다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속되게)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모종을 내기 위하여 씨앗을 많이 뿌리다.

-불입금,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시선을 한곳에 모으면서 바라보다.

예문) 냄비에 물을 잘 붓고 끓여야 해.

얼굴은 붓다가도 금세 되돌아온다.

적금을 붓다가 해약하면 손해가 클 텐데.

*분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예문) 그렇게 하면 라면이 분다가 터져 버려.

재산을 원래 분다가도 없어지는 법이다.

22번

*사람

-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 사람의 됨됨이나 성질

23번

- *제청(提請) :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 *제안(提案) : 의안으로 내놓거나 또는 내놓은 의안
- *경신(更新) :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거나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 *갱신(更新) : 법률 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 *주최(主催) :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여는 것,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주관(主管) :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24번

- *보우(保佑) : 보호하고 도와줌
- *바람서리 : 풍우로 말미암아 농업이나 어업 따위가 받는 피해
- *공활(空豁) : 텅 비고 매우 넓다
- *보전(保全)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25번

- *밥 위에 떡 : 좋은 일에 더욱 좋은 일이 겹침
- *배 먹고 이 닦기 :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

26번

- *'맞추다'와 '마추다'는 구별하지 않고 '맞추다'로 적는다.
- 예문) 기분을 잘 맞추다. 옷 한 벌 맞추다, 말을 맞추다

27번 표준어

- *겉핥하면 : 비슷한 말로 '제깍하면'이 있는데 형태가 달라서 혼동될 이유가 없다.
- *더부룩하다 : '더부룩하다, 듬부룩하다'와 함께 쓰이기는 하지만 '더부룩하다'가 널리 쓰이므로, 이것만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 *게슴츠레하다 : '게슴츠레하다, 거슴츠레하다' 둘 다 널리 쓰이는 복수 표준어다.
- *빠기다 : '뽀내다'의 뜻을 가진 '빠기다, 빠개다' 중에서는 '빠기다'만 표준어로 인정
- *까다롭다 :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까닭스럽다, 까탈스럽다'가 있으나 잘 쓰이지 않으므로 버렸다.

28번

- *다정타 : '다정하다'가 줄 때는 어간 '하'의 모음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된다.
- *연구토록 : '연구하도록'이 준 것. 어간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표기.
- *서슴지 : '서슴다'가 준 것. 서슴지 (X)
- *거북지 : '거북하지'가 준 것. '하'를 제외한 어근의 끝소리가 'ㄱ, ㅂ, ㅅ'일 때는 '하'가 통째로 탈락.
- *못잡기 : '못지아니하다-못지않다-못잡다'의 과정으로 줄어든다. '못잡'+기' 이므로 '못잡기'로 표기.

29번 외래어 지명 표기

- *뮌헨(Munche) (O), 뮌헨 (X)
- *세비야(Sevilla) (O), 세빌리아, 세빌리아 (X)
- *타슈켄트(Tashkent) (O), 타슈켄트 (X)
- *마르세유(Marseille) (O), 마르세이유, 마르세유 (X)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O), 로스엔젤레스 (X)

30번

- *엔도르핀(endorphin) (O), 엔도르핀 (X)
- *카운슬링(counseling) (O), 카운셀링 (X)
- *나르시시즘(narcissism) (O), 나르시즘 (X)

- *프랜차이즈(franchise) (O), 프렌차이즈 (X)
- *트랜스 지방(Trans脂肪) (O), 트렌스 지방 (X)

31번 로마자 표기법

- *무안 : Muan
- *울진 : Ujin
- *연천 : Yeoncheon
- *영월 : Yeongweol
- *곡성 : Gokseong

32번 띄어쓰기

- ‘뭐’는 조사가 뒤따를 때 붙여 쓴다. ‘하다’ 동사와 쓰일 때는 ‘뭐 하다(=무엇을 하다)’처럼 목적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이룰 수도 있고, ‘뭐하다’가 한 단어가 되어 ‘뭐하러 왔니?’ (무슨목적으로), ‘좀 뭐해서(거북하다)’와 같이 쓰일 수도 있다.
- *뭐하고 먹었어? : ‘하고’는 ‘함께’의 뜻으로 쓰인 부사격 조사. 붙여 쓴다.
- *뭐라도 해서. : ‘라도’는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붙여 쓴다.
- *뭐같이 보이니? : ‘같이’는 ‘와/과 같이’로 쓰일 때는 부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로 쓰인다. 여기서 ‘같이’는 대명사와 ‘처럼’의 뜻으로 쓰인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말로 붙여 쓴다.
- *말 걸기가 좀 뭐하더라. : ‘뭐하다’는 거북한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 붙여 쓴다.
- *방 안에서 뭐하고 있니? :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뜻이다. 이때는 대명사 ‘뭐’와 동사 ‘하고’가 각각 독립적인 단어로 쓰인 것이므로 ‘뭐 하고’로 띄어 써야 한다.

33번 발음 규정

- *짧다[짤따] : 겹받침 ‘ㄹ’은 [ㄹ]로 소리 나므로 [짤따]로 발음
- *얇다[얄더라][알띠얄떠라] : 겹받침 ‘ㄹ’은 [ㄹ]로 발음
- *굵다[국:따] : 겹받침 ‘ㄹ’은 [ㄱ]으로 소리가 난다. 다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굵게[굴게]처럼 [ㄹ]로 소리 난다.
- *넓지[널찌] : 겹받침 ‘ㄹ’은 [ㄹ]로 소리
- *뵈고[뵈:꼬] : 겹받침 ‘ㄹ’을 가진 용언 중에서 유일하게 [ㅂ]으로 소리 나는 단어.

34번 음의 길이

- *거칠다[거칠다]
- *거치다[거치다]
- *거추장스럽다[거:추장스럽따]
- *거스르다[거스르다]
- *거세다[거세다]

35번 띄어쓰기

-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 *지 : ‘지’는 동안의 뜻으로 쓰일 때만 의존명사로 띄어서 쓴다. 그 외에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예문)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의존명사)
언제 그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미)
- *만 : ‘만’은 의존명사나 보조사로 쓰인다.
-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서 ‘동안’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서 쓴다.
- 용언과 결합할 때는 ‘-을 만하다’의 구성으로 쓰이는데, 의존명사 ‘만’과 ‘하다’가 결합하여 보조형용사가 된 경우다. 이럴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그 외 체언과 결합할 때는 보조사로 쓰임. ‘강조’나 ‘비교’의 뜻.
- 예문)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의존명사-동안)
이 음식은 정말 먹을 만하다.(보조형용사)
웃기만 할 뿐 말이 없다.(보조사-강조)
집채만 한 파도가 친다.(보조사-비교)

36번 문장의 중의성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장의 중의성

- *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감사담당공무원 중)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7번 문장의 중의성

- *[나는 슬픈 얼굴로] [떠나가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나는] [슬픈 얼굴로 떠나가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 *[나는 밝게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밝게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다.]
- *[올해 열 살 된 영희]의 [동생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올해 열 살 된 영희의 동생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38번 한글 맞춤법 규정

- *일본뇌염 주의보 : ‘일본 뇌염’은 의학 전문 용어로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도 있다.
- *연중 접종을 권장하며 : 년중-연중, 두음법칙 반영
- *실시하려 합니다 : 보조 용언 띄어 쓰기. 실시하려+합니다
- *일 회 접종 비용 : 단위 명사 띄어 쓰기. ‘일 회’. 숫자일 때는 ‘1회’와 같이 붙여 쓴다.
- *문의바랍니다(X) : ‘문의하다’+‘-기를 바라다’ ->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로 표현해야 한다.

39번

- *사겨서 : ‘사귀어서’의 잘못
- *-하지 마라고 : ‘말라고’의 잘못
- *안 쓰려야 안 쓸 수가 없다 : 잘못된 표현. ‘-려야’는 ‘-려고 하여야’가 줄어든 말. ‘-려야 -을 수 없다’와 같이 쓰인다.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다’처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 *담배 많이 피우지 : 잘못된 표현. ‘담배를 피다’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40번 적절한 표현 및 문법성 판단

-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아무나**쉽게새로운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시대가되었다.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과 같이 전자는 긍정 표현, 후자는 부정 표현에 쓰인다. 따라서, ‘누구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수많은 정보 가운데는 무책임한 것들도 **작지**않아서사회의문제가되고있다.
-> ‘적지’로 고쳐야 한다. ‘작다’는 크기, ‘적다’는 수량
- *일례로 최근에는 활동이 뜸한 왕년의 인기 가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진**적이있었다.
-> ‘퍼진’으로 고쳐야 한다. 소문이 넓은 범위로 옮아간다고 할 때 ‘번지다, 퍼지다’를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불길이 넓은 범위로 확대될 때는 ‘번지다’라고 하고, 물결이 넓은 범위로 확대될 때는 ‘퍼지다’라고 한다. ‘일파만파’는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확산되는 것을 뜻하므로 ‘퍼진다’를 사용
- *급기야는 언론에 노출을 꺼리던 그가 **의례적**으로기자회견을자청하고나섰지만파문은쉽게가라앉지않았다.
-> ‘이례적으로’로 고쳐 써야 한다. ‘의례적’은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추었다는 뜻. ‘이례적’은 상례에서 벗어나 특이하다는 뜻.

제11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보호(保護) :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보살펴 돌봄.

*대책(對策) :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책임(責任)

① 도맡아 해야 할 임무나 의무.

②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③ (법)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상의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뉨》.

*역기능(逆機能) : 본래 바라던 바와는 반대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능.

*취지(趣旨) :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취의(趣意).

17번

*접전(接戰) :

① 서로 맞부딪쳐 싸움. 합전(合戰).

② 서로 힘이 비슷하여 승부가 쉽게 나지 아니하는 싸움.

*낙승(樂勝) :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김.

*석패(惜敗) : 운동 경기 등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지는 일.

유사어 : 분패(憤敗) : 경기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분하게 짐.

*신승(辛勝) : 경기따위에서 간신히 이김.

*우승(優勝) :

① 경기·경주 따위에서 이겨 첫째를 차지함.

②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18번 : 언어순화

*옵서버(observer) = 참관인 : 회의 따위에서 특별히 출석이 허용된 사람

*어젠다(agenda) = 의제 : 모여서 서로 의논할 사항이나 주제

*리스크(risk) : 위험

*태스크포스 팀(task force team) = 전략팀 : 특수임무가 부여된 조직

*제로베이스(zero base) = 백지상태 :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

19번

*입추의 여지없이 : 매우 좁아 조금의 여유도 없음.

입추 :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

*만원사례를 하다 : 극장같은 흥행장에서 만원이 되어 관객을 더 받지 못함.

만원사례 : 만원을 이루게 해주어서 고맙다.

*산통이 깨지다 : 잘되어가던 일이 뒤틀리다.

*인구에 회자되다 : 칭찬을 받으면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회자 : 회와 구운 고기.

*(대단원의) 막이 내리다 : (행사를) 마치다, 끝나다.

20번

*바작바작 : 물기가 적은 물건을 잇따라 씹거나 뺨는 소리나 열이 심하거나 몹시 초조하여 입안이나 입술이 자꾸 마르는 모양

*보들보들 : 살갗에 다는 느낌이 매우 보드라운 모양

*사뿐사뿐 :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잇따라 가볍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모양, 또는 매우 가볍게 잇따라 몸을 움직이는 모양

*알근알근 : 매워서 입안이 매우 알알한 느낌이나 술이 취하여 정신이 매우 아련풋한 느낌

*포슬포슬 : 덩이진 가루 ·뚜위가 물기가 적어 엉기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21번

*그슬다 :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다.

*그을다 : 햇볕이나 연기, 불 따위를 오래 쬐어 검게 되다.

*가능하다 :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거나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사물을 어렵잡아 헤아림.

*갈음하다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가름하다 :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또는 승부나 등수 따위를 겨루어 정하는 일.

22번

*위탁(委託)하다 :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저축(貯蓄)하다 : 절약하여 모아 둠하다.

*위임(委任)하다 :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기탁(寄託)하다 :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둠

*임치(任置)하다 :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 둠

23번

*관심 :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주의 :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우는 정도

*경계 :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는 정도

24번

*악어의 눈물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의학 용어에도 얼굴 신경 마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악어의 눈물 증후군(crocodile tears syndrome)’이 있다. 환자들의 침샘과 눈물샘의 신경이 뒤얽혀 마치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처럼 침과 눈물을 함께 흘린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정치가가 패배한 정적(政敵) 앞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쓰며, 강자(强者)가 약자 앞에서 거짓으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따위의 행위도 모두 악어의 눈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5번

*울다

①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

②종이나 천둥, 벨 따위가 소리를 내다.

*가다

①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②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눈

①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②사람들의 눈길

*손

①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②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먹다

①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②귀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26번 :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중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준말 : 기러기야→기력야, 어제그저께→엇그저께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준말 : 그것이야→그게, 그것으로→그걸로, 그 애는→개는→갠, 그리로→글로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이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본말→준말 : 가아→가, 가았다→갔다

제37항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ㅞ, ㅟ, ㅚ, ㅜ, ㅠ’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본말→준말 : 뜨이다→띄다, 누이다→눠다

제38항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준말 : 뜨이어→띄어, 누이어→뉘어, 누여

- *엣그제께 : ‘어제그저께’가 준 말이다. ‘어제’에서 모음 ‘ㅐ’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ㅈ’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이동하였다.
- *그걸로 : ‘그것으로’가 줄어든 것이다.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과 조사 ‘으로’가 결합할 때는 대명사 쪽에서는 ‘ㅅ’이 탈락하고, 조사 쪽에서는 ‘ㄹ’이 덧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 *갔다 : 어간 ‘가-’와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하여 한 음절로 준 것이다.
- *띄었다 : 어간 ‘뜨-’에 ‘-이-’가 와서 ‘띄-’로 준 것이다.
- *뉘어 : 잘못된 표기로 ‘누이어’가 줄어들 때는 ‘-이-’가 어간 쪽으로 줄거나 어미 쪽으로 준다. 앞의 경우는 ‘뉘어’가 되고, 뒤의 경우는 ‘누여’가 된다.

27번

- *슬퍼하세요 : 형용사 어간 ‘슬프-’에 ‘-어하다’가 결합한 ‘슬퍼하다’는 동사다. 형용사는 명령형을 만들 수 없으나 동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슬퍼하+-세요’는 적절한 활용형이다.
- *있으러 : 연결어미 ‘-으러’는 배우이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사 어간에만 결합할 수 있다. 보기 문항에서는 형용사 어간 ‘있-’에 ‘-으러’가 결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 *먹구나 :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는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고, ‘-는구나’는 동사 어간과 결합한다. 어간이 서술격 조사 ‘이다’일 때는 ‘-로구나’가 결합한다.
예)에쁘구나, 먹는구나, 너로구나
- *정직하자 :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기 어렵다. 명령이나 청유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동사 어간과 어울릴 때 자연스럽다. ‘정직하자’는 형용사 어간 ‘정직하-’에 청유형 종결어미 ‘-자’가 결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 *지내느냐 : 의문형 종결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 어간에는 ‘-느냐’, 형용사 어간에는 ‘-으냐’가 결합한다. 간접 인용절에는 조사 ‘고’가 결합한 ‘-느냐고, -으냐고’로 나타난다. 보기 문항의 ‘잘 지내느냐는 말’은 의문문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동사 어간 ‘지내-’에 의문형 종결어미 ‘-느냐’가 결합한 ‘지내느냐’는 적절한 활용형이다.

28번

- *교과서(教科書)[교:과—서] : 동식물을 분류하는 단위로 쓰이는 ‘과(科)’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화과(菊花科)[구과과], 낙타-과(駱駝科)[낙타과]
- *공권력(公權力)[공권력] : ‘권(權)’ 자를 가진 말들은 대체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주권(主權)[주권], 여권(女權)[여권], 당권(黨權)[당권]
- *관건(關鍵)[관권] : ‘문빗장’과 ‘자물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때의 [건]은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예) 문건(文件)[문건], 안건(案件)[안:건], 인건비(人件費)[인:건비]
- *창구(窓口)[창구] : ‘접속구(接續口)[접속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구(句)’ 자를 가진 말들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관용구(慣用句)[과용구], 명사-구(名詞句)[명사구], 문구(文句)[문구]
- *등기(登記)[등기] : ‘기(氣)’ 자를 가진 단어들은 대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고생기(苦生氣)[고생끼], 광기(狂氣)[광끼], 노망기(老妄氣)[노망끼]

*한자어 된소리 발음과 예사소리 발음의 비교

된소리 발음	예사소리 발음
교과서(教科書)[교:과서]	국어과(國語科)[구거과]
효과(效果)[효:과]	성과(成果)[성과]
관건(關鍵)[관건]	여건(與件)[여건]
등기(登記)[등기]	경기(驚氣)[경끼]
창구(窓口)[창구]	경구(警句)[경:구]

29번 올바른 한국어 표기

- *massage : 마사지, 잘못된 표현 : 맛사지
- *hectare : 헥타르, 잘못된 표현 : 헥타
- *message : 메시지, 잘못된 표현 : 메세지
- *workshop : 워크숍, 잘못된 표현 : 워크샵
- *royalty : 로열티, 잘못된 표현 : 로얄티

30번

- *combination : 콤비네이션, 잘못된 표현 : 컴비네이션
- *concert : 콘서트, 잘못된 표현 : 컨서트
- *container : 컨테이너, 잘못된 표현 : 콘테이너
- *control : 컨트롤, 잘못된 표현 : 콘트롤
- *comedy : 코미디, 잘못된 표현 : 코메디

31번

1.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2항

제2항 장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ㅑ	ㅓ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 (월곶)	Wolgot	벗꽃 (벚꽃)	Beotkkot	한밭 (한밭)	Hanbat

2.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난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마 (백마)	Baengma	신문로 (신문노)	Sinmunno	종로 (종노)	Jongno
왕십리 (왕십니)	Wangsimni	벌내 (벌래)	Byellae	신라 (실라)	Silla

지하철 1호선의 역 이름 가운데 ‘종각’과 ‘종로 3가’의 로마자 표기를 묻고 있다. 우리말 자음 중 ‘ㅈ, ㄱ, ㄹ’의 로마자 표기를 묻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ㅈ’에 대응하는 로마자는 ‘ch’가 아니라 ‘j’다.

둘째,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자음이나 어말에서는 ‘k’로 적는다. 따라서 ‘종각’의 ‘각’은 ‘gak’으로 표기된다.

셋째, 음운 변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종로’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종노]로 발음 되므로 이것을 표기에 반영하여 ‘jongno’로 적는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각’과 ‘종로 3가’를 표기하면, ‘jonggak’과 ‘jongno 3-ga’가 된다.

32번

‘간(間)’은 의존명사로 쓰이느냐 접미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앞에서 열거한 두 대상의 ‘사이, 관계’의 뜻일 때는 의존명사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는 ‘동안’의 뜻을 가지는 접미사다.

의존명사 ‘간’

1.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예)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2. ((일부 명사 뒤))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부모와 자식 간
3. ((‘-든지 -든지 간에’ 구성))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 예)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접미사 ‘-간’

1.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 ‘동안’의 뜻. 예) 이틀간/한 달간
2. (((몇몇 명사 뒤)) ‘장소’의 뜻. 예) 대장간/외양간

- *각 중대 간 :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사이’의 뜻을 나타내는 쓰인 의존명사로 쓰였다.
- *친구 간에도 : 복수의 뜻을 가진 명사 뒤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였다.
- *서울과 부산 간 : 장소를 나타내는 두 명사의 ‘사이’라는 뜻의 의존명사로 쓰였다.
- *밥을 먹든지 책을 보든지 간에 : ‘-든지, -든지 간에’의 구성에서 ‘간’은 의존명사로 쓰였다.
- *일주일 간의 : 이때의 ‘간’은 ‘동안’의 뜻으로 쓰인 접미사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일주일간’으로 붙여 써야 한다.

33번

용언의 불규칙 활용과 명령형 종결어미의 교체 현상

1. 한글 맞춤법 제18장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예)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예) 굶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오니, 나았다

3)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예)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2. 명령형 어미

1) -아라 : ‘가다’, ‘오다’를 제외한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동사 뒤에 쓴다.

예) 내 손을 꼭 잡아라. 그것을 잘 보아라.

2) -어라 :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동사 뒤에 쓴다.

예) 천천히 먹어라. 어서 씻어라.

3) -여라 : ‘하다’ 동사 뒤에 쓴다.

예) 열심히 공부하여라.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4) -거라 : ‘가다’ 동사 뒤에 쓴다.

예) 어서 가거라. 그만 물러가거라.

5) -너라 : ‘오다’ 동사 뒤에 쓴다.

예) 이리 오너라. 어서 나오너라.

웃다	젓다	묻다(問)	오다
웃고	젓고	묻고	오고
웃지	젓지	묻지	오지
①웃어라	②젓어라	③물어라	④와라
⑤웃거라	⑥젓거라	⑦묻거라	⑧오거라

*‘ㅅ’ 불규칙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한다. 예를 들어 ‘젓다’의 경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젓고’로 활용하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는 ‘저어’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간에 ‘ㅅ’을 가진 모든 용언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웃다’의 경우는 자음 어미가 오든 모음 어미가 오든 ‘웃고, 웃어’와 같이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ㄷ’ 불규칙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 ‘ㄷ’이 ‘ㄹ’로 바뀐다. 예를 들면 ‘묻다’ 동사가 ‘묻고, 물어’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다.

*명령형 종결어미인 ‘-아라/-어라’는 음운론적 이형태로서 용언 어간의 모음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 막아라/막어라. ‘-여라/-거라/-너라’는 형태론적 이형태로서 특정한 용언과만 결합하는 어미들이다. ‘-여라’는 ‘하다’동사, ‘-거라’는 ‘가다’동사, ‘-너라’는 ‘오다’ 동사와 결합한다. 예) 하여라/가거라/오너라.

*현대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곧 ‘-거라’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이 어미는

‘가다’ 동사와만 결합하던 것인데,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져 특별한 제약이 없이 동사 어간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다’ 동사의 영역에까지는 아직 영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거라’는 어색하다.

*‘오다’ 동사의 경우에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너라’를 취하며 ‘오너라’로 활용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활용형과 함께 ‘-아라’와 결합한 ‘와라(<오아라)’도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잘못된 활용형을 찾아보면 ‘젓어라’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서 ‘저어라’로 활용한다. ‘오거라’는 ‘오너라’로 활용해야 한다.

34번

‘연’을 포함한 한자어 단어를 발음할 때

긴소리로 발음 : 演(멀리 흐를 연), 練(익힐 연), 戀(사모할 연), 研(갈 연)

짧은소리로 발음 : 連(잇닿을 연)

*연예인(演藝人)[여:네인], 유사쓰임 : 연극(演劇)[연:극], 연기(連技)[연:기], 연출(演出)[연:출]

*연습(練習/鍊習)[연:습], 유사쓰임:연마(練馬)[연:마], 연병장(練兵場)[연:병장], 연철(練鐵)[연:철]

*연애(戀愛)[여:내], 유사쓰임 : 연가(戀歌)[연:가], 연서(戀書)[연:서], 연인(戀人)[여:닌]

*연속(連續)[연:속] 유사쓰임 : 연결(連結)[연:결], 연락(連絡)[연:락], 연련(連連)하다[연:련하다]

*연구(研究)[연:구] 유사쓰임 : 연마(研磨)[연:마], 연수(研修)[연:수], 연석(研席)[연:석]

35번 표준어 규정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강충-강충	강충-강충	큰말은 ‘깁충깁충’임 ←童(아이 동)-이. 귀-,
-동이	-동이	막-, 선-, 쌍-, 검-, 바람-, 흰-.
주추	주초	←柱礎. 주축-돌.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따리	또아리	
무	무우	~말랭이, ~생채, 총각~.
생-쥐	새앙-쥐	
온-갓	온-가지	

*오순도순 : 모음조화 현상이 깨짐에 따라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뀐 예로 ‘오순도순’이 표준

*또아리 : 본말은 잘 쓰이지 않게 되고 준말인 ‘따리’만 널리 쓰이게 된 경우

*안성마춤 : ‘마춤’과 ‘맞춤’은 ‘주문하다’일 때는 ‘마춤’으로 ‘맞게 하다’일 때는 ‘맞춤’으로 구별하여 쓰던 말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55항에서 이들을 ‘맞춤’으로 통일하여 쓰기로 함에 따라 ‘안성마춤→안성맞춤’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눈엣가시 :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뜻한다. 형태적으로 비슷하다 비표준어인 ‘귀엣고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엣고리, 귀고리’의 경우는 널리 쓰이는 ‘귀고리’를 단수 표준어로 정하였다(표준어 규정 제17항 참조). ‘눈엣가시’는 발음이 유사한 다른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말이 표준어다.

*흉칙스럽게 :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말로 ‘흉칙’은 ‘흉측’의 잘못이다. ‘흉칙스럽다, 흉측하다’로 써야 한다.

36번

*자리에 착석하다 : ‘착석(着席)’의 ‘蓆’ 자가 ‘자리’라는 뜻이므로 부사어 ‘자리에’와 뜻이 중복된다.

*짧게 약술하다 : ‘약술(略述)’의 ‘略’ 자가 ‘간략하다’는 뜻이므로 부사어 ‘짧게’와 뜻이 중복된다.

*돌이켜 회고하다 : ‘회고(回顧)’의 ‘回’ 자가 ‘돌이키다’는 뜻이므로 부사어 ‘돌이켜’와 뜻이 중복된다.

*오래된 염원 : ‘염원(念願)’에 사용된 한자는 ‘생각할 염(念), 원할 원(願)’ 자다. 이 글자들에는 관형어로 사용된 ‘오래된’과 뜻이 중복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성품이 좋은 호인 : ‘호인(好人)’의 ‘好’ 자가 ‘좋다’는 뜻이므로 관형어 ‘좋은’과 뜻이 중복된다.

37번

*생각이구만 : 감탄형 종결어미 ‘-구만’은 ‘-구먼’의 잘못이다.

*여보란듯이 : ‘여봐란듯이’의 잘못이다.

*밍기적거리다 : ‘몽그적거리다’의 비표전어로 ‘밍기적거리다’는 방언이고, ‘몽기적거리다’는 북한어다.

*훈꾸멍 : ‘훈구멍’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고, ‘훈구녕’은 방언이다. ‘훈꾸멍나다’는 속어이므로 ‘훈나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시령대는 : ‘구시령대는, 궁싯대는’이 바른표기다. ‘궁시령대다’는 방언이다.

38번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예)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예)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예) 나마, 부터, 조차

한글 맞춤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예) 값지다, 홀지다, 낫두리, 빛깔, 옆댕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예) 낚시, 늪정이, 덮개, 뜯게질

*마감 : ‘막+-암’으로 분석된다. 동사 ‘막다’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암’은 그렇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까마귀 : ‘깜+-아귀’로 분석된다. ‘깜다’는 석탄같이 밟고 질다는 뜻이지만 ‘-아귀’의 뜻은 불분명하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무덤 : ‘묻+-엄’으로 분석된다. ‘묻다’는 뜻이 분명한 반면, ‘-엄’은 그렇지 못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주검’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다.

*덮개 : 용언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다. 이럴 때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1항 참조).

*귀머거리 : ‘귀먹+-어리’로 분석된다. ‘귀가 먹다’의 뜻을 가진 합성 어근 ‘귀먹-’은 뜻이 분명한 반면, ‘-어리’는 그렇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39번

*아구짬 : ‘아귀짬’의 잘못이다.

*낙지전골 : ‘낙지전골’의 잘못이다. ‘낙시’와 혼동하여 ‘낙지’로 잘못 쓰는 경향이 있다.

*가자미식해 : ‘가자미식해’의 잘못이다. 대개의 경우 ‘쭈꾸미’로 쓰고 그렇게 발음하지만 잘못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육개장 : 올바른 어형이다. ‘육계장’으로 잘못 쓰는 경향이 있다.

*식혜(食醴)[시계/시게] : 밥알을 삶은 물에 설탕을 넣고 끓여 차게 식혀 먹는 전통 음료

*식해(食醴)[시개] :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

40번

‘-는데’와 ‘-는데’의 구별

1. -는데

1) 어떤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예)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2)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하는 종결 어미

예) 잘 달리는데.

2. -는데

1) 놀라거나 못마땅한 뜻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이 많은 책을 언제 읽는데?

2) '-는다고 해'가 줄어든 말

예) 서양 사람들도 김치를 잘 먹는데.

'-는데'는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 어미다. 연결 어미가 쓰인 문장은 '그런데'로 바꾸어 보면 뜻이 통한다. '-는데'로 띄워 쓸 경우에는 '데'가 의존명사로 쓰여 장소의 뜻을 나타낸다. '-는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뜻으로 쓰는 종결 어미다. '-는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41번. <보기>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제문	인터넷 중독 학생들은 자존감, 공격성, 우울 등의 면에서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상 독자	교육 담당자

독자 분석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나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접근 방법	독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인터넷 과잉 사용이 청소년의 자존감, 공격성, 우울 등과 같은 성격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 ①
자료 수집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조사한다. - ② -인터넷 중독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 -인터넷 중독과 성격 특성의 상관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설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③
내용 구성	-인터넷 중독의 정의와 실태를 제시한다. -인터넷 중독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④ -인터넷 중독과 자존감, 공격성, 우울 등의 성격 특성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검사 결과를 제시한다.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⑤

*문항해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연구보고서의 글쓰기 계획서다. 주제는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므로 상담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을 교육 담당자에 대한 분석, 접근 방법, 자료 수집, 내용 구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한다.

- ① 접근 방법으로서, 인터넷 과잉 사용이 청소년의 자존감, 공격성, 우울 등 성격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여 상담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바람직하다.
- ②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조사는 이 보고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므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 ③ 인터넷 중독과 성격 특성의 상관성을 보여 줄 때 독자는 상담 지도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에 대한 측정 도구를 설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 ④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한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 적합한 내용 구성이다.
- ⑤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글의 주제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42번. 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보기>의 개요를 작성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인터넷 중독의 정의 3. 인터넷 중독의 유형 4. 인터넷 중독과 성격 특성
2.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2. 측정 도구
3.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조사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특성 3. 인터넷 중독 학생 집단과 보통 학생 집단의 심리적 특성
4. 논의 및 결론	

- ①1-1에 현재 인터넷 중독의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 ②1-3에서 집중력 저하, 대인 기피증, 의사소통 장애 등과 같은 인터넷 중독의 종류를 설명한다.
- ③2-2에서는 실제 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 도구를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하여,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밝힌다.
- ④3-2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에 대하여 밝히고, 인터넷 중독 학생과 보통 학생 집단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⑤4 논의 및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문항해설

- ①1-1에서 인터넷 중독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연구의 필요성에 적합한 내용이다.
- ②1-3에서 ‘집중력 저하, 대인 기피증, 의사소통 장애’ 등 인터넷 중독의 종류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독의 종류로 제시한 예들이 적합하지 않다. 적절한 예는 인터넷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따위가 되어야 하며, ‘집중력 저하, 대인 기피증, 의사소통 장애’ 등은 중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③2-2 ‘측정도구’에서는 검사 도구에 대해 설명하여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밝힌다는 것인데 이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 ④3-2 ‘인터넷 사용 관련 특성’에서는 중독 학생과 보통 학생의 차이를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인터넷의 사용 횟수, 사용 시간, 사용 내용 따위를 분석해 보면 두 집단 사이의 사용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⑤‘4 논의 및 결론’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인터넷 중독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43번. 인터넷 사용에 관한 다양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끼리 묶은 것은?

<보기>	
1.	전국 중·고등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문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생활 적응력도 뛰어났다. (새소식 일보, 2002. 12. 16.)
2.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 676만 명 중 60만 명 정도는 넘쳐나는 유해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극단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새소식 일보, 2003. 3. 7.)
3.	10대 소녀가 인터넷 자살·자해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해 관련 사진과 경험담 등을 실은 동호회를 운영한 사건이 있었다. (새소식 일보, 2006. 11. 20.)
4.	인터넷 게임에 빠진 초등학생이 인터넷 전용선이 깔린 이웃집에 침입해 게임을 하려 다 들키자 주인을 흥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새소식 일보, 2006. 11. 20.)
5.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소식 일보, 2007. 11. 7.)

- ① 인터넷 이용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생활 적응력도 뛰어났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측면을 다룬 것이므로,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 중 일부는 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극단적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 ③ 10대 소녀가 인터넷 자살·자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다는 기사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 ④ 인터넷 게임에 빠진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하려고 이웃집을 침입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기사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 ⑤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기사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는 관련이 먼 내용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보고서를 쓸 때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 3, 4가 된다.

44번. 위의 글쓰기 계획과 개요를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보고서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 중 인터넷 중독 학생과 보통 이용 학생의 인터넷 사용 정도와 자존감, 공격성, 우울 사이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 392명의 학생들 중 205명은 중독 집단이고 187명은 보통 이용 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 자아존중감 척도, 공격 성향 척도이다. 2.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학생들은 보통 이용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빈도로 인터넷 게임, 채팅, 이메일, 위험 사이트, 인터넷 쇼핑에 접속했다. 3. 그리고 정보 검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인터넷 정상 사용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인터넷 중독 집단은 인터넷 보통 이용 집단에 비해 더 자포자기 하고 더 우울한 기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일반 사용자들보다 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5.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교육 현장에서 더욱 집중적인 상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① 연구의 주제와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② 인터넷 중독 학생 집단의 성격 특성을 보통 이용 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제시한다.
- ③ 조사 연구가 보고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연구의 대상과 기준 척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 ④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독자에게 학습자의 심리를 고려한 상담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⑤ 게임, 채팅 등 인터넷 사용 유형과 중독 집단의 성격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문항해설

<보기>의 요약문에서는 연구의 목적, 조사 대상자 집단에 대한 소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연구 결과를 정리해 두었다.

- ① 이것은 <보기> 요약문의 첫 문장에 나타나 있다.
- ② 연구 결과를 정리한 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반영되어 있다.
- ③ <보기>의 글에 조사 대상자와 기준 척도에 대한 설명이 잘 반영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는 중학생 392명이며, 사용 척도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이고, 척도는 자아 존중감 척도, 공격 성향 척도라고 하였다.
- ④ <보기>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반영하였다.
- ⑤ 인터넷 사용 유형과 중독 집단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자는 공격성을 보이는 반면, 채팅 중독자는 자존감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 중독자와 보통 사용자 사이의 성격 특성을 비교한 것일 뿐이다.

45번. 위의 요약문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1. 주어와 서술어의 흥이 맞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와 같이 수정해 주는 것이 좋다.
- 2. 2. 앞부분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문단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 3. 3. 글의 흐름을 고려하였을 때 앞의 내용과 반대되므로 그러므로 고쳐 주는 것이 좋다.
- 4. 4. 인터넷 중독과 공격성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한다.
- 5. 5. 의미상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보이는 것이므로 또는 나타내는 것이므로와 같이 수정해 주는 것이 좋다.

*문항해설

- 1. 1. : 고쳐 쓰기 전의 문장은 ‘본 연구의 목적은 ~ 연구하고자 하였다’인데, 이것은 주술관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서술어 쪽을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2. 2. : 앞부분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요약하였다. 뒷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따라서 2.부터 문단을 구분하여 연구 결과가 한 문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 : 중독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높은 빈도로 게임, 채팅,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정보 검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내용이 상반되므로 '그리고' 대신 '그러나'를 써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4. 4. : 주제문에서 인터넷 중독 학생들은 자존감, 공격성, 우울 등 부정적 성격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앞부분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지적했고, 뒷부분에서는 우울 증세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4.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5. :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라는 표현은 비슷한 의미가 중복된 것이므로 두 개의 서술어 중에서 하나를 삭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서술어 '보인다는 것'은 안긴문장의 주어인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와 호응하고, '나타내는 것'은 안은문장의 주어인 '이 결과는'과 호응한다.

제12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 *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 * 마냥: 언제까지나 줄곧, 부족함이 없이 실컷, 보통의 정도를 넘어 몹시.
- * 내쳐: 어떤 일 끝에 더 나아가, 줄곧 한결같이
- * 그저: 1. 변함없이 이제까지. 예: 그는 하루 종일 그저 잠만 자고 있다. 2.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예: 그는 묻는 말에 그저 예, 예 하며

대답하였다. 3. (그러나, 그러하다 따위와 함께) 별로 신기한 일 없이. 예: 요새는 그저 그렇습니다. 4. 어쨌든지 무조건. 예: 그저 네가 참아라.

- 5.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예: 그저 한번 해 본 말이다. 6.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듯. 예: 내 그저 그럴 줄 알았

지.

- * 줄곧: 끊임없이 잇따라.

17번

적벽가(赤壁歌) : 판소리 열두 마당 중의 하나.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수궁가, 흥보가, 그리고 적벽가. 이 중 적벽가는

붉은 절벽, 즉 적벽에서의 전투를 소재로 하여 만든 것.

18번

- * 짜장: 과연 정말로.
- 예: 기를 쓰고 가르쳐 본땀자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짜장 헛된 이야기만도 아닌 셈이었다.
- * 욱지기: 욱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아니라 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다.
- 예: 종세는 너무 먹어 한 발짝 걷자 욱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 * 진저리: 차가운 것이 몸에 닿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에, 또는 오줌을 눈 뒤에 으스스 떠는 몸짓, 또는 몹시 싫증나거나 귀찮아 떨쳐지는 몸짓.
- 예> 영애는 언석의 모양과 행동에 대하여 진저리를 칠 만큼 무섭고 불쾌하였다.
- * 노랑으로: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
- 예: 땅에 웅승그리고 시적시적 노랑으로 땅만 폼다.
- * 괴괴하다: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하다.
- 예: 사방은 쥐죽은 듯 괴괴하다.

19번

여부(與否):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

예: 생사 여부, 찬반 여부, 구속 여부, 수사 여부

유무(有無): 있음과 없음. 잘못의 유무를 따지다.

예: 증거 유무.

20번

빙글빙글: 입을 조금 크게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자꾸 웃는 모양.

싱글싱글: 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

새실새실: 점잖지 아니하게 자꾸 까불며 웃는 모양 혹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는 모양.

히죽히죽: 만족스러운 듯이 슬쩍 자꾸 웃는 모양.

헤실바실: 모르는 사이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모양 혹은 일하는 것이 시원스럽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모양.

21번

* 드리다: 1) 주다의 높임말. 2)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결의, 축하 따위를 하다. 3) 신에게 비는 일을 하다.

2. 섞인 잡것을 없애기 위하여 떨어 놓은 곡식을 바람에 날리다.

3. 1) 여러 가닥의 실이나 끈을 하나로 땋거나 꼬다.

2) 땋은 머리끝에 땡기를 물리다.

4. 집에 문, 마루, 벽장, 광 따위를 만들거나 구조를 바꾸어 꾸미다.

5. 물건 팔기를 그만두고 가게 문을 닫다.

* 내다: 연기나 불길이 아궁이로 되돌아 나오다. 가게 따위를 새로 차리다. 거름 따위를 논밭에 가져가다. 모나 모종을 옮겨 심다.

* 주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

다.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내다.

* 접다: 첩이나 종이 따위를 꺾어서 겹치다. 일정한 방식으로 겹쳐지게 꺾어 무엇을 만들다. 찢던 것을 본래의 모양으로 되게 하다. 자기의 의

견이나 주장 따위를 미루어 두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이해하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상대할 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자기 수

준을 낮추어 주거나 그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하다.

* 물리다: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 나다. 굿 따위를 하여 귀신을 쫓아내다. 안들렛간 밖으로 틈간을 만들다.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

다.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자리로 옮겨 가게 하거나 옮겨 놓다.

22번

* 걸다: 일하는 솜씨가 좋다.

예: 그 일꾼은 손이 아주 걸다.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영양분이 많다.

예: 퇴비로 덕분에 땅이 걸다.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이 식당은 반찬이 걸다.

23번

* 피격(被擊): 습격이나 사격을 받음.

* 피살(被殺): 죽임을 당함.

* 살해(殺害): 사람을 해치어 죽임.

* 사살(射殺): 활이나 총 따위로 쏘아 죽임.

24번

- * 고양이 쫓던 개: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같이 애쓰다가 남에게 뒤져 어쩔 도리 없이 민망하게 됨을 이르는 말.
- * 고양이 털 낸다: 아무리 모양을 내더라도 제 본색은 감추지 못한다는 말.
- * 과부 집 수고양이 같다: 조용한 밤중에 수고양이가 울면 옆집 사람들이 갓난아기 울음소리로 알고 과부가 어린애를 낳은 줄로 의심한다는 뜻으

로 아무 근거도 없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

- * 구멍을 파는 데는 칼이 끌만 못하고 쥐 잡는 데는 천리마가 고양이만 못하다.
- ㄱ. 무엇이나 제구실이 따로 있고, 쓰이는 데가 각각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ㄴ. 아무리 귀하고 값진 물건이라도 제 용도에 쓰이지 않으면 별로 빛을 낼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ㄷ.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일 못하는 늙은이 쥐 못 잡는 고양이도 있으면 낫다: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던 것이 나름대로 쓸 데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입 가리고 고양이 흉내: 얄은피로 남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번

- * 보좌(補佐)하다: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하다=돕다
- * 협동(協同)하다: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다=돕다
- * 조력(助力)하다: 힘을 써 도와주다=돕다
- * 부양(扶養)하다: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다=돕다와 바꾸어 쓸 수 없음.
- * 구호(救護)하다: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다=돕다

26번

띄어쓰기 원리

-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
- *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보조 용언은 띄어 쓰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 * 의존 명사, 감탄사, 본용언, 보조 용언은 모두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보조사는 조사의 일종으로 역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규정에 의해 앞

말에 붙여 쓴다.

27번

- * '에다'와 '에이다'는 능동사와 피동사의 관계일 때만 표준어가 된다.
- 에다 1) 칼 따위로 도려내듯 베다. 2)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다.
- 에이다 1) '에다 1)'의 피동사 2) '에다 2)'의 피동사
- 예: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 * '살을 에이는'은 잘못된 표현
- * (불에) '데이다'는 (불에) '데다'의 잘못이다.
- '데였구나'는 '데었구나'로 고쳐 써야 한다.
- * '이래 봐도'는 '이래 봐도'의 잘못이다.
- * '밤을 새다'는 '밤을 새우다'의 잘못이다.
- * 돋구다: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
- 예: 안경의 도수를 돋구었더니 글씨가 잘 보인다.
- 돋구다: '돋우다'의 잘못.
- 예: 봄나물이 입맛을 돋군다.(→ 돋군다.)
- * 본말→ 준말: '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새쓰'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되어→ 돼
- 뵈어→ 뵘
- 썩어→ 썩
- 되었다→ 됐다
- 뵈었다→ 뵘다

씨었다-> 썼다

28번

* 안간힘[안간힘]: 안+간힘(합성어). '간힘'은 숨을 억지로 참으며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을 뜻하는 고유어다. 두 고유어 사이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 예사소리인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 인기척[인기척]: 인(人)+기척(합성어). 두 단어 사이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 예사소리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 된다.

* 흠집[흠:집]: 흠+집(합성어). 사잇소리가 개재하여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 관건[관건](關健):문빗장과 자물쇠. 두 말이 대등적인 관계를 이루는 한자어 합성어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모순(矛盾)[모순], 천지(天地)[천지], 전답(田畓)[전답]

* 교과서[교:과서] 교과(敎課)[교:과]는 예사소리로 발음하여야 하지만 [교:과]와 같이 된소리로 잘못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29번

* family(패밀리)의 f와 victory(빅토리)의 v는 각각 표,브으로 표기한다. l과 r은 모두 르로 적는다.

* coffee(커피), phone(폰)의 f 음운에 대하여 표으로 적는다.

* market(마켓)의 t와 shop(숍)의 p는 어두에서는 트,포으로 표기되지만 어말에서는 중화되어 쓸 수 있는 것처럼 외래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드대

신 스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 paris(파리), cafe(카페)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파리, 카페로 적는다.

* web[web]은 원칙에 따르자면 '웹브'로 적어야 할 것이나 이미 굳어져서 쓰이는 관용을 존중하여 웹으로 적는다.

mobile은 외래어가 아니라 이동으로 순화되어야 할 외국어이다.

30번

* 기장: 옷의 길이(고유어)

* 우동: 일본어에서 온 말이며, 가락국수로 순화

* 다이: 일본어에서 온 말이며, 받침으로 순화

* 기스: 일본어에서 온 말이며, 흠으로 순화

* 가지: 일본어에서 온 말이며 양복의 옷감을 가리킴.

31번

*청량리[청냥니]: Cheongnyangni

*동성로[동성노]: Dongseongno

*을지로[일찌로]: Euljiro 2-ga

*해운대: Haeundae 또는 Hae-undae

*망월동: Mangwol-dong

32번

* 먹을 만하다.(용언과 만하다의 결합이므로 띄어 씀)

* 이해할 만은 하다.(용언과 의존 명사 만의 결합이므로 띄어 씀)

* 고향만은 못해도(만이 체언 뒤에서 비교의 뜻을 나타내므로 ㅏ로 보조사다. 고향만은 못해도로 붙여써야 한다.)

* 얼마 만인가.(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두 시간 만에(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두 시간 뒤에 쓰인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33번

* 얼굴이 피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진다. -> 핀다, 피었다, 폼다

* 논리를 펴다: 상대방이 동의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주장한다는 뜻이다. -> 펴고, 펴다

* 바람을 피우다: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진다. -> 피우는, 피우다

- * 불을 피우다: 불이 일어나게 하다. -> 피우면, 피우다
- * 이부자리를 펴다: 접히거나 개킨 이불을 젖혀 벌린다. -> 폼다, 펴다

34번

- * 부상(負傷)[부:상]
- * 부채[부채]
- * 부분적(部分的)[부분적]
- * 부자지간(父子之間)[부자지간]
- * 부족(不足)하다[부조카다]

35번

'모든'의 품사 분로

- * 문장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관형사
- * 홀로 쓰일 수 있다=자립어
- * 주어/목적어/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수식어
-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을 수식한다=관형사

36번

- * 도무지 집에 갈 길이 없다-> 도무지 집에 갈 방도가 없다.
길을 방도로 수정하여 도로의 뜻은 사라졌다.
- * 그가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 중의성 해소를 위해 그가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로 고쳐야 함.
- * 나는 어제 영수를 때리지 않았다.-> 나는 어제는 영수를 때리지 않았다.
어제를 어제는으로 수정하여 시간만 부정하는 문장이 되게 하였다.
- * 좋은 친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친구와의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좋은 친구의 기억은 친구에 대한 좋은 기억 또는 친구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일 수 있으므로 수정하여 중의성을 해소하였다.
- * 동생은 울면서 들어오는 언니를 보았다.-> 동생은 울면서, 들어오는 언니를 보았다.
동생은 울면서, 와 같이 심표를 사용하여 우는 동작이 동생에게만 국한되게 잘 고쳤다.

37번

- * 반듯이: 꼭, 틀림없이.
반드시 준수하다
- * 삼가다: 기본형이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이다.
절대 삼가다.
- * 일체: 명사로서 모든 것을 뜻함.
일절: 부사로서 아주, 전혀를 뜻함.
일체의 책임.
- * 붙이다: 서로 맞닿아서 붙다. -> 원형을 밝혀 '붙이다'로 씀.
부치다: 서로 맞닿아서 붙는다는 뜻이 아닐 때는 소리 나는 대로 '부치다'로 씀.
안건으로 부치다.
- * 깨끗이: '하다'를 제외한 어근의 끝 소리가 ㅅ일 때는 [이]로 소리가 나므로 '이'로 씀.
깨끗이, 반듯이, 뚜렷이

38번

- * 작열(灼熱)[장열]: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 * 작렬(炸裂)[장열]: 포탄 따위가 터져서 짹 퍼짐.

39번

- * 오히려: (준말) 외려, 외레, 외레
- * 도리어: (준말) 되려, 되레

40번

- * 멧적다: 멧쩍다의 잘못. 멧쩍다/멧적다로 표기가 다름.

- *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는의 잘못.
- *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는의 잘못.
- * 널부러지다: 널브러지다는의 잘못.
- * 시답잖다: 시답지 않다는의 줄임말로, 올바른 표기.

제13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 ① '긱은' 형용사 '긱다'를 활용한 것. '안좋고 나쁘다'는 의미를 가짐. 이런 경우 '긱은 소리'처럼 띄워 써야 함.
 ② '흰소리'는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③ '불멘소리'는 '서운하거나 성이 나서 통명스럽게 하는 말투'
 ④ '신소리'는 '상대편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
 ⑤ '입찬소리'는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17.

* 오르다

[1] [~에, ~을]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2] [~에] ①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② 탈것에 타다

③ 어떤 정도에 달하다

④ 길을 떠나다

⑤ 물에서 육지로 옮다

⑥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⑦ 식탁, 도마 따위에 놓여지다.

18.

* 옹골차다 = 옹치다/골차다 : 실속이 있게 껍 차 있는 것.

19.

보기의 '회사(會捨)'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것을 이룸

- ① '쾌척(快擲)'은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놓음을 의미하는 말. '회사'의 사전적 의미와 매우 유사, 대체해서 사용해도 무방.
- ② '시여(施與)'는 남에게 물건을 거저 줌이라는 의미.
- ③ '사사(私事)'는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말 혹은 사죄하는 말
- ④ '기부(寄附)'는 어떤 물건을 준다는 의미
- ⑤ '사절(斜截)'은 베풀어 줌의 의미를 가짐.

*사사받다(X)/ 사사하다(O)

'사사()'는 스승으로 삼고 여기다,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는 의미 .

사사라는 한자어 속에 가르침을 받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사사받다'가 되면 의미 중복이 되어서 '~을 사사하다'라고 표현해야 함.

20.

- ① '곰실곰실'은 '작은 벌레 따위가 한데 어우러져 조금씩 굵뜨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② '몽글몽글'은 '덩이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러운 느낌'
- ③ '바작바작'은 '물기가 적은 잇달아 씹거나 뺑는 소리, 열이 심하거나 몹시 초조하여 입술이 자꾸 마르는 모양'
- ④ '술렁술렁'은 '자꾸 어수선하게 소란이 이는 모양'을 이르는 말
- ⑤ '포슬포슬'은 '덩이진 가루 따위가 물기가 적어 엉기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21.

- ① '쫄쫄하다'는 '품질이나 수준, 정도 따위 웬만하여 기대 이상이다'
- ② '흠흠하다'는 '얼굴에 흐뭇한 표정을 띠고 있다'
- '함함하다'는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 소담하고 탐스럽다'
- ③ '찬찬하다'와 '천천하다'는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않고 느릿하다'
- ④ '맥맥하다'는 '코가 막혀 숨쉬기가 갑갑하다, 생각이 잘 들지 아니하여 답답하다, 기운이 막혀 갑갑하다'
- ⑤ '문문하다'는 '무르고 부드럽다, 어려움 없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 '만만하다'는 '연하고 보드랍다,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22.

- ① '다리가 길다'는 '음식 먹는 자리에 우연히 가게 되어 먹을 복이 있다.'
- ② '발이 잦다'는 '어떤 곳에 자주 다니다'
- ③ '목에 힘주다'는 거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 ④ '손(길)을 뻗치다'는 '적극적인 도움, 요구, 침략, 간섭 따위의 행위가 미치다'
- ⑤ '눈에서 황이 나다'는 '몹시 억울하거나 질투가 날 때 이르는 말'

23.

속담 '가마 타고 옷고름 단다'

-> '가마를 탄다'는 여인이 외출을 한다는 의미, '옷고름을 단다'는 표현은 외출을 위해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는 의미' 따라서 옷고름을 다는 행위는 가마를 타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준비과정. 하지만 이 속담은 상황이 역전된 상태. 그래서 준비 이 허둥대거나 경황이 없는 경우

24.

ㄱ은 '오랫동안'이라는 의미와 '문학이나 예술 작품'의 의미가 두드러짐. '()''
 ㄴ은 '예부터'와 '전해 내려옴'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지므로 '()'와 함께 '(전하다 전)'으로 표기
 ㄷ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짐. '(쓰다 고)'와 '(싸우다 전)'으로 표기

25.

'건조'는 '말라서 습기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 ' (하늘 전, 말리다 조)'를 써야함.

*출제된 한자

- '乾 (하늘 건)'
- '燥 (마르다 조)'
- '加(더하다 가)'
- '濕(촉촉하다 습)'
- '器(기계, 가구 기)'
- '換(바꾸다 환)'
- '汚(더럽다 오)'
- '染(물들이다 염)'
- '保(보존하다 보)'
- '管(말다 관)'

26.

- ① '상치'는 '상추'의 잘못된 표기법.
- ② '설농탕'은 '설령탕'이 맞는 표기법
- ③ '김치찌개'가 맞는 표기법

⑤'육개장'이 표준어.

27.

①'뽕'은 의존명사와 조사로 사용됨. '들었을뽕'의 경우 '뽕'이 관형사형 어미 뒤에 사용되었으므로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들었을'과 '뽕'은 품사가 달라 띄어 써야 함.

'실력 뽕이다'의 경우는 '뽕'이 '실력'이라는 명사 뒤에 사용되었고, '이다'는 서술적 조사와 중첩 사용되었으므로 보조사. 따라서 '실력뽕이다'라고 붙여써야 함.

②'차'는 의존명사와 접사로 사용됨. '들리던 차에'처럼 띄어쓰기

③'만난 지도'라고 띄어쓰기

28.

'뺨치다'는 '뺨다'를 강조하여 쓰는 말

'뺨히다'는 '뺨다'의 피동사

'뺨치다'는 '뺨치다'를 잘 못 쓴 것.

29.

①'무청'은 표준어. '고등'은 '고등'의 방언

②'정구지'는 '부추'가 표준어. '전갱이'는 표준어

③'시래기'와 '도다리'는 표준어

④'우거지'는 표준어. '올갱이'는 '다슬기'의 방언

⑤'매생이'는 표준어, '빠가사리'는 '동자개'의 방언

30.

①'먹통'은 '멍청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표준어

②'시방'은 지금을 뜻하는 말. 명사와 부사로 사용되는 표준어.

③'식겁하다'는 '뜻밖에 놀라 겁을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

④'육보다'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몹시 고생스러운 일을 겪다, 강간을 당하다'의 의미를 가진 표준어.

⑤'얼척'은 '어처구니'의 방언으로 비표준어

31.

①'휴계실'은 잘못된 표기. '휴게실'이 맞는 표기

②'돌맹이'가 표준어

③'돛자리'가 표준어

④'설겅이'가 표준어

32.

①'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②'있다가'가 아니라 '이따가'가 맞는 표현

③'반듯이'와 '지긋이'는 '반듯하다', '지긋하다'의 어근임.

33.

*부치다

-(~에게)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을 ~에)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마음이나 정 따위를 다른 것에 의지하여 대신 나타내다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에)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내다. 주로 글의 제목이나 부제에 많이 쓰이는 말

34.

①수식의 모호성 :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와 꾸미는 수식어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모호성. 대부분 수식어가 길게 나열되어 수식어가 꾸미는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해져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해결할 수 있음.

②비교 구문의 모호성 : 비교 대상의 대칭성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대상의 총위, 범주, 위상 등이 일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호성. 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됨.

③병렬 구문의 모호성 : 병렬 구문에서 사용되는 조사의 앞뒤에 연결된 말들이 총체적 의미 혹은 개별적 의미로 해석되어 발생하게 되는 모호성. 조사에 연결되는 아휘의 말들을 굵적으로 제한해 줌으로써 이런 모호성 해결.

④의존 명사 구문의 모호성 : '것'과 같이 명사화 구성을 하는 의존 명사가 다른 내포적 의미를 갖는 경우 발생하는 모호성. 의존 명사를 활용한 과도한 명사화 구성은 지양

⑤부정문의 모호성 : 부정하는 대상과 부정어의 거리가 멀어 부정의 대상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35.

①'이름'이 수정난풀이라고 붙였다'는 틀림. '이름을'이 맞음

36.

*맛

-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 느끼는 감각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 체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 '음식'의 옛말

*멋

- 차림새, 행동, 됃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
-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

*걸다01

-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이 많다
- 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 말씨나 숨씨가 거리낌이 없고 푸지다

*걸다02

-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무릎을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솔이나 냄비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깎다

- 칼 따위로 물건의 가죽이나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 체면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다
- 구기 종목에서 공을 옆으로 힘있게 치거나 차서 돌게 하다
- 주었던 권력이나 지위를 빼앗다.

*꺾다

- 길고 탄력이 있거나 단단한 물체를 구부려 다시 펴지지 않게 하거나 아주 끊어지게 하다
- 얇은 물체를 구부리거나 굽히다
- 생각이나 기운 따위를 제대로 펴지 못하게 억누르다

37.

- ①의정부 Uijeongbu
- ③판문점 Panmunjeom
- ⑤신례 Sillye

*로마자 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ㅝ	ㅞ	ㅟ	ㅠ
A	Eo	O	U	Eu	I	Ae	E	Oe	Wi				

2.이중 모음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Wi

붙임1. '기'는 'I'로 소리나더라도 'wi'로 적는다.

광화문 Gwanghmun

붙임2. 장모음은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ㅌ	ㅍ	ㅂ	ㅃ	ㅍ
G,k	Kk	K	D,t	Tt	T	B,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	---	---

S	Ss	H
---	----	---

4.비음

ㄴ	ㄹ	ㅇ
---	---	---

N	M	Ng
---	---	----

5.유음

ㄹ

R,l

38.

*외래어 표기법

제 1장 : 표기의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 3장 제1절

제1절 영어 표기

※ 표 1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1항 무성 파열음 ([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gap[gæp] 갭
- cat[kæt] 캣
- book[buk] 북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apt[æpt] 앵트
- setback[setbæk] 셋백
- act[ækt] 액트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 stamp[stæmp] 스탬프
- cape[keip] 케이프
- nest[nest] 네스트
- part[pɑ:t] 파트
- desk[desk] 데스크
- make[meik] 메이크
- apple[æpl] 애플
-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 chipmunk[tʰipmʰŋk] 치프멍크
- sickness[siknis] 시크니스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 bulb[bʰb] 벌브
- land[lænd] 랜드
- zigzag[zigzæg] 지그재그
- lobster[lʰbstʰ] 로브스터
- kidnap[kidnæp] 키드냅
- signal[signʰ] 시그널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 mask[mɑ:sk] 마스크
- jazz[dʰæz] 재즈
- graph[græf] 그래프
- olive[ʰliv] 올리브
- thrill[θril] 스릴
- bathe[beið] 베이드

2. 어말의 [ʔ]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ʔ]는 '슈'로, 모음 앞의 [ʔ]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 flash[flæʔ] 플래시
- shrub[ʔrʔb] 슈러브
- shark[ʔɑ:k] 샤크
- shank[ʔæŋk] 생크
- fashion[fæʔʔn] 패션
- sheriff[ʔerif] 셰리프
- shopping[ʔʔpiŋ] 쇼핑
- shoe[ʔu:] 슈
- shim[ʔim] 심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ʔ]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ʔ]는 '지'으로 적는다.

- mirage[mira:ʔ] 미라지
- vision[viʔʔn] 비전

제4항 파찰음([ts], [dz], [tʔ], [dʔ])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ʔ], [dʔ]는 '치', '지'로 적는다.

- Keats[ki:ts] 키츠
- odds[ʔdz] 오즈
- switch[switʔ] 스위치
- bridge[bridʔ] 브리지
- Pittsburgh[pitsbʔ:g] 피츠버그
- hitchhike[hitʔhaik] 히치하이크

2. 모음 앞의 [tʔ], [dʔ]는 '츠', '지'으로 적는다.

- chart[tʔɑ:t] 차트
- virgin[vʔ:dʔin] 버진

제5항 비음([m], [n], [ŋ])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 steam[sti:m] 스팀
- corn[kʔ:n] 콘
- ring[riŋ] 링
- lamp[læmp] 램프
- hint[hint] 힌트
- ink[iŋk] 잉크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 hanging[hæŋiŋ] 행잉
- longing[lʔŋiŋ] 롱잉

제6항 유음([l])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 hotel[houtel] 호텔
- pulp[pʔlp] 펄프

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르'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르'로 적는다.

- slide[slaid] 슬라이드
- film[filɹm] 필름
- helm[helɹm] 헬름
- swoln[swoulɹn] 스월른
- Hamlet[hæmlit] 햄릿
- Henley[henli] 헨리

제7항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team[ti:m] 팀
- route[ru:t] 루트

제8항 중모음⁽²⁾ ([ai], [au], [ei], [ʔi], [ou], [auʔ])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ʔ]는 '아워'로 적는다.

- time[taim] 타임
- house[haus] 하우스
- skate[skeit] 스케이트
- oil[?il] 오일
- boat[bout] 보트
- tower[tau?] 타워

제9항 반모음([w], [j])

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ʔ], [wʔ], [wou]는 '워', [wa]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 word[wʔ:d] 워드
- want[wʔnt] 원트
- woe[wou] 워
- wander[wandʔ] 완더
- wag[wæg] 왜그
- west[west] 웨스트
- witch[witʔ] 위치
- wool[wul] 울

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 swing[swiŋ] 스윙
- twist[twist] 트위스트
- penguin[peŋgwiŋ] 펭귄
- whistle[hwisl] 휘슬
- quarter[kwʔ:tʔ] 쿼터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애', '여', '에',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ʔ]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 yard[ja:d] 야드
- yank[jæŋk] 앵크
- yearn[jʔ:n] 연
- yellow[jelou] 옐로
- yawn[jʔ:n] 운
- you[ju:] 유
- year[jiʔ] 이어
- Indian[indjʔn] 인디언
- battalion[bʔ:tæljʔn] 버탈리언
- union[ju:njʔn] 유니언

제10항 복합어⁽³⁾

1.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cuplike[kʔplaik] 컵라이크
- bookend[bukend] 북엔드
-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 touchwood[tʔtʔwud] 터치우드
- sit-in[sitin] 시인
- bookmaker[bukmeikʔ] 북메이커
- flashgun[flæʔgʔn] 플래시건
- topknot[tʔpnʔt] 톱낫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 Los Alamos[lʔs ælʔmous] 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 top class[tʔpk 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39.

- ①'돌잡이' 첫돌에 돌상을 차리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일
'손잡이' 손으로 어떤 것을 열거나 들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
②'칼잡이'와 '키잡이'는 무엇을 다루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어사

- ③'길잡이'는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나 사물
- ⑤'안경잡이'는 안경을 쓴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40.

- ①시비(是非)는 시:비로 발음
시:인(是認), 시:정(是正), 시:일(是日),
- ②시:중(市中), 시:세(市勢) 시:장(市長) 시:정(市政)
- ③시:각차(視覺差), 시:력(視力) 시:선(視線) 시:찰(視察) 시:청(侍廳)
- ④시:련(試鍊) 시:료(試料) 시:승(試乘) 시:연(試演) 시:험(試驗)
- ⑤시:차(時差) 시:간(時間) 시:일(時日) 시:조(時調) 시:사(詩詞)

42. 퇴고의 원칙

- ①부가의 원칙(부족하거나 첨가해야 할 내용을 덧붙이는 것)
- ②삭제의 원칙(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
- ③구성의 원칙(구성상의 재조정)

제14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

- 담담하다 ①차분하고 평온하다.
- ②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다.
 - ③물의 흐름 따위가 그윽하고 평온하다.
 - ④담백하다.
 - ⑤어떤 느낌이나 무엇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다.

17.

- 철석 : 쇠와 돌처럼 굳고 단단함
- 입추 : 송곳을 세움
- 소정 : 정해진 바
- 황사 : 뜻밖의 재앙으로 죽음
- 절찬리 : 지극한 칭찬을 받는 가운데

18.

- 오랫동안 칼을 버려 왔다.
- *칼을 버리다 : 1. 싸움이나 침략 따위를 준비하다. 2. 복수를 준비하다.
- 그는 칼을 품은 채 살아 왔다.
- *칼을 품다 : 살의를 품다.
- 변 사또는 춘향에게 칼을 씌웠다.
- *칼을 씌우다 : 죄인이 칼의 구멍에 목을 넣게 하다.

19.

섬벅섬벅 : '숨벅숨벅'의 잘못

할금할금 : 결눈으로 살그머니 계속 할겨 보는 모양.

조롱조롱 :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같은 말 : 조랑조랑)

상글상글 :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

쌈벅쌈벅 : 눈꺼풀을 움직이며 눈을 자꾸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21.

중개 :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

중계 : 중간에서 이어 줌

중매 :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중재 :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22.

들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

-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

아이가 감기가 들어 요즘 병원에 다닌다.

-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그는 요즘 부쩍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

- 나이가 많아지다.

여름이 되자 복숭아가 맛이 알맞게 들었다.

-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

그녀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23.

얄밧다 : 말이나 행동이 약빠르고 밧다.

잔밧다 : 몹시 얄밧다.

가붓하다 : 조금 가벼운 듯하다.

얄망긧다 :성질이나 태도가 괴상하고 까다로워 얄미운 데가 있다.

밧살밧다 : '밧살스럽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뇌꼴스럽다 : 보기에 아니꼽고 얄미우며 못마땅한 데가 있다.

24.

타계(他界) : 인간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 특히 귀인의 죽음을 이르는 말

작고(作故) : 고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잔망(孱妄) : 얄밧도록 맹랑함. 또는 그런 짓.

서거(戩妄) : '사거(죽어서 세상을 떠남)'의 높임말.

운명(殞命) :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별세(別世) :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

25.

미쁘다 : 믿음성이 있다.

거나하다 : 술 따위에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 있다.

몽근하다 :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다.

알싸하다 :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콧속이나 혀끝이 알알하다.

수더분하다 : 성질이 까다롭지 아니하여 순하고 무던하다.

26. 암니옴니 : 자질구레한 일에 대하여까지 줌스럽게 셈하거나 따지는 모양.

애오라지 : '겨우' 또는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허방 : 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

고살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무릎맞춤 :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 삼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

27.

입을 막다 :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겐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

입을 맞추다 : 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

입을 모으다 :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

입을 씻다 : 이익 따위를 혼자 차지하거나 가로채고서는 시치미를 떼다.

28.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

별도 덤이 있다. : 별을 받을 때도 덤으로 더 받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물건을 받을 때에야 더 받지 않겠느냐는 말.

갈매기도 제 집이 있다. : 누구나 자기의 거처가 있다.

독 틈에도 웅소가 있다. : 독 틈에도 깊은 웅덩이가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지 남을 속이려 하는 수작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

까치집에 비둘기 들어 있다. :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똥밭에 이슬 내릴 때가 있다. :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좋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말.

29.

유의어 類義語

반의어 反意語

동음어 同音語

다의어 多義語

상하위어 上下位語

30.

부의금(賻儀金) : 부의로 보내는 돈

주례사(主禮辭) : 주례가 예식에서 행하는 의례적인 축사.

호적법(戶籍法) : 호적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법률

관혼상제(冠婚喪祭) : 관례(冠禮) · 혼례(婚禮) · 상례(喪禮) · 제례(祭禮)의 네 가지 예를 두고 말함

빙부상(聘父喪) : 장인어른의 상.

31.

싹뚝 : '싹뚝'의 잘못

철썩거리고

똑딱이는

짹짹하게

쓱쓱하기

32. 띄어쓰기

가족 외

어찌할 바

한문 투

비행 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십오 년 여 → 십오 년여

*'여'는 접미사. 붙여 쓴다.

비행 시

33.

한글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

그 외의 것은 '히'로 적는다.

극히, 작히, 엄격히, 열심히, 솔직히, 고요히, 꼼꼼히

-첨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는 '이'로 적는다.

간간이, 겹겹이, 땀땀이, 살살이, 툼툼이, 앞앞이

-'ㅅ'받침 뒤에서는 '이'로 적는다.

깨끗이, 반듯이, 산뜻이, 이젓이, 지긋이, 버젓이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서는 '이'로 적는다.

가벼이, 가까이, 새로이, 외로이, 즐거이, 기꺼이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는 '히'로 적는다.

-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가 줄어진 형태는 '히'로 적는다.

34. 비표준어

뽀두라지 / 뽀루지 : 뽀족하게 부어오른 작은 부스럼

쌍동밤 / 쪽밤('쌍동밤'의 잘못) : 한 껍데기 속에 두 쪽이 들어 있는 밤.

꼬리별 / 살별 : 가스 상태의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

땃돌 / 뿃돌 : 집채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 안쪽으로 돌려 가며 놓은 돌

여태 / 입때 :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35. 비표준어

거저 :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얼추 :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일루 : '이리'의 방언.

인제 : 바로 이때.

퍼뜩 : 어떤 생각이 갑자기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양.

36.

깜빡이 :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을 달리 이르는 말.

덩쿨 : '덩굴'의 잘못.

어쨌든 : '어쨌든'의 잘못.

남비 : '냄비'의 잘못.

떡볶기 : '떡볶이'의 잘못.

37.

출현 :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임.

가루다 : '가르다'의 잘못.

너머 :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

노름 :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혼동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38.

삭다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 → 삭이다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이 발효되어 맛이 들다. → 삭히다

39.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

나는 시험의 답을 몇 개 쓰지 못했다

회의에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지영이와 동호는 어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분별한 학생들의 해외 연수가 늘어나고 있다

40.

국내 뮤지컬의 연간 매출액은 한 해 20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전체 문화 산업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따라서 우리는 (뮤지컬을) 산업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좋은 뮤지컬을 위해서는 언론이 문화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알리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언론이' 문화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알리는 것이 언론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만약 언론이 줄거리와 공연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시대착오가 아니다.

41. 적절치 않은 용례

에 「조」 (체언 뒤에 붙어)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거리에 사람들이 많다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3. 앞말이 말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늘 기쁨에 넘치는 나날이었다
4.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5. 앞말이 기준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는 하루에 두 번씩 세수를 한다

42.

능동문과 비교할 때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피동작주에 초점이 가게 되어 탈 동작성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이 된다. 그런데 국어에는 탈동작성의 결과와 대응되는 능동문이 나타나지 않는 피동문들이 있다. '이런 피동문들'은 문장의 의미가 상황 의존성을 강하게 가져 동작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

1. 나의 소원이 풀리려나 보다.
2.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3. 짝궁이 밟아서 운동화 끈이 풀렸다.
4. 그녀의 표정을 보니 화가 풀린 모양이다.
5.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려서 은행 대출이 쉬워졌다.

1. '풀다(1.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의 피동사.
2. '풀다(2. 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그러뜨리다)'의 피동사.
3. '풀다(3.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해결하여 없애거나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의 피동사.

43.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

불독bulldog → 불도그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

브러쉬 brush → 브러시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애드리브 ad lib

락앤롤 rock'n'roll → 로큰롤

쇼트랙 short track → 쇼트트랙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44.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송아름 Song Arm → Song Areum

윤꽃님 Yun Kkotnim

서성택 Seo Sungtaik → Seo Seongtaek

배찬수 Bae Chansoo → Bae Chansu

한복녀 Han Bongnyeo → Han Boknyeo

45. '여'의 소리 길이가 긴 것

여차 / 여름 / 여권 / 여당 / 여운

제15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 * 길썬 : 길의 가장자리.흔히 풀이 나있는 곳을 가리킴
- * 시울 : 약간 굽거나 흰부분의 가장자리. 눈이나 입의 언저리를 이른다.
- * 거스러미 : 손발톱 뒤의 살 껍질이 가시처럼 얇게 터져 일어나는 부분
기계의 부품을 자르거나 깎은 뒤에 제품에 아직 그대로 붙어 남아 있는 쇳밥
- * 컷전 : 컷바퀴의 가장자리
- * 가넛 : = 가장자리

17번

- * 장사진 :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
한 줄로 길게 벌인 군진(軍陣)의 하나
- * 초미 :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에 비유하여 '매우 급함'을 의미
- * 분수령 : '한 근원의 물을 두 갈래로 가르는 산맥'에 비유하여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을 의미
- * 자충수 : '바둑에서 잘못 둔 수'에 비유하여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의미
- * 시금석 :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돌'에 비유하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를 의미
- * 무진장 :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
(불교) 덕이 넓어 끝이 없음
- * 백일몽 : 대낮에 꿈을 꾸다는 뜻으로,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공상
- * 불야성 : 등불 따위가 휘황하게 켜 있어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곳
- * 불모지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 ≒ 불모지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
- * 등용문 :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18번

* 시간어1

그꼬제, 그꼬저께	그제,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내일모레	글피
--------------	------------	----	----	----	-------------	----

* 시간어 2

시간어	의미
동짓달	음력 11월
선달	음력 12월
정월	음력 1월
초하루	매달 1일
삼진날	음력 삼월 초사흘날
백중	음력 칠월 보름
삭망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미명	날이 채 밝지 않은 때
어스름	조금 어두운 상태.
엿그제, 엿그저께	바로 며칠 전
나절	하루 낮의 절반쯤 되는 동안
한나절	하루 낮의 반

반나절	한나절의 반
한것	반나절
상오/ 하오	오전/ 오후

19번

- * 박장대소(拍掌大笑) :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 박소(拍笑)
- * 포복절도(抱腹絶倒) : 배를 그러안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웃음 ≙ 봉복절도
- * 고소(苦笑) : 쓴웃음
- * 냉소(冷笑) :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 찬웃음
- * 웃웃음 : 여러 사람과 함께 웃는 웃음 / 여러 사람에게 덧없이 짓는 웃음
- * 선웃음 : 우습지도 않은데 꾸며서 웃는 웃음

20번

- * 꼭 : (부사) 아무지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죄는 모양
힘들여 참거나 건디는 모양
드러나지 않게 단단히 숨거나 들어박히는 모양
- * 꼭 : (부사)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조금도 어김없이
아주 잘
매우 흡족하게
아주 비슷하게
- * 꼭 : (부사) 여무지게 힘을 주어 누러가나 죄는 모양
아주 힘들여 참거나 건디는 모양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단단히 숨거나 들어박히는 모양

21번

- * 관점(觀點)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 * 형질(形質) : 사물의 생긴 모양과 성질 ≙ 꼴바탕
(생물학적) 동식물의 모양, 크기, 성질 따위의 고유한 특징
- * 방향(方向) : 어떤 방위를 향한 쪽
어떤 뜻이나 현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쪽
- * 기질(氣質) : 기력과 체질을 이르는 말 ≙ 기성
(심리학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정한 유형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주는 개인의 성

격적 소질

22번

- * 맞다
- [1] ~을
: ①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② 적이나 어떤 세력에 대항하다
③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는 어떤 때를 대하다
④ 자연 현상에 따라 내리는 눈, 비 따위의 달음을 받다
⑤ 점수를 받다
- [2] ~에게 ~을
: 어떤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다
- [3] ~을 ~으로
: 가족의 일원으로 예를 갖추어 데려오다

23번

- * 추락(墜落)하다 : 위신이나 가치 따위가 떨어지다
- * 치료(治療)되다 : 병이나 상처 따위가 잘 다스려져 낫다

- * 함락(陷落)되다 : 적의 성, 요새, 진지 따위가 공격을 받아 무너지다
- * 감퇴(減退)되다 :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 쇠퇴되다
- * 부족(不足)하다 :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

24번

- * 물다

[1] ~을

- : ① 윗니나 아랫니 또는 양 입술 사이에 끼운 상태로 떨어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소 세게 누르다
- ②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 ③ 이, 반대, 모기 따위의 벌레가 주둥이 끝으로 살을 지르다
- ④ (속되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이나 사람을 차지하다.

[2] ~을 ~에

- : 입속에 넣어 두다

- * 물다

[1] ~에/에게 ~을

- : 값아야 할 것을 치르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으로 값아 주거나 본래의 상태로 해 주다

25번

- * 증풍 - 혈관 질환 : 상하관계
- * 나무 - 식물 : 상하관계
- * 사람 - 인간 : 유의 관계
- * 곤충 - 나비 : 상하 관계
- * 남쪽 - 북쪽 : 반의 관계
- * 형제 - 자매 : 유의 관계

26번

- * 이론(異論) : 다른 생각
이론(理論) : 사물의 이치를 해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 * 모색(摸索) :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찾음
cf. 모(慕) : 그리워할 모

27번

- * 염원(念願) : 원하고 바람
- * 풍습(風習) : 풍속과 습관
- * 덕담(德談) :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
- * 최면(催眠) : 잠이 들게 함
- * 축복(祝福) : 행복을 빚

28번

- *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 주마간산(走馬看山) :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
≡ 수박 겉핥기
- * 하석상대(下石上臺)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도 아랫돌 꺾는다. ≡ 상석하대
≡ 언 발에 오줌 누기
- * 금지옥엽(金枝玉葉) :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 ≡ 경지옥엽
≡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 * 삼순구식(三旬九食) :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
≡ 책력 보아 가며 밥 먹는다

29번

- * 가리를 틀다 : 잘되어 가는 일을 방해하다, 남의 횡재에 대하여 무리하게 한몫을 청하다

- * 학을 떼다 : 질려 버리다
- * 초로와 같다 : 인생 따위가 덧없다
- * 아귀가 맞다 :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다, 일정한 수량 따위가 들어맞다
- * 산통을 깨다 : 다 잘되어 가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다

30번 순화어

- * 템플릿 → 서식
- * 플랫폼 슈즈 → 납작구두
- * 함바 → 현장 식당
- * 아웃소싱 → 외주
- * 사보타주 → 태업

31번 사이시옷

* <사이시옷 표기의 원칙>

- ① 합성어를 이루는 두 단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만 표기함
- ② 합성어를 이루는 두 단어 중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함
- ③ 합성어를 이루는 두 단어 사이에 된소리가 나와 함 ex) 하교 + 길 = 하곶길

32번

- * 빙그레 (O)
- * 손사레 (X) → 손사래 (O)
- * 어슴푸레 (O)
- * 곤드레 (O)
- * 너스레 (O)

- * 가랭이 (X) → 가랑이 (O)
- * 가리마 (X) → 가르마 (O)
- * 간 (X) → 칸 (O)
- * 강남콩 (X) → 강낭콩 (O)
- * 개발새발(O) → 괴발개발 (O)
- * 개피(X) → 개비 (O)
- * 또아리(X) → 따리(O)
- * 텃곰치(X) → 뒤곰치 (O)
- * 뒤치닥거리(X) → 뒤치다꺼리 (O)
- * 머릿말(X) → 머리말 (O)
- * 무우(X) → 무 (O)
- * 안성마춤(X) → 안성맞춤 (O)
- * 삭월세(X) → 사글세 (O)
- * 여지껏(X) → 여태껏 (O)
- * 꼬깔 (X) → 고깔 (O)
- * 상처(X) → 상추 (O)
- * 생각컨대 (X) → 생각건대 (O)

33번 용언의 명사형

: 용언의 명사형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어 '이다'가 붙은 말을 임시로 명사처럼 바꿀 때나 명사형 종결문을 만들 때 쓴다.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에는 '-ㅁ/-음'과 '-기'가 있다. 이 중 '-기'는 쓰임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반면 '-ㅁ/ -음'은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쓰인다.

1) -ㅁ :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 'ㅂ' 불규칙 용언, 'ㅎ' 불규칙 용언의 어간,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에 쓰인다. ex) 가다 → 감, 꽃이다 → 꽃임. 것이다 → 것임

2) -음 : 어간에 받침이 있는 용언이나 'ㅅ' 불규칙 용언, 'ㄷ' 불규칙 용언에 쓰인다. ex) 있다 → 있음, 놓다 → 놓음, 낫다 → 나음, 걷다 → 걸음

- * 쉬다 → 쉬움
- * 그을다 → 그움
- * 놀다 → 높
- * 모질다 → 모짐
- * 서럽다 → 서러움

34번 띄어쓰기

- * 보고서를 만 3주 만에 완성했다 (O)
- : '만 3주'의 '만'은 '날, 주, 달, 해 따위의 일정한 기간이 꼭 참을 이르는 말인 관형사이므로 띄다.
- * 매 경기를 빠지지 않고 응원하였다 (O)
- : '매'는 '각각의'라는 뜻의 관형사로 띄어 쓴다.
- * 내 조카의 주 무기는 울며 떼쓰기다.
- : '주'는 '주요한, 일차적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뜻을 가진 관형사로 띄어 쓴다.
- * 당 열차는 30초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 : '당'은 '그', '바로'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므로 띄어 쓴다.
- * 대 북한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 : '대'는 '그것을 상대로' 또는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35번 표준어

- * 말짱(O) : 속속들이 모두
cf. 말장 : 가늘게 다듬어 깎아서 무슨 표가 되도록 박는 나무 말뚝
- * 딸랑(O) : 딸린 것이 적거나 단 하나만 있는 모양
- * 지지리(O) : 지긋지긋하게
- * 삐죽(O) : 얼굴이나 물건의 모습만 한 번 슬쩍 내밀거나 나타내는 모양
- * 얼렁(X) : '얼른'의 방언

36번 중의적 표현 해소

- * 그는 손을 뺐다 → 그는 사업에서 손을 뺐다 (O)
- * 그녀는 발을 디뎠다 → 그녀는 교육계에 발을 디뎠다 (O)
- * 그들은 입을 맞추었다 → 그들은 남몰래 입을 맞추었다 (X)
- : '입을 맞추다'라는 관용적 표현의 의미 때문에 중의적 문장이므로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
- * 그는 배가 아팠다 → 그는 친구의 합격 소식에 배가 아팠다 (O)
- * 그녀는 눈을 돌렸다 → 그녀는 이번에는 환경 문제로 눈을 돌렸다 (O)

37번 의미 중복

- * 차가운 냉기 (중복)
- * 어려운 난제 (중복)
- * 오래된 명승지 : '명승지'는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이란 뜻으로 의미 중복 X
- * 하얀 백발 (중복)
- * 가까운 측근 (중복)

38번 자연스러운 문장

- ① 질병 관리 본부는 여름철 눈병 확산 경고가 있었습니다.(X)
: 명사를 지나치게 나열
- ② 질병 관리 본부는 최근 조사 결과, 대구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성 결막염이 퍼지고 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X)
: 인과 관계 무시
- ③ 경기와 경남 지역에서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 ④ 우리나라의 해마다 눈병은 7월과 8월에 빠지지 않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X)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 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을 철저히 하고 더구나 눈 주위를 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X)
: 부사의 쓰임 오류

39번 필수적 부사어

: 국어의 부사어는 문장의 주성분이 아니지만 서술어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하는데, 이런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 * 두 사람은 아주 남남이 되어 버렸다. (부사)
- * 만약 내일도 비가 온다면 집에 있어야지. (부사)
- * 꼼꼼히 뜯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 흰하게 생겼다. (필수적 부사어)
- * 그 실력으로 과연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부사)
- *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사)

40번 높임법

* 상대높임법 :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격식체(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		비격식체(비공식적이고 부드러운 표현)	
하십시오체(합쇼체)	-(으)십시오	해요체	-아요/-어요, -지요
하오체	-(으)오		
하게체	-게	해체	-아/-어, -지
해라체	-아라/-어라		

* 주체높임법 : 서술상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서술의 주체를 높임

- ① 간접 높임: 문장의 전체 주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 ex) 선생님 목소리가 좋으시다
- ② 압존법: 주체가 청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주체 높임의 표지인 '-시-'를 넣을 수 없다.

* 객체 높임법 :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

41번 모음조화

1) 풍당풍당, 얼룩덜룩, 오목오목	2) 보슬보슬, 꼼질꼼질, 오순도순
---------------------	---------------------

→ 분류 기준 : 모음조화가 지켜진 단어와 지켜지지 않은 단어

* 모음조화 : 양성 모음(ㅣ, ㅏ, ㅑ)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ㅡ, ㅓ, ㅕ)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1)은 모음조화가 지켜진 단어, 2)는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단어

42번 쉼표의 쓰임

- ① 아, 깜빡 잊었구나. (O)
 - ② 이리 오세요, 어머니. (O)
 - ③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O)
 - ④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X)
- : 쉼표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는다.
- ⑤ 현우가, 울면서 떠나는 경미를 배웅했다. (O)

43번 외래어 표기

- ① 액세스(access) → 엑세스
- ② 시프트(shift) → O
- ③ 컨트롤(control) → 컨트롤
- ④ 딜리트(delete) → 딜리트
- ⑤ 인서트(insert) → 인서트

44번 로마자 표기

- ① 관축사(Gwantchoksa) → Gwanchoksa
: 축은 [ch]
- ② 화엄사(Whaeomsa) → Hwaeomsa
: 흥은 [h]
- ③ 운주사(Woonjusa) → Unjusa

: 모음 ㅓ는 [u]

④ 쌍계사(Ssanggyesa) (O)

⑤ 신록사(Shilleuksa) → Silleuksa

: ㅓ은 [s],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ㄹㄹ'은 '[ll]'

45번 장단음

① 소매가 팔보다 길구나. (짧게)

② 미국 간 뒤로 아직 소식이 없네.(짧게)

cf. 소식(小食) : (길게)

소식(消息) : (짧게)

③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어 좋겠네.(짧게)

④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할게.(짧게)

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지.(길게)

cf. 소망(所望) : (길게)

소망(消亡) : (짧게)

제16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각축(角逐):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기탄(忌憚): 어렵게 여겨 꺼림

*추출(抽出):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다

*두서(頭緒): 일의 차례나 갈피

*좌천(左遷):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전근됨

17번

*완벽(完璧): 흠이 없는 구슬, 결함이 없이 완전함

*석권(席捲): 돛자리를 말다, 빠른 기세로 세력 범위를 넓힘

*도탄(塗炭): 진흙 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다, 몹시 곤궁한 지경

*계륵(鷄肋): 닭의 갈비,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

*억장(億丈): 썩 높은 것 또는 그런 높이 (관용어: 억장이 무너지다)

*굴지(屈指): 손가락을 꼽음,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

*난맥(亂脈): 이리저리 흩어져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않음

*비등(沸騰): 액체가 끓어오름, 물이 끓듯 떠들썩하게 일어남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

*파경(破鏡): 깨어진 거울, 사이가 나빠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룸

18번

*불안(不安)

1.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2.몸이 편안하지 아니함

3.마음에 미안함

4.분위기 따위가 슬렁거리어 뒤숭숭함

(예: 자꾸 누가 보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전장에는 더위보다 더 숨 막히는 불안과 근심이 감돌고 있었다.)

19번

*행각(行脚):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어떤 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님

(예: 구걸 행각, 도피 행각, 친일 행각 등)

*행위(行爲): 긍정, 부정 모두 포함하여,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예: 폭력 행위, 호객 행위, 영웅적 행위 등)

20번

- *공공연히(公公然-):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지극히 공변되고 뻔뻔하게
- *공연히(空然-):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유의어: 걸핏하면, 괜히, 괜스레)
- *부질없다: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다 (유의어: 쓸데없다, 쓸모없다, 괜하다)
- *매물차다: 아주 쌀쌀맞다 /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우며 옹골차다
- *부시다: 그릇 따위를 씻어 깨끗하게 하다
- *훼방(毀謗): 남을 헐뜯어 비방함 / 남의 일을 방해함

21번

- *고다
- 1. 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다(닭을 한 마리 고았다)
- 2. 졸아서 진하게 엉기도록 끓이다(엿을 고아 강정을 만들다)
- 3. 술 따위를 얻기 위해 김을 내어 증류하다
- *썩다: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히다
- *달이다
- 1.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간장을 달이다)
- 2.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보약을 달이다, 차를 달이다)
- *조리다: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끓이다
- *삶다: 논밭의 흙을 씨레로 썰고 나래로 골라 노글노글하게 만들다(밭을 삶다)

22번

- *갯벌: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
- *개펄: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판. 간조와 만조의 차가 큰 해안 지형에 발달한다(≠펄)
- *겨루다: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상대와 기량을 겨루다, 누가 더 점수를 받는지를 겨루다)
- *견주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서로 대어 보다
(예: 자네 집과 가문을 견줄 만 한 집은 적어도 이 골 안엔 없다)

23번

- *맞추다: (주로 '보다'와 함께 쓰여) 둘 이상의 일정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예: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은 답을 맞추어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 *맞히다: ('맞다'의 사동형으로) 적중하다, 어떤 물음에 정답을 내놓다
- *쫓다: 목표, 이상 따위를 추구하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 *쫓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밀려드는 줄음이나 잡념 따위를 물리치다
- *객쩍다: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객쩍은 공상, 객쩍은 소리)
- *와중: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많은 이들이 전란의 와중에 가족을 잃었다)
- *칠칠하다: (주로 부정형과 함께 쓰여)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아무지다

24번

- *경신(更新): 기록 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예: 마라톤 세계 기록 경신,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 경신)
- *갱신(更新):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예: 계약 갱신, 비자 갱신, 면허 갱신)
- *개정(改定):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개정 요금, 대회 날짜 개정)
- *개정(改正):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헌법 개정, 회칙 개정, 약법 개정)
- *개정(改訂): 글자나 글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 잡음
-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들', '끼여 있음'으로 순화
- *개재(掲載):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계제(階除): 사다리,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 *결제(決濟):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 <경제>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
- *달리다: 재물이나 기술, 힘 따위가 모자라다
- *딸리다: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 / 어떤 부서나 종류에 속하다
- *붓다: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눈이 붓다, 얼굴이 붓다)
- *분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체중이 분다, 개울물이 분다, 몸이 많이 불었다, 우동이 불었다)
- *안광(眼光): 눈의 정기, 사물을 보는 힘(眼瞞: 눈자위, 눈알의 언저리)
- *불가해(不可解)하다: 이해할 수 없다
- *부득이(不得已)하다: 마지못하여 할 수 없다
- *조절(調節):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
- *조정(調整):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다듬기 (=調節)
- *조정(調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 *제청(提請):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 *제안(提案): 의안으로 내놓음. 또는 그 의안
- *주최(主催):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엮
- *주관(主管):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25번

- *딱하다: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 / 일을 처리하기가 난처하다
(예: 두 사람 사이에서 딱하게 되었다, 자네가 나서기 딱하다면 그만두게)

26번

- *사(士):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직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 *사(師):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도박사, 사진사, 요리사, 전도사)
- *사(辭): '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개회사, 기념사, 추모사, 취임사)
- *사(社): '회사(會社)'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신문사, 출판사, 통신사)
- *사(詞): '품사(品詞)'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감탄사, 관형사)

27번

- *불굴(不屈):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함
- *절호(絶好): 무엇을 하기에 기회나 시기 따위가 더할 수 없이 좋음
- *단장(斷腸):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 *낙점(落點):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낙점을 받다)

28번

- *하늘의 별 따기 / 옥에 티 / 개밥에 도토리 / 그림의 떡 / 새발의 피

29번

- *코가 꺾이다: 약점이 잡히다
- *코가 솟다: 뽐낼 일이 있어 우쭐해지다
- *코 큰 소리: 잘난 체하는 소리
- *코를 떼다: 무안을 당하거나 핀잔을 맞다
- *코(가) 빠지다: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
- *코 값을 하다: 대장부답게 의젓하게 굴다
- *코(를) 빠뜨리다: 못 쓰게 만들거나 일을 망치다
- *코가 땅에 닿다: 머리를 깊이 숙이다

30번 [외래어, 비속어 순화]

- *쿠사리 → 면박, 핀잔
- *레자(leather) → 인조 가죽
- *잉꼬부부(일본식) → 원앙부부
- *핀트 → 초점
- *로케(location) → 현지 촬영

31번 [용언의 활용형]

*푸다→퍼/뻘다

*베다→베어/베니

*긋다→그어/그으니/그었다

*담그다→담가/담갔다

*구르다→굴러/굴렀다

▲규칙 활용: 어간, 어미의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 바뀔이 국어의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경우의 활용 (예: 생기+고/생기고[변화x], 먹+는/먹는[자음동화], 따르+아/따라[음운탈락], 저물+니/저무니[""]) (음운탈락현상은 규칙 활용으로 본다.)

-ㄹ "탈락: 저무니, 도는, 사니까 -"으"탈락: 들러, 우러러, 치러 -"응"탈락: 좋아서, 쌓여)

▲불규칙 활용: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규칙 활용

(-ㅅ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ㅅ탈락' (짓다, 잇다, 젓다, 낫다)

-ㅂ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ㅂ→오/우' (돕다, 굽다, 눕다, 눕다, -답다, -스럽다)

-ㄷ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ㄷ→르' (문다, 듣다, 걷다, 신다)

-ㄹ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ㄹ→르르' (흐르다, 고르다, 빠르다, 바르다, 모르다)

-우 불규칙: 모음어미 앞에서 '우탈락' (푸다)

-여 불규칙: '하-'로 끝나는 말의 어미 '아→여' (-하다)

-러 불규칙: '르'로 끝나는 말의 어미 '어→러' (이르다, 푸르다)

-니라 불규칙: '오다'의 명령형에서 '거라→니라' (오다, 들어오다, 나오다)

-오 불규칙: '주다'의 해라/하라체 '주라→다오,달라' (주다))

32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번놓다(번+놓다): 다잡아 기르거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두다 / 잠을 자야 할 때에 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가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홀아비, 시꺼멓다, 낫잡다, 싫증, 짓이기다)

*잔다랗다(잘+다랗다): 꽤 잘다, 아주 자질구레하다, 불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ㅌ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예: 반질고리, 사흔날, 잔다듬다, 잔주름, 이튿날, 풀소)

33번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영희는 웃음을 참느라고 탄 데를 모았다,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쓰느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x] → 쓴다고 쓴 게 이 모양이다[o])

*'-리만큼': '-ㄹ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한 걸음도 더 걷지 못하리만큼 지쳤다, 배가 터지리만큼 많이 먹었다)

*'-으므로':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강물이 깊으므로 배 없이는 건널 수 없다)

*'-길래': 어미 '-기에'의 잘못된 형태 (*현재는 구어적 표현으로서 표준어 인정*)

*낸들: '나인들→난들[o]'의 잘못

34번 [띄어쓰기]

*지배하에서(지배+하[접미사]+에서[조사])

*삼 년여였지만(삼[관형사]+년+-여[접미사:그 수를 넘음]+였+지만[어미])

*인터넷상에서의(-상[접미사])

*실력 면에서는(면[명사:어떤 측면이나 방면])

(예: 긍정적인 면, 그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

*각 학급당(-당[접미사])

35번 [표준어]

*도통(都統): '도무지'와 함께 사용되는 표준어

- *항시(恒時): '언제나', '늘'과 함께 사용되는 표준어
- *노상: '늘', '항상'과 유사한 뜻을 가진 고유 표준어
- *해필(奚必): '하필(何必)'과 함께 사용되는 표준어.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고 어찌하여 꼭 (예: 아버지는 왜 해필 우리가 모시러 왔을 때 심부름을 가셨을까?)
- *도리어: (되려[x])

39번 [통사/비통사적 합성어]

- *덧신: 덧[접두사]+신 → 파생어
- *밤낮: 밤+낮 → 통사적 합성어
- *뉘밥: 뉘+밥 → 비통사적 합성어
- *오르막: 오르+막[접미사] → 파생어
- *딸국질: 딸국+질[접미사] → 파생어
- ▲통사적 합성어: 국어의 정상 단어 배열법에 일치하는 단어
 - 어간+어미+어간+어미 (돌아가다, 가려내다, 알아보다, 스며들다)
 - 관형어+체언 (새해, 새마을, 작은집)
 - 부사어+용언 (잘나다)
 - 주어+서술어 (손쉽다, 그늘지다)
 - 목적어+서술어 (본받다, 잠자다)
 - 명사+명사 (책장, 돌다리, 앞뒤, 논밭)
 - 부사+부사 (곧잘, 더욱더)
- ▲비통사적 합성어
 - 용언+체언/관형사형 전성어미 생략 (늦[은]잠, 뉘[은]밥, 접[은]칼)
 - 용언+용언/연결어미 생략 (여닫다[열고 닫다], 우짚다[울고 짚다], 검푸르다[검고 푸르다])
 - 부사+체언 (부슬비, 험떡고개, 출랑새)
 - 우리말 일반 어순과 다른 경우 esp.한자어 (독서, 급수, 등산)

42번 [문장부호]

- *소괄호: 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 *물결표: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새마을: ~운동 ~노래)
- *붙임표: 합성어 나타낼 때 혹은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 외래어 또는 한자어 결합하는 경우 적는다 (겨울-나그네, 불-구경, 휘-날리다, 영화-칼럼)
- *줄표: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 (이건 내 것이니까—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 *숨김표: 금기어나 비속어의 경우,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어찌 ○○○라는 심한 욕을 쓰는가)
- *빠짐표: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 나타낼 때 (훈민정음 초성 중 牙音은 □□□의 석 자다)

45번 [장단음]

- *이명박 대통령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길게 발음)
- *이 장소에서 (짧게 발음)
- *이상하게도 (異:常 길게 발음)
- *이과에 갈래 (理:科 길게 발음)
- *이십 년만에 (二:十 길게 발음 / 그 외 二, 四, 五, 萬 그리고 고유어 숫자 둘/두, 셋/세/서/석, 넷/네/너/넉, 원은 길게 발음)

제17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살다01

- (1) 생명을 지니고 있다
- (2)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
- (3)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4) 경거나 놀이 따위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5) 글이나 말, 또는 어떤 현상의 효력 따위가 현실과 관련되어 생동성이 있다
- (6)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
- (7)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8) 어떤 생활을 영위하다
- (9)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살다02

크기가 기준이나 표준보다 약간 크다

17번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뜻하며, 주로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역사 이래 미증유의 사건' 정도로 쓰인다.

-어안: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 안

-파천황(破天荒): '천황(天荒)을 깨다[破]'라는 뜻. 주로 '파천황의' 꼴로 쓰여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을 이른다.

-붓물: '보(洩)'와 '물'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보에 권 물'을 뜻하며 '붓물 터지듯'이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인다.

-장족(長足): '기다랗게 생긴 다리'라는 뜻이며, '의'나 '으로'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파벽(破壁): 양반이 없는 시골이나 인구수가 적은 성시에 인재가 나서 본래의 미천한 상태를 벗어남

18번

-사활(死活): '죽기와 살기'를 뜻하며, 어떤 중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신병(身柄):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몸

-항간(巷間): 일반 사람들 사이 =촌간(村間)

-낭보(朗報): 기쁜 기별이나 소식 =희보(喜報)

-비보(悲報): 슬픈 기별이나 소식

-치성(致誠): '있는 정성을 다함, 또는 그 정성'과 '신이나 부처에게 지성으로 뵈'의 두 가지 뜻이 있음 =지성(至誠)

19번

-수리(修理):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주로 기계나 집 등 특정 구조를 갖는 것을 고칠 때 사용한다.

-수선(修繕): 낡거나 험 물건을 고침. 주로 천이나 가죽 등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실과 바늘을 동원하여 고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공포(公布):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주로 정부나 공공 단체가 법령이나 조약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경우에 쓰인다.

-공표(公表):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개인이나 단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경우에 쓰인다. 단지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공개발표', '발표'로 순화

-보전(保全):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현재의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보존(保存): 잘 간수하고 간수하여 남김. 그냥 놔두면 망가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참가(參加):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있다.

-참여(參與):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어떤 일의 진행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를 드러내는 데에 쓰인다.

-계발(啓發):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불러일으킬 때 쓰인다.

-개발(開發):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운영(運營):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운용(運用):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

-성장(成長):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신장(伸張):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남. 또는 늘어나게 함

-결제(決濟):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20번

-엉기정기: 질서 없이 여기저기 벌여 놓은 모양

-흐슬부슬: 차진 기가 없고 부스러져 헤어질 듯한 모양

-담상담상: 드물고 성긴 모양

-우럭우럭: 심술이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모양

-티적티적: 남의 흠이나 트집을 잡으면서 자꾸 비위를 거스르는 모양

21번

-귀국(歸國):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소환(召還):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일

-대처(對處):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대비(對備):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

-응대(應對): 부름이나 물음 또는 요구 따위에 응하여 상대함

-응수(應酬):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마주 응함

22번

-시침질: 바느질을 할 때 천을 맞대어 등성등성하게 대강 호는 일.

-고살길: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햇웃: =솜웃

-한밥: 끼니때가 지난 뒤에 차리는 밥

-쌈밥: 채소 앞에 여러 가지 재료와 쌈장을 넣어 밥과 함께 싸서 먹는 음식

-길쌈: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들풀: 들에서 나는 풀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푸성귀: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3번

‘무르다’의 의미 정리

(1)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

(2-①) 사거나 바꾼 물건을 판 사람이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2-②)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2-③) 있던 자리에서 뒤나 옆으로 옮기다

(3-①)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3-②) 물기가 많아서 단단하지 않다

(3-③) 마음이 여러거나 힘이 약하다

(3-④) 일 처리나 솜씨가 야무지지 못하다

24번

‘들다’의 의미 정리

(1)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2)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

(3)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

(4) 수면을 취하기 위한 장소에 가거나 오다

(5)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6)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7) 어떤 범위가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

(8) 어떤 처지에 놓이다

(9)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10)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

(11)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

(12) 지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

- (13)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 (14) 나이가 많아지다
- (15)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
- (16)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 (17)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
- (18)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

25번

- 어긋어긋: 힘없이 천천히 거니는 모양
- 발뭍발뭍: 한 발씩 또는 한 걸음씩 길이나 거리를 가늠하며 걷는 모양
- 사뽀사뽀: 소리가 나지 아니할 정도로 잇따라 가볍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모양
- 타박타박: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
- 자작자작: 힘없이 찬찬히 걷는 모양
- 터덕터덕: 몹시 지치거나 느느하여 힘없이 발을 떼어 놓으며 매우 느리게 계속 걷는 모양

26번

국어의 9품사

국어의 품사 체계는 학자에 따라 5품사, 8품사, 10품사 등 다양한 견해를 지니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다음의 9품사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 ① 명사(名詞):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 ② 대명사(代名詞):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
- ③ 수사(數詞):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
- ④ 조사(助詞):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 ⑤ 관형사(冠形詞):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 ⑥ 부사(副詞):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 ⑦ 동사(動詞):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 ⑧ 형용사(形容詞):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 ⑨ 감탄사(感歎詞):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

27번

- 이상(以上):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 이상(理想):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 이상(異狀): 평소와는 다른 상태
- 이상(異常):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 이상(履尙): 품행이 고상함
- 이상(異象): 이상한 모양. 특수한 현상

28번

- 추풍선(秋風扇): 가을철의 부채. 철이 지나서 쓸모없이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또한 이성의 사랑을 잃은 사람을 비유하여 쓰이기도 한다.
- 중의 빛: 삭발을 한 중에게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
- 삼발에 썩대: 썩이 삼발에 섞여 자라면 삼대처럼 곧아진다는 뜻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가을바람의 새털: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새털처럼 매우 가볍고 꺾이지 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가게 기둥에 입춘: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게집 기둥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개 발에 주석 편자: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

29번

- 마른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 안 되는 일도 대세를 타면 잘될 수 있음
- *'생나무'는 '베어 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나무'를 의미하는데, 생나무에는 불을 붙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생나무를 사용해서 불을 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마른나무에 불을 붙인 후, 생나무를 함께 얹어 놓아 같이

타게 해야 한다.

30번

- 화목(火木): 땀감으로 쓸 나무. '땀나무'로 순화
- 견양(見樣): 어떤 물건에 겨누어 정한 치수와 양식. '본보기'로 순화
- 노견(路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도록 되어 있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갓길'로 순화
- 흑태(黑太): 검은빛의 콩. '검은콩'으로 순화
- 잔반(殘飯): 먹고 남은 밥. '음식 찌꺼기' 또는 '남은 밥'으로 순화

31번

- 닭달: 남을 단단히 억박질러서 혼을 냄. (닭달X)
- 덤터기: 남에게 넘겨쓰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혹은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 (덤태기X)
- 등쌀: 몹시 귀찮게 구는 짓. (등살X)
- 뒤치다꺼리: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 (뒤치닥거리X)
-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해꼬지X)

32번

- 뿔다: '쑤었다'에서 '쑤-'와 '-었'이 어울려 '뿔-'으로 준 것.
- 괴어: '괴-'에 어미 '-어'가 붙어 활용하면, '괴어'가 된다. '괴어'의 준말은 '괘'
- 누였다: '누이었다'에서 '-이-'와 뒤에 온 '-어'가 어울려 '-여'로 준 것.
- 쇠려고: 기본형인 '쇠다'의 어간 '쇠-'에 어미 '-려고'가 결합한 형태.
- 트였다: 기본형인 '트이다'의 어간 '트이-'에 '-었다'가 결합하여 '-이-'와 '-었'이 '-였'으로 준 것.

33번

한글 맞춤법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 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 하얏다: 하야니, 하얏, 하야면, 하야오
- 어간의 끝 'ㅂ'이 'ㅊ'로 바뀔 적
 -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 맵다: 매힌, 매힌니, 매힌다
 다만, '뚬-,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 뚬다: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와다
 -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곱았다
- 어간의 끝 음절 'ㄹ'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 어간의 끝음절 'ㄹ'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 부르다: 불러, 불렀다
 - 오르다: 올라, 올랐다

34번

- (은)는커녕: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 결합한 복합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간(間): 의존명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앞말과 띄어 쓴다.
- 만큼 ①의존명사: -은,-는,-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냄. 앞말과 띄어 쓴다.
- ②격 조사: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냄. 앞말과 붙여 쓴다.

-동: 의존명사. 앞말과 띄어 쓴다.

-대로 ①의존명사: '어떤 모양이나 상태,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즉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미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조사: '따로 구별됨,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의 의미로 앞말과 붙여 쓴다.

*'조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국어의 띄어쓰기에 대한 대원칙은 '각 단어는 띄어 쓴다.'이다. 따라서 우선 각각의 요소가 단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어 중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즉,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의존명사 역시 하나의 단어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조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는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예컨대 '만큼', '대로' 등이 그것이다. 이때에는 대체로 앞말이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면 의존명사로, 앞말이 체언이면 조사로 보아 띄어쓰기를 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35번

-꿀떡: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표준어

-타박: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 표준어

-얼추: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어떤 기준에 거의 가깝게. 표준어

-이골: 아주 길게 들어서 몸에 폭 뺨 버릇. 표준어

-애저녁: '애초'나 '초저녁'의 잘못된 표현. 다만 북한에서는 '애저녁'을 인정하고 있다. 비표준어

36번

중의문의 종류

- 1) 단어의 중의성으로 인해 생기는 중의문 ex) 그녀는 손이 크다.
- 2) 문장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중의문 ex) 철수는 영이와 순이를 좋아한다.
- 3) 부정 표현으로 인해 생기는 중의문 ex)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4) 상황에 따라 생기는 중의문 ex)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

37번

-이미: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 (이미 예고X -의미 중복)

-꾸미다: 거짓이나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다. (꾸며 낸 조작극X -의미 중복)

-오래되다: 시간이 지나간 동안이 길다. (오래된 숙원X -의미 중복)

-최후: 맨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X -의미 중복)

38번

문장을 쓸 때 자주 틀리는 요소

- 1)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경우
- 2)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호응되지 않는 경우
- 3)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경우
- 4) 성분의 지나친 생략 및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
- 5) 명사화가 남용되는 경우
- 6) 관형화가 남용되는 경우

39번

'-이': 명사를 만드는 대표적인 생산성 높은 접사 중 하나.

먹이, 놀이, 길이, 높이 등

'-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지니는 접미사

나무꾼, 사기꾼, 사냥꾼, 구경꾼, 일꾼 등

'-질': 행위를 의미하는 접사.

가위질, 망치질, 주먹질, 도둑질, 담금질 등

'-개': 사람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접사.

오줌싸개, 코흘리개, 날개, 덮개, 지우개 등

'-막': 일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리막, 오르막, 가물막 정도에만 쓰여 생산성이 낮은 접사

40번

국어의 용언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을 ‘용언(用言)’이라 칭한다. 용언은 특성이나 자립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특성에 따라 동사(動詞)와 형용사(形容詞)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 어부에 따라 자립하여 쓰이는 본용언(本用言)과 본용언에 붙어 쓰이는 보조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동사는 다시 기능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①자동사(自動詞):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꽃이 피다’의 ‘피다’, ‘해가 솟다’의 ‘솟다’ 등

②타동사(他動詞):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노래를 부르다’의 ‘부르다’ 등

41번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

사동(使動):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행동하는 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임을 뜻하는 능동(能動)에 대립되는 개념. 국어에서 사동 표현을 형성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파생적 사동

① 어근+ ‘-이-/-히-/-리-/-기-/-우-/-구-/-추-’ ex) 속이다, 넓히다, 지우다, 돌구다, 낮추다

② 명사+ ‘-시키다’ ex) 이해시키다, 정지시키다

(2) 통사적 사동: 용언 어간+‘-게 하다’ ex)입게 하다, 듣게 하다

(3) 어휘적 사동: 시키다/만들다/명령하다/지시하다 등

42번

-가운뎃점 ·

(1) 쉽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소괄호 ()

(1)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3) 빈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대괄호 []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43번

-포르토프랭스 (프랑스어 표기를 따른 것 Port-au-Prince)

-마추픽추 (에스파냐어 표기법을 따른 것 Machu Picchu)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ㅇ, ㅅ’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44번

-식혜 Sikhye

-떡국 Tteokguk

-신선로 Sinseollo

-구절판 Gujeolpan

-비빔밥 Bibimppap

45번

-매매[매매]: 물건을 사고파는 일

-매력적[매력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매화[매화]: 매화꽃

-매[매]: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는 막대기, 몽둥이, 회초리, 곤장, 방망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매[매:]: 멧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18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

- 그 돈이면 지금 돈 십만 원과 맞잡이이다. → 서로 대등한 정도나 분량.

- 여럿이서 추렴을 하여 음식을 마련했다. →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

- 수업 시간에 해찰을 부리는 아이가 있었다. →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짓을 함.

- 우수리는 받지 않을 테니 물건이나 좋은 것으로 주세요. →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 그의 눈에 짹짹이 보이기 시작했다. →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 cf) 짹 :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

17.

-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학식이나 재능'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그는 세계 유수의 갑부로 자수성가하였다. → '수가 있다, 소수이다.'의 뜻에서 파생되어 '손으로 꼽을 만큼 두드러지는 경우'

- 수십 년 쌓아 온 그의 아성이 무너졌다. → '예전에 주장이 거처하던 성'이라는 뜻으로, '아주 중요한 근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가 어렵다. → '지라와 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상적으로는 '일을 삭여 내거나 상대하여 내는 성미'의 뜻으로 쓰인다.

- 형은 친구의 말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 '두 팔과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못 쓰다'와 결합하여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18.

-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의 면모(面貌)를 지녔다. → '얼굴의 모양',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됃됨이'의 뜻을 지니기도 한다.

- 그는 아내의 채근(採根)에 못 이겨 집을 나섰다. → '식물의 뿌리를 캐냄.' 확장되어 '어떤 일의 내용, 원인, 근원 따위를 캐어 알아냄', 혹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함'

- 그녀는 환경 문제에 대해 탁견(卓見)을 가지고 있다. → '두드러진 의견이나 견해'

- 별것도 아닌 일에 남편은 힐문(詰問)을 하기 시작했다. →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물음'

- 일이 이상하게 꼬여 가더니만 결국 사달이 났다. → '사고나 탈'

- cf) 사단(事端) : 사건의 단서, 일의 실마리

19.

- 문화 유적이 잘 보전(保全)되었다.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으로, 현재의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

- cf) 보존(保存)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그냥 놔두면 망가지거나 없어질 수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 유례(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호황이다. → '같거나 비슷한 예'

-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困惑)스러웠다. →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그들은 담합(談合)하여 물건값을 인상했다. →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 이것은 선사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再現)한 전시물이다. →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으로 '재생'의 의미가 있다.

- cf) 재연(再演) : '연극이나 영화 따위를 다시 상연함' 또는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함'

20.

- 그가 했던 말들이 얼핏얼핏 되살아나곤 했다. →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잇따라 문득문득 떠오르는 모양’ (= 언뜻언뜻)
- 그녀를 만나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거듭하여 새롭게 생기는 모양’
- 이 집 저 집 둘레둘레 돌아다니다. →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양’
- cf) 그는 그녀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둘레둘레 따라갔다. → ‘둘레둘레’에는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녀만을 바라보며’와 함께 쓰이기는 어색하다.
- 그는 입에 반찬을 한 가득 넣고 아귀아귀 먹고 있었다. → ‘음식을 욕심껏 입안에 넣고 마구 씹어 먹는 모양’ (아귀아귀 < 어귀어귀)
- 줄 끊긴 방패연은 바람에 날려 저 멀리 감실감실 사라져 갔다. → ‘사람이나 물체, 빛 따위가 먼 곳에서 자꾸 어렴풋이 움직이는 모양’

21.

- 점원에게 옷값을 () 가게를 나왔다.
- 큰딸의 결혼식을 () 집으로 돌아왔다.
- 아침을 () 대문을 나서던 참이었다.
- () = 치르다. → (1)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ex)점원에게 옷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다. (2) 무슨 일을 겪어 내다. ex) 그렇게 큰일을 치렀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지. (3) 아침, 점심 따위를 먹다. ex) 아침을 치르고 대문을 나서던 참이었다.

22.

- 반의 관계의 유형
- (1) 상보 반의 관계 :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반의어, 두 항목을 동시에 부정할 경우에 모순이 일어난다. ex) 살다-죽다, 남자-여자
- (2) 정도 반의 관계 :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의어로, 두 항목을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ex) 길다-짧다, 덥다-춥다
- (3) 방향 반의 관계 : 방향상의 대립을 나타내는 경우나 맞선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쌍. ex) 위-아래, 가다-오다
- 낮 : 밤 , 시작 : 끝 , 어른 : 아이 → 정도 반의 관계
- 위 : 아래 → 방향 반의 관계
- 참 : 거짓 , 삶 : 죽음 → 상보 반의 관계

23. ‘부치다’의 여러 의미

- 그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넘겼다, 맡겼다). :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 부쳤다(x) 넘겼다, 맡겼다(o)
- 아들에게 학비와 용돈을 부쳤다(→ 보내다).
- 접수된 원고를 편집하여 인쇄에 부쳤다(→ 넘기다).
- 나는 아직도 그에게는 실력이 부친다(→ 모자라다).
- 어머니가 부엌에서 빈대떡을 부치고(→만들고) 계신다.

24.

- 조룩조룩, 쫘룩쫘룩, 주룩주룩, 쭈룩쭈룩 : ‘물줄기나 빗물 따위가 흐르거나 내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각 단어사이의 어감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 예사소리(ㅈ)에 비해 된소리(ㅉ)가, 양성모음(ㅏ)에 비해 음성모음(ㅑ)이 센 느낌을 준다는 점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조룩조룩 < 쫘룩쫘룩 < 주룩주룩 < 쭈룩쭈룩’ 찾을 수 있다.
- 양성모음 :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있다.
- 음성모음 :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가 있다.

25.

- 뚜껑을 덮어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 ↔ 뚜껑을 열다
-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 입을 열다

- 중요한 물품에는 자물쇠를 채워 놓는 것이 좋다. ↔ 자물쇠를 열다
- 손을 씻은 후에는 수도꼭지를 잘 잠가야 한다. ↔ 수도꼭지를 열다

26.

- 그를 아는 사람은 불과(不過) 몇 명뿐이다. →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함’
- 그녀가 하필(何必)이면 그때 나타난 것이다. →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
- 동생은 물 한 컵을 단번(單番)에 들이마셨다. → ‘단 한 번’
- 무슨 말인지 대체(大體) 알아들을 수가 없다. → ‘유감스럽게도 전혀’
- 가령(假令)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릴 했다고 치자. → ‘가정하여 말하여’

27.

- (1) 고도로 경제화된 중국의 모습은 북경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달리는 열차처럼 성장해 가는 상해와는 다르게 (2) 고도로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북경.
- (1) 고도(高度) →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나’
- (2) 고도(古都) → ‘옛 도읍’

28.

- 오월동주(吳越同舟)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각주구검(刻舟求劍) →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 간담상조(肝膽相照) →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다
- 와신상담(臥薪嘗膽) → ‘거북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
-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29.

-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 →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30.

- 그의 진의(→참뜻)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그에게 저간(→요즈음)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 제반(→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다.
- 그녀는 우리 부서에서 제일 고참(→선임)이다.
- 봄이 되자 노변(→길가)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31.

- 얽히고설키다 → ‘얽히고’는 ‘얽다’라는 어원이 분명하므로 발음은 [얼키고]로 나지만 적을 때는 원형을 살려 ‘얽히고’로 적는다. 이에 비해 뒤따르는 ‘설키다’는 어원을 찾을 수 없는 말이기에 소리대로 ‘설키다’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기와 형태 밝혀 적기)

32.

- 그는 수돼지를 여러 마리 사육하고 있다. → ‘수돼지’의 경우 ‘수’ 뒤에 ‘ㅎ’ 소리가 덧나는데, 이 경우 제31항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돼지’라고 쓴다.
- 강원도는 고랭지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 ‘고랭지’의 경우 한글 맞춤법 규정 제12항 [붙임2]에 따르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 ‘고랭지’의 경우 ‘표고가 높고 찬 지방’을 의미하므로 ‘고-냉지’가 아니라 ‘고랭-지’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랭’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초점’은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단,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단어 중에도 ‘차간, 뒷간, 횡수, 곳간, 셋방, 숫자’는 사이시옷을 쓴다!!!
-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널따란 문이 있다. → ‘널따란’의 기본형은 ‘널따랄다’이고, 어간 ‘널따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으면 ‘ㅎ’이 탈락하여 ‘널따란’이 된다.
- 그는 톱으로 나무 밑동을 쓱쓱 자르고 있었다. →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쓱쓱’에서 ‘쓱’의 경우 ‘ㄱ’ 받침 뒤에 왔지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로 표기한 것이다.

33.

- 그녀는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 시험을 통과했다. → (=아무튼)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
- 그는 말이 너무 빨라서 당최 알아들을 수 없었다. → 부정의 뜻이 있는 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 영’ [당체 (x)]
- 그들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다. →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
- 아이의 귀가가 늦어지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
-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다. →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34.

- 시끄러우니 집V밖에 나가서 놀아라. → ‘밖’ 의존명사
- 진열대에 남은 물건이 하나밖에 없었다. → 조사
- 모두들 구경만 할V뿐 나서지 않았다. → 의존명사
-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방법뿐이다. → 조사
- 동생이 집을 나간V지도 벌써 1년이다. → ‘ㄴ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 ‘ㄴ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미일 때는 붙여쓰
- 나는 뜸나는V대로 강아지를 찾아다녔다. → 의존명사
- 그 사람은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한다. → 조사
- 그 책을 다 읽는V데 사흘이 걸렸다. 의존명사
- 밥을 먹는데 마침 전화가 걸려 왔다. → 어미

35.

- 일이 돌아가는 낌새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일이 되어 가는 야릇한 분위기
- 그의 눈에 상대방이 쓰는 꼼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 꾀꾀한 수단이나 방법
- 그는 며칠 씻지 않은 것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였다. →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 [볼썽사나운 (X)]
- 버릇없이 굴던 그에게 친구들이 본때를 보여주었다. →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아니하거나 교훈이 되도록 따끔한 맛을 보이다
- 아이를 혼자 보내기가 꺼림칙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 매우 꺼림하다.(= 꺼림칙하다)

36.

- ‘가다’라는 동사는 ‘가라, 가자’처럼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한 반면,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예빠라, 예쁘자’가 불가능하다.
- ‘있다’는 동사의 특성과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지니는 용언이다.
- 동사의 특성을 지니는 ‘있다’는 대개 ‘이동이 가능한 존재’를 표현하며, 형용사의 특성을 지니는 ‘있다’는 ‘소유’와 ‘이동이 불가능한 존재’를 표현한다.

37.

- 초대 받은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 초대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 철수는 영희와 미선이를 찾아다녔다. → 철수는 영희와 함께 미선이를 찾아다녔다.
- 나는 어제 고향에서 온 후배를 만났다. → 나는 고향에서 어제 온 후배를 만났다. or 나는 고향에서 온 후배를 어제 만났다.
- 형은 나보다 영희를 더 좋아한다. → 형은 내가 영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영희를 좋아한다.
-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 그는 떠나는 그녀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38.

- 극장표를 미리 예약했다. → 극장표를 예약했다.
- 이번 일로 많은 손해를 보았다.(o)
-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를 쳤다. → 내가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쳤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 버렸다.
- 이사할 날짜를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했다. → 이사할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사할 날짜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었다.
- 그는 안내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길을 물었다. → 그는 안내원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었다. 그는 안내원에게 가까이 가서 길을 물었다.

39.

-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이었다. →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이 아니었다.(o)
- 그 사람과는 도무지 말이 잘 통한다. → 그 사람과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 그는 결코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 결코 : '아니다, 없다, 못하다' 등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의 뜻을 가지는 부사어
- 그는 비록 몸은 피곤하면서 마음만은 편안해 보였다. → 그는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만은 편안해 보였다.
-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달리 말투가 여간 상냥하지가 않다.(o)

41.

- 진행상, 완료상
- (1) 진행상 :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동작의 양상
- ex) 어제 나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었다. / 빨래가 다 말라 간다.
- (2) 완료상 : 동작이 끝났거나 끝나서 그 결과가 남아 있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동작의 양상 ex) 영수도 의자에 앉아 있다. / 사과를 다 먹어 버렸다.
- (3) 진행상 + 완료상 : 영희는 치마를 입고 있다 → '영희는 치마를 입고 다닌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영희가 치마를 입는 중이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 동생이 넥타이를 매고 있다. → '동생이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생이 넥타이 매기를 완료하고 현재 넥타이를 매고 다닌다.'라는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함

42.

- 애야, 이쪽으로 좀 와봐. → 부르는 말 뒤에는 쉼표를 쓴다.
-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쉼표 사용
- 질투,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제시어 다음에 쉼표 사용 가능
-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 한다.(x) →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처럼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쉼표를 쓰는 것은 맞지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so,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 한다.(o)
-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 한 부분을 줄일 때 쉼표를 사용 (즐겼다 - 되풀이 된 말)

43.

- 의상실 마네킨(→마네킹)이 바뀌었다.
- 오늘 레퍼터리(→레퍼토리)는 꽤 다양하다.
- 여드름은 청춘의 심벌이라 했다.
- 영화 매니아(→마니아)가 최근 부쩍 늘었다.
- 요즘 관광 관련 심포지움(→심포지엄)이 많이 여린다.

44.

- 의상대 : Uisangdae
- 석굴암 : Seokguram
- 경희루 : Gyeonghoeru
- 은진미륵 : Eunjinmireuk
- 쌍사자 석등 : Ssangsaaja seokdeung

45.

- 그 원고는 짧지만[짧쩌만] 내용이 알차.
- 물건이 많으니 참고[참고]에 꼭꼭 쌓아 뒤.
- 9.11[구일일] 사태 이후 보안이 엄격해졌다.
- 그녀를 눈여겨보던[눈녀겨보던] 사람이 있다.
- 그는 정신적[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것 같다.

제19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 어휘의 사전적 의미

*신체 관련 단위 명사

- 줌 :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길 : 길이의 단위.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이다.
- 짐 : 한 사람이 한 번 지어 나를 만한 분량의 꾸러미를 세는 단위.
- 보 : 거리의 단위. 1보는 한 걸음 정도의 거리.
- 뺨 : 길이의 단위. 비교적 짧은 길이를 잴 때 쓴다. 한 뺨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길이.

17. 어휘의 의미

- ① 초미 :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 '매우 급함'이란 의미. 한자 표기 焦眉(꼬리 미(尾) 아님)
- ② 슬하 : 뜻- 무릎 아래 / 의미- 아버지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 ③ 모골 : 뜻- 털과 뼈
- ④ 비견 : 뜻- 어깨를 나란히 한다 / 의미-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낮고 못남 없이 비슷'
- ⑤ 면목 : 뜻- 얼굴의 생김새나 얼굴 그 자체

18. 어휘의 의미

- ① 자작(自酌) :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심
- ② 진수(眞髓) :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 ③ 아량(雅量) :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
- ④ 납량(納凉) :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 ⑤ 산화(散華/散花) :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

19. 어휘의 문맥적 의미

- ① 반증(反證) :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ex) 방증(傍證) :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증거.
- ② 인수(引受) :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음.
ex) 인계(引繼) :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 ③ 부여(附與) :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를 지니게 함.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의 따위를 붙여 줌.
- ④ 임차(賃借) :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씬. 임대(賃貸)와 구별할 것.

20.

- 부들부들 : 살갓에 닿는 느낌이 매우 부드러운 모양
- 아롱다롱 : 여러 가지 빛깔의 작은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
- 가닥가닥 :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모양.
- 너붓너붓 : 얇은 천이나 종이 따위가 나부끼어 자꾸 흔들리는 모양.
- 질근질근 : 질깃한 물건을 자꾸 씹는 모양.

21.

22. 열매의 명칭

- 개암 : 개암나무의 열매. 도토리과 모양이 비슷
- 능금 : 능금나무 열매. 사과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훨씬 작다.
- 버찌 : 벚나무 열매
- 보리수 : 보리수나무 열매
- 산수유 : 산수유나무 열매
- 으름 : 으름덩굴의 열매

23. '재다'의 의미

- 잘난 척하며 으스스대거나 뽐내다.

- 1) 자, 저울 따위의 계기를 이용하여 길이, 너비, 높이, 깊이, 무게, 온도, 속도 따위의 정도를 알아보다. 2) 여러모로 따져 보고 헤아리다.
- 1)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 두다. 2)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
- 1) 총, 포 따위에 화약이나 탄환을 넣어 끼우다. 2) 담뱃대에 연초를 넣다.
- 1) 동작이 재빠르다. 2)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볍다. 3) 온도에 대한 물건의 반응이 빠르다.

24. 어휘 간의 의미 관계

- 1) 정체(停滯) : 사물이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
- 2) 지체(遲滯) :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 3) 서행(徐行) : 사람이나 차가 천천히 감.

25. '놀다'의 의미

- 1)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 2) 직업이나 일정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
- 3)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
- 4) 물자나 시설 따위를 쓰지 않다.
- 5) 고정되어 있던 것이 헐거워 이리저리 움직이다.
- 6) 태아가 꿈틀거리다.
- 7)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 8) 신체 부위가 일정하게 움직이다.
- 9) 주색을 일삼아 방탕하게 지내다.
- 10) 불량한 무리들이 나쁜 짓을 일삼으며 지내다.
- 11)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지내다.
- 12) 남을 조롱하거나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다.
- 13)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함을 비꼬는 말
- 14) 비슷한 무리끼리 어울리다.

26. '거리'

- 1) 거리(距離) :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따위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
- 2) 고유어 '거리' : 길거리.

27. '사고'

- 1) 사고(事故) : 1)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2)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3)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
- 2) 사고(思考) : 1)생각하고 궁리함 2)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

28.

*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의 뜻을 지닌 성어

- 1) 목불식정(目不識丁)
- 2) 어로불변(漁魯不辨)
- 3) 일문불통(一文不通)
- 4) 진언부지(眞諺不知)

ex)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

29. 속담의 의미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 '여기저기에 빛을 많이 진 것'을 비유한 말.

30. 순화어

- 1) 만개(滿開) > '만발', '활짝 피'으로 순화
- 2) 역할(役割) > '구실', '소임', '할 일'로 순화
- 3) 감안(勘案)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고려', '생각', '참작'으로 순화
- 4) 납득(納得) > '이해'로 순화

31.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바닷가'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하룻날', '뒷머리'
- (3)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장밋빛'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양치물'

32. 어법에 맞는 표현

-이예요('이어요'도 맞는 표현), 준말은 -예요

단, '-예요'는 받침이 없는 단어에만 쓰인다. ex)종이예요

받침이 있으면 줄이지 않고 '-이예요'라고 씀. ex)연필이예요

33.

- 1) 좀체 : '좀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쓰임.
- 2) 어물쩍 :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짝 넘기는 모양.
- 3) 자그마치 :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적지 않게
- 4) 으스스 : 차거나 싫은 것이 몸에 닿았을 때 크게 소름이 돋는 모양
- 5) 으레 :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틀림없이 언제나

34.

- 1) -쯤 :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여 쓴다.
- 2) -가량(假量) : '정도'란 뜻의 접미사.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구 뒤에 붙여 씀.
- 3) -어치 :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 접미사.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구에 붙여 씀.
- 4) -짜리 :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 수나 양, 값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여 씀.
- 5) 남짓 :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말과 띄어 써야 함.

35. 표준어

- 1) 얼씨구 : '흥에 겨워서 떠들 때 가볍게 장단을 맞추며 내는 소리', '보기에 아니꼬워서 조롱할 때 내는 소리'란 뜻의 표준어
- 2) 아서라 :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이란 뜻의 표준어
- 3) 애고 : '아이고'의 준말. 표준어.
- 4) 머시 : '말하는 도중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감탄사' 표준어
- 5) 하먼 : '아무렵'의 전남 사투리.

36, 37번은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는 문제로, 직관적인 해답 추론이 필요하므로 생략합니다.

38. 중복 표현

- 1) 창공(蒼空)은 '맑고 푸른 하늘'이란 뜻. '푸른'과 '창공'은 중복된 표현.
- 2) 여생(餘生)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남은'과 함께 쓰면 중복.
- 3) 난관(難關)은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고비'. '어려운'과 '난관'은 중복.
- 4) 숙원(宿願)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 '오랜'과 같이 쓰이면 중복.

39. 연결어미 '-도록'의 의미

의미	세부 의미	예시 문장
도급	~할 때까지	-해가 지나도록 일했다.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못 냈다.
정도	~할 정도로	-몰라보도록 변했다.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행위	청유나 명령에서	-학교에 가도록 하자. -책을 읽도록 해라.
동작	행동이나 작용이 ~하게	-누구나 들어가도록 허용한다.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성상	성질이나 상태가 ~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한다.

40. 자동사, 타동사, 능격동사

- 자동사 :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피다', '숫다' 등
- 타동사 :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먹다', '부르다' 등
- 능격동사 : 동일한 형태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사용되는 동사를 능격동사라고 한다. 국어에는 이처럼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동사들이 있다. '멈추다', '움직이다', '죄다', '그치다' 등

41.

* '서술어 자릿수' ->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문장 성분(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의 개수

42. 문장 부호의 사용

- 1) 대괄호([]) :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ex) 밤[夜]
- 2) 큰따옴표(" ") :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3) 쉼표(,) :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씀.
- 4) 물음표(?) : 한 문장 안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는 맨 끝 물음에만 사용.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43. 외래어 표기

- 1) 망토 : manteau에서 온 외래어
- 2) 해먹 : '기둥 사이나 나무 그늘 같은 곳에 매어 침상으로 쓰는 그물'. hammock에서 음.
- 3) 피망 : 불어 piment에서 온 외래어.
- 4) 노즐 : 영어 nozzle
- 5) 야자 : 외래어로 오해하기 쉬우나, 한자어임. 야자(椰子).

44. 로마자 표기법

- 1) 영산강 > Yeongsangang
- 2) 낙동강 > Nakdonggang
- 3) 금강 > Geumgang
- 4) 속리산 > Songnisan
- 5) 외설악 > Oeseorak

관련 로마자 표기 규정

제2장 2항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2항 [붙임 2]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선 l로 적는다. ㄹㄹ은 ll로 적는다.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붙임]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치 않는다.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45. 장음과 단음

- 장음 : 선거(選舉)
- 단음 : 선풍기(扇風機), 선배(先輩), 선두(先頭), 선박(船舶)

제20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노랑 : '느릿느릿'과 같은 뜻을 지니는 고유어로, 동작이 재지 못하고 매우 느린 모양

*해살 : 남의 일에 짓궂게 훼방을 놓는 짓

*가탈 :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씩수 :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씩'과 같은 뜻

*주눅 :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 부끄러움을 모르고 언죽번죽하는 태도나 성질

17번

- *백미(白眉) :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
- *회자(膾炙) :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
- *서광(曙光) : 기대하는 일에 대하여 나타난 희망의 징조
- *서광(西光) : 서방 정토의 부처의 빛. 항상 광명이 비친다.
- *관건(關鍵)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풍운(風雲) : '바람과 구름'을 뜻한다. '풍운의 꿈'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면 '풍운을 타고 큰일을 이룩하려는 뜻' 정도의 의미를 지님.

18번

- *가공(架空) : 이유나 근거가 없음. 또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 냄.
- *가공(加功) : 죄 되는 일을 거드는 행위
- *고적(孤寂) : '외롭고 쓸쓸함'을 뜻하는 한자어
- *몰각(沒却) : '아주 없애버림' 혹은 '무시해 버림'의 뜻을 지닌 한자어
- *막후(幕後) : 자의적으로는 '막의 뒤', 의미가 확장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뒷면'의 뜻을 가짐
- *식언(食言) :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른다.

19번

- *기한(期限) :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 *기간(其間) :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
- *체계(體系)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 *체제(體制) :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
- *구분(區分)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 *구별(區別) :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 놓음
- *구조(構造) :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

20번

- *두런두런 :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그 모양
- *즈런즈런 :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풍족한 모양
- *바작바작 : '물기가 적은 물건이 타들어 가는 소리나 그 모양'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마음이 매우 안타깝게 죄어드는 모양'
- *알근알근 : 매워서 입안이 매우 알알한 느낌, 술이 취하여 정신이 매우 아련뚝한 느낌
- *할금할금 : 결눈으로 살그머니 자꾸 할겨 보는 모양

21번

- *남다 : 들인 밑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얻는 것이 많다. 또는 이익을 보다.
- *새다 : 기체, 액체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 나가거나 나오다.
- *나가다 :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다.
- *빠지다 :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흘러 나가다. 그릇이나 신발 따위의 밑바닥이 떨어져 나가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남다.
- *떨어지다 : 달렸거나 붙었던 것이 갈라지거나 떼어지다.

22번

- *선망(羨望)하다 : 부러워하여 바라다
- *질시(嫉視)하다 : 시기하여 보다
- *개진(開陣)하다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 *반박(反駁)하다 :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하다.
- *책망(責望)하다 :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다.
- *우롱(愚弄)하다 :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
- *훼방(毀謗)하다 : 남을 헐뜯어 비방하다. 또는 남의 일을 방해하다.
- *편하(賤下)하다 : 가치를 깎아내리다. 또는 치적이 좇지 못한 수령을 하등으로 깎아내리다.

23번

- *통 : '통에'꼴로 쓰이며,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

- *바람 : ‘-는 바람에’로 쓰이며,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 *김 : ‘-은/는 김에’로 쓰이며,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
- *바 : ‘-은/는/을 바에(는)’ 구성으로 쓰이며,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마당 : ‘마당에’꼴로 쓰이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판이나 상황
- *판 : 처지, 판국, 형편을 뜻한다.
- *터 :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24번

- *잔말 :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세담(細談), 세설(細說)과 의미 상통
- *혼잣말 :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 독언(獨言)
- *군말 :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군수리, 췌변(贅辯), 췌설(贅說), 췌언(贅言)
- *빈말 : 실속 없이 헛된 말. 공(空)말, 허설(虛說), 허언(虛言)
- *입찬말 :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 *놀언(訥言) : 더듬거리는 말

25번

- *금성 : 셋별 - 동의 관계
- *형제 : 자매 - 반의 관계
- *바다 : 자연 - 상하 관계
- *영화 : 배우 - 후자가 전자의 수많은 요소 중의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상하관계로 보긴 어렵다
- *학생 : 남자 - 의미 관계 찾기 어려움
- *아침 : 식사 - 상하 관계

26번

- *‘진’이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
 - 진(盡)하다 : 다하여 없어지다
 - 진(津)하다 : 액체의 농도가 짙음
 - 진(眞) : 참된 또는 진짜
- *‘진’이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
 - 진(陣) : 사람의 무리 또는 집단

27번

- *각오(覺悟) :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 *각성(覺醒) : 깨달아 앎

28번

- *미봉책(彌縫策) :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
- *고식지계(姑息之計) :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 *임시방편(臨時方便) :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
- *하석상대(下石上臺)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다는 뜻
- *고육지책(苦肉之策) :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

29번

- *씩어도 준치 :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
- *떼어 놓은 당상 :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음
- *시루에 물 퍼붓기 :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공을 들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
- *단김에 소뿔 빼기 :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
- *원님 덕에 나팔 불기 :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되는 모양

30번

- *부락(部落) : 시골에서 여러 민가가 모여 이룬 마을. 또는 그 마을을 이룬 곳 → 마을
- *가료(加療) : 치료 → 고침, 병 고침

- *도합(都合) : 모두 합한 셈 → 모두, 합계
- *잔고(殘高)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잔액
- *파랑 : 잔물결과 큰 물결

31번

겹받침의 첫소리가 발음되면 소리대로,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굶다[국따] - 굶다랴다
- *째다[잘따] - 째다랴다
- *얹다[알따] - 얹다랴다
- *늑다[늑따] - 늑적하다
- *넓다[널따] - 널찍하다

32번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만만찮다(X) 만만찮다 (O)
- *힐소냐(X) 힐쏘냐 (O)
- *할게요(X) 할게요 (O)
- *생각컨대(X) 생각건대 (O)
- *띄여(X) 띄어 or 트여 (O)

33번

- *느지막하다 :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음을 뜻하는 말
- *찌뿌듯하다 : 몸살이나 감기 따위로 몸이 무겁고 거북하다
- *해쓱하다 :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
- *수두룩하다 : 매우 많고 흔하다
- *새치름하다 : 조금 쌀쌀하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34번

- *ㄴ데 :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
- *간 : 의존명사. '먹든지'와 '간에'를 띄어 써야 한다.
- *지 : 의존명사. '시작된'과 '지'를 띄어 써야 한다.
- *만치 : 의존명사. '많은'과 '만치' 띄어 써야 한다.
- *대로 : 의존명사. '바라는'과 '대로' 띄어 써야 한다.

35번

- *작작 :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게 적당히
- *하도 :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지레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 *똥통 : 아주 몹시

36번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자는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물건을 선의에 의해,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추정한다.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제40조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0조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것을 준용하고 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됨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 시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감독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 시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37번

- *동건이와 소영이는 결혼했다. → 동건이는 소영이와 결혼했다.
- *멋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 멋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 *그녀는 분홍 구두를 신고 있다. → 그녀는 분홍 구두를 신는 중이다.
- *내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 *아직도 친구들이 모두 모이지 않았다. → 아직도 친구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or 아직도 친구들이 모두 모이지는 않았다.

38번

- *복병(伏兵) :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김. 또는 그 군사
- *근 일 년 : 근(近)이 가깝다는 뜻이기에, ‘근 일 년 가까이’는 중복된 표현
- *보급(普及) : 널리 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
- *과반수(過半數) : 절반이 넘는 수
- *부채(負債) :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39번

- *문장 속에서 형태가 바뀌는 품사 -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
마시다(동사), 예쁘다(형용사), 책상(명사), 무척(부사), 헌(관형사)

40번

- *‘종결어미’는 어떤 문장의 마지막에 붙는 어미로,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나뉜다.
- *‘있니, 있습니까’ 높임의 태도에 따라 종결어미 달라짐
- *‘앉아라’, ‘먹어라’ 명령형 종결어미.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짐
- *‘-다’ 평서형 종결어미, ‘-니’ 의문형 종결어미, ‘-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 *‘끝났군’뒤에 ‘오’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음.
- *‘갔다, 간다, 가겠다’는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보이지만, 이는 종결어미 ‘-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았-, -ㄴ-, -겠-’의 선어말어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1번

- *늑이다 : ‘늑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경우. ‘늑다’와 같이 주동문을 상정할 수 있다.
- *지우다 : ‘지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경우. ‘지다’와 같이 대응하는 주동문 상정할 수 있다.
- *숨기다 : ‘숨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경우. ‘숨었다’와 같이 주동문 상정할 수 있다.
- *읽히다 : ‘읽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경우. ‘읽었다’와 같이 주동문 상정할 수 있다.
- *날리다 : ‘날다’의 사동사로 만들어졌지만, ‘명성을 떨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주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42번

- *어떤 용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넣을 적에 소괄호(())를 쓴다.
- *첨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가운데첨(·)을 쓴다.
-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작은따옴표(‘ ’)를 쓰기도 한다.
-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음표(?)를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에 넣어 써야 한다.
-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줄표(—)를 쓴다.

43번

-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 : 스케줄, 도넛, 알루미늄, 버저, 마네깅

44번

- *안압지 : Anapji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어야 하기 때문.
- *을밀대 : Eulmildae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낙화암 : Nakhwaam -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인표(-) 없이 붙여 쓴다.
- *부벽루 : Bubyongnu
- *경희궁 : Gyeonghuigung

45번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주도 [제:] - 장음.

*제법, 제목, 제기, 제명 - 모두 단음.

제21회 KBS한국어능력시험

제21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어휘의 사전적 의미

- * 판통같이 : 전혀 엉뚱하게
- * 억척같이 : 몹시 모질고 끈덕지게 (억척 -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몹시 모질고 끈덕짐)
- * 철석같이 : 매우 굳고 단단하게(철석,鐵石 - 쇠와 돌)
- * 득달같이 : 잠시도 늦추지 아니하게(예) 득달같이 해치우다. 득달같이 달려오다)
- * 다락같이 : 물건 값이 매우 비싸게, 덩치나 규모 정도가 매우 크고 심하게

17번 어휘의 사전적 의미

- * 간발(間髮) : 터럭 사이의 거리, 대단히 차이가 적음,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
- * 관건(關鍵) : 문지방과 자물쇠.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 문제 해결의 관건을 쥐다, 이것이 관건이다)
- * 계륵(鷄肋) : 닭의 갈비,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 몸이 몹시 약한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비견(比肩) : 어깨를 나란히 한다,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함
- * 장족(長足) : 기다랗게 생긴 다리, 사물의 발전이나 진행이 매우 빠름
(예) 장족의 발전, 장족의 진보)

**보충 : 비유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 * 시금석(試金石) : 총셋돌, 가치·능력·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진애(塵埃) : 티끌과 먼지, 세상의 속된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추파(秋波) : 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은근히 보내는 물결, 관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태도나 기색
- * 파락호(破落戶) :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난봉꾼을 이르는 말.
- * 호도(糊塗) :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금자탑(金字塔) : '金'자 모양의 탑이라는 뜻으로, 피라미드를 이르던 말. 길이 후세에 남을 뛰어난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교두보(橋頭堡) : 다리를 엄호하기 위하여 쌓은 보루(堡壘), 상륙·도하(渡河)작전에서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강기슭이나 해안선의 한 모퉁이를 점거하고 그곳에 마련한 작은 진지,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번 어휘의 사전적 의미

- * 자청(自請) :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 * 창건(創建) : 건물이나 조직체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거나 이룩함
(예) 건물 창건, 신당 창건, 왕조 창건)
- * 제고(提高) : 쳐들어 높임
(예) 생산성의 제고, 능률의 제고, 이미지의 제고)
- * 한담(閑談) :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
- * 예방(禮訪) : 예를 갖추는 의미로 인사차 방문함.

19번 어휘의 문맥적 의미

- 게재(掲載)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계제(階梯) :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 개재(介在) :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20번 어휘의 문맥적 의미

- * 상동상동 : 작고 연한 물건을 단번에 잇따라 가볍게 베거나 자르는 모양
- * 넘성넘성 : 계속 넘어다보는 모양, 남의 것을 탐내어 가지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모양
- * 재자재자 : 자꾸 가볍게 지저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예) 어디선가 재자재가 울어 대는 새소리가 들렸다)
- * 가랑가랑 : 액체가 많이 담기거나 피어서 가장자리까지 찰 듯한 모양
- * 을밋을밋 : 기한이나 일 따위를 우물쩍거리며 잇따라 미루는 모양
(예) 그는 지난달부터 원고 마감일을 을밋을밋 미루고 있었다)

21번 어휘의 문맥적 의미

- * '나다'의 다양한 의미
- [1] 「1」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예) 개나리 가지에 새싹이 났다.)
 「2」 길, 통로, 창문 따위가 생기다. (예) 우리 마을에 길이 났다.)
 「3」 어떤 사물에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 변화가 생기거나 작용에 이상이 일어난다.
 (예) 양말에 구멍이 나다.)
 「4」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 (예) 기사가 신문에 나다.)
- [2] 「1」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예) 남부 지방에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2」 농산물이나 광물 따위가 산출되다. (예) 개성에서는 인삼이 많이 난다.)
 「3」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예) 축대가 무너져 온 동네에 난리가 났다.)
 「4」 인물이 배출되다. (예) 우리 고장은 큰 인물이 많이 났다.)

22번 어휘 간의 의미 관계

- * 건토(乾土) : 습기가 거의 없는 메마른 땅
- * 박토(薄土) : 메마른 땅
- * 옥토(沃土) :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 * 강토(疆土) :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땅
- * 동토(凍土) : 얼어붙은 땅

23번 어휘 간의 의미 관계

- * '들다'의 다양한 의미
- 들다01
- [1]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한다.
- [2]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 [3]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
- [4]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 [5] 「1」 잠이 생기어 몸과 의식에 작용하다.
 「2」 나이가 많아지다.
 「3」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
 「4」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5」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6」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
 「7」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
 「8」 식물의 뿌리나 열매가 속이 단단한 상태가 되다.

들다02

- [1] 비나 눈이 그치고 날이 좋아지다.
- [2] 흐르던 땀이 그치다.

들다03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

들다04

- [1] 손에 가지다.
- [2] 「1」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 「2」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

24번 어휘 간의 의미 관계

* '걸다'의 다양한 의미

걸다01

- 「1」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이 많다.
- 「2」 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 「3」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 「4」 말씨나 숨씨가 거리낌이 없고 푸지다.
- 「5」 ('~게'의 꼴로 쓰여)푸짐하고 배부르다.

걸다02

- [1] 「1」 벽이다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2」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치르다.
- 「3」 술이나 냄비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 「4」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2] 「1」 돈 따위를 계약이나 내기의 담보로 삼다.
- 「2」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 「3」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4」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
- 「5」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25번 어휘 간의 의미 관계 : 다음 중 '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리다'의 다양한 의미 - '치다'와 바꿔 쓸 수 없음

-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
- 찢거나 부엌던 살이 빠지다
- 타고 있던 물체에서 밖으로 나와 어떤 지점에 이르다
-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겨가다

*'치다'의 다양한 의미

치다01

- 「1」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게 뿌리다.
- 「2」 천둥이나 번개 따위가 큰 소리나 빛을 내면서 일어나다.
- 「3」 서리가 몹시 차갑게 내리다.
- 「4」 물결이나 파도 따위가 일어 움직이다.

치다 02

- 「1」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
- 「2」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3」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
- 「4」 망치 따위로 못을 박다.

치다 03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

치다 04

- 「1」 적은 분량의 액체를 따르거나 가루 따위를 뿌려서 넣다.
- 「2」 기계나 식물이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거름이나 약을 바르거나 뿌리다.
- 「3」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기름을 두르다.

26번 한자어의 독음과 표기

구분	수(손 수, 手)	수(머리 수, 首)	수(셀 수, 數)
뜻풀이	바둑이나 장기 따위를 두는 기술. 또는 그 기술 수준.	「1」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 「2」 닭이나 오리를 세는 단위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
예문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수를 읽다.	시조 한 수를 짓다.	-올해는 수가 나쁘니 조심해라. -이 집은 수를 때우는 것이 좋겠다.

27번 한자어의 독음과 표기

- * 난색(難色) :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기색. 어려울 난을 씬.
- * 막간(幕間) : 어떤 일의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이 시작될 동안. 막과 막의 사이.
- * 이문(利文) : 이익이 남는 돈
- * 강단(剛斷) : 굳세고 깨끗하게 견디어 내는 힘.
- * 산적(山積) : 물건이나 일이 산더미 같이 쌓임. (예)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8번 속담 및 관용 표현

- * 미증유(未曾有) :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 * 전인미답(前人未踏) :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함, 이제까지 누구도 손을 대어 본 적이 없음
- * 전대미문(前代未聞) :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일
- * 전무후무(前無後無) :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 유사단어
- ** 파천황(破天荒) :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이룸
- ** 공전절후(空前絶後) :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 *** 전도요원(前途遙遠) : 가야 할 길이 아득히 멀, 장래가 창창하게 멀

29번 속담 및 관용 표현

- * 망건 쓰고 세수 한다 :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탕건쓰고 세수한다)
- * 거미줄에 목을 맨다 : 어처구니 없는 일로 몹시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르는 말(=송편에 목을 따 죽지)
- * 남의 말도 석 달이다 : 소문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는 말
- ** 남의 말과 관련된 속담
- 남의 말 다 들으면 목에 칼 베풀 날 없다
-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 남의 말에 안장 지운다
-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 * 다 된 죽에 코 풀다 : 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없는 행동, 남의 다 된 일을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
- * 시루에 물 퍼붓기 : 구멍 난 시루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공을 들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번 순화어

한자어라도 많이 쓰이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단어의 순화이다.

- * 수순(手順) : 정하여진 기준에서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관계(=차례, 순서)
- * 납득(納得) :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이해)
- * 잔고(殘高) : 나머지 금액(=나머지, 잔액)
- * 부락(部落) : 시골에서 여러 민가(民家)가 모여 이룬 마을(=마을)
- * 저간(這間) : 시간적 의미인 '요즈음'을 뜻하는 말

31번 어법에 맞는 표현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표준 발음법> 제28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 소리로 발음한다.

- 한글 맞춤법

- * 우유(牛乳-) + 빛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 '우윳빛'
- * 우유(牛乳-) + 병(瓶) = 모두 한자어. 해당사항 없음. → '우유병'

- 표준 발음법

- * 우유(牛乳-) + 빛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 [우유뽁]
- * 우유(牛乳-) + 병(瓶) = 모두 한자어.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는 뒷 단어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 소리로 발음. → [우유뽁]

32번 어법에 맞는 표현(*1회 시험 출제)

- * -다고 해요 = -대요 (-데요 X)
예)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고 해요 → 학원을 안 다녀도 된대요.
- * -이어서 (-이여서 X)
예) 연휴가 총 사흘이어서 실제로는 목요일부터 귀경 차량이 몰릴 것입니다.
- * -든[선택의 의미], -던[과거의 의미]
예) 뇌세포가 망가진다면지 하여 몸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게 (-게 X)
예) 곧 돌아올게.
- * -하십시오 (-하십시오X)

** 잘못 쓰기 쉬운 어미

-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알렸다)
- 밥을 먹을라고 한다. (→먹으려고)
- 웃길려고 한 이야기이다. (→웃기려고)
- 오늘은 안 할련다. (→하련다)
- 맛이 좋구만. (→좋구먼)
- 당신은 어떻게 할라우? (→하려요)

33번 어법에 맞는 표현

- * 걷잡다 :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걸잡다X)
- * 걸쭉하다 : 액체가 묽지 않고 꽤 걸다, 말 따위가 매우 푸지고 외설스럽다, 음식 따위가 매우 푸지다, 노래 따위가 매우 구성지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데가 있다.(걸죽하다X)
- * 구시렁거리다 :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구시렁대다)(궁시렁거리다, 궁시렁대다X)
- * 가지런히 : 여럿이 층이 나지 않고 고르게(가즈런히, 가지런이X)
- * 통틀어 : 있는 대로 모두 합하여(통털어X)

34번 띄어쓰기

- * 뿐

[1] 의존명사) 다만 어떠한가 어찌할 따름. 띄어쓰다

예)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2] 보조사)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 붙여쓰다

예)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 차

[1] 의존명사) 번, 차례, 기회, 순간. 띄어쓰다

예) 잠이 막 들려던 차(=순간)에 전화가 왔다

[2] 접미사) 목적. 붙여쓰다

예) 나는 사업차에 부산에 가야한다.

* 지

[1] 의존 명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안. 띄어쓰다

예)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2] 연결 어미) -는지. 붙여쓰다

예)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 만큼

[1] 의존 명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 띄어쓰다

예)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2] 격 조사)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 붙여쓰다

예)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다.

* 대로

[1] 의존 명사) 느낀 대로, 도착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지칠 대로. 띄어쓰다

예) 나는 화가 나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2] 조사) 법대로, 큰 것대로. 붙여쓰다

예) 큰 것은 큰 것대로 모아 뒀다 한다.

35번 표준어

* 무지(無智) : '보통보다 훨씬 정도에 지나치게'의 뜻을 지니는 표준어

예) 사업으로 돈을 무지 벌었다.

* 오만(五萬) : '매우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를 이르는 관형사. 표준어

예) 그녀는 타지에서 오만 설움을 겪으며 지냈다.

* 말짱 :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여, 속속들이 모두'의 의미를 가지는 표준어

예) 누나는 말짱 소용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 대뜸 :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의 뜻을 가지는 표준어

예)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대뜸 화부터 내기 시작했다.

** 제우 : '어렵게 힘들어', '기껏해야 고작'의 의미를 지니는 '겨우'의 강원, 경남, 전라, 충청, 함경 방언이다.

36번 올바른 문장 : 문장표현

최근 '녹색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① 특허청은 2010년 전체 디자인 등록 출원은 2009년과 대비해 4%가 증가한 것에 반해, 자전거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은 약 129%가 증가하였다. ② 또한, 2010년 2월 까지 약 119건이 출원되어 금년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③ 이처럼 자전거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이 증가한 것은 자전거 도로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에서 공공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등록 출원의 증가가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유망 디자인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상표 디자인 심사 국장은 "디자인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디자인의 개발뿐만 아니라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디자인권을 선점해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문항해설이 필요없는 항목이라 생각되어 생략함. 답은 ④번.

37번 올바른 문장 : 주술 호응

* 이번 훈련은 핵이나 대량 파괴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세워 검색하는 내용입니다 →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핵이나 대량 파괴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세워 검색하는 데에 있습니다.

38번 올바른 문장 : 중복 표현

* 회고(懷古) : 옛 자취를 돌이켜 생각함

예) 돌이켜 회고해 보건대 나의 청춘은 아름다웠다. → 회고해 보건대 -

* 근 : 가까이

예) 근 일 년 가까이 소식이 없다 → 일 년 가까이 -

* 약술(略述) : 간략하게 논술함.

예) 짧게 약술하라 → 약술하라

* 명시(明示) :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예)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 명시되어 있다.

** 소견(所見) :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짧은 소견은 중복표현이 아님.

** 중복 표현 더 알아두기

- 열심히 열중(熱中)하다.
- 미리 예상(豫想)하다.
- 활짝 만개(滿開)하다.
- 상을 수상(受賞)하다.
- 차를 주차(駐車)하다.
- 돈을 송금(送金)하다.
- 시체를 검시(檢屍)하다.
- 매주(每週) 일요일마다.

39번 문법 요소의 이해 : 관형격 조사 '-의'

조사 '의'는 체언 뒤에 붙어 체언과 체언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체언과 체언 사이라 할지라도 ① '의'를 쓰면 말이 안 되는 맥락이 있기도 하고 ② '의'가 들어갔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맥락이 있기도 하므로, 조사 '의'를 쓸 때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① '의'를 쓰면 말이 안되는 맥락

예) 가죽 구두, 돼지 저금통, 양복 주머니

② '의'가 들어갔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맥락

예) 의사 친구, 소년 영웅

* '의'의 의미

「1」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며,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영이의 얼굴

「2」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우리의 각오

「3」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을 만들거나 이론 형성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다윈의 진화론

「4」 앞 체언이 뒤 체언의 과정이나 목표 따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승리의 길

「5」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질서의 확립

「6」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며, 뒤 체언이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태가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 예) 서울

의 찬가

「7」 뒤 체언에 오는 인물의 행동이나 행위가 앞 체언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아파트의 주인

40번 문법 요소의 이해

명령형은 직접 명령형과 간접 명령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명령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때 쓰이며,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 간접 명령형은 인쇄 매체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될 때나, 화자가 3인칭으로서 단체나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불특정 청자에게 명령의 뜻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하라'의 형태로 실현된다.

- 직접 명령형

예)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골라라('-아라', 해라체 어미)

 잘 살아라('-아라', 해라체 어미)

- 간접 명령형

예) 잘 살아('-(으)라', 하라체 어미)

**

직접 명령형('-아라')	간접 명령형('-(으)라')
살아라	살라
고쳐라	고치라
되어라	되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41번 문법 요소의 이해

우리말의 2음절 한자어 명사 중에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명사들은 (1)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이 많으며, 뒤에 오는 (2)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문장 속에서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으로도 쓰일 수 있어 관형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어 학계에서 '불구 명사'로 표현하는 특수한 성격의 한자어다.

* 공모(公募) :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 조사 제약이 거의 없고 관형사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음

예) 공모로 선발하다, 공모에 응하다, 공모를 실시하다

* 간이(簡易) : 간단하고 편리함.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관형사 기능을 수행함, 조사 제약이 있음

예) 간이 화장실, 간이 역

* 국제(國際) : 나라 사이에 관계됨.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관형사 기능을 수행함, 조사 제약이 있음

예) 국제 관계, 국제 대회, 국제 시세, 국제 규격

* 상설(常設) :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둠.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관형사 기능을 수행함, 조사 제약이 있음

예) 상설 시장, 상설 전시장

* 응급(應急) :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처리함.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관형사 기능을 수행함, 조사 제약이 있음

예) 응급 사태, 응급 환자, 응급 차량

42번 문장부호

- 쉼표 (,)

일반적으로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 될 때 사용. 조사로 연결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벼루와 붓과 종이와, 먹은 문방사우라 한다. → 벼루와 붓과 종이, 먹은 문방사우라 한다.

- 세미콜론(;),
국어문장부호가 아니다.

- < >
문장 부호 규정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강조를 할 때는 대신에 드러냄표(· , °) 대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 소괄호((,))
묶음표 중 하나로 원어·연대·주석·설명 등을 넣을 때 쓰인다.

- 대괄호([,])
묶음표 중 하나로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경우 사용한다.

예)
깊은 밤(夜) 화롯불에 구워 먹는 밤(栗) 맛이 일품이다. → 깊은 밤[夜] 화롯불에 구워 먹는 밤[栗] 맛이 일품이다.

** 중괄호 ({ , })
묶음표 중 하나로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을 때 쓰인다.

43번 표준발음

- * 원칙[원칙] :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 * 원[원] :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
- * 원자[원자] : 물질의 기본적 구성 단위
- * 원화[원화] : 원을 화폐 단위로 하는 한국의 화폐

** 원하다[원:하다] : 바라다, 소망하다

참고로,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합성어의 경우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44번 외래어 표기법

- * pamphlet - 팸플릿, 설명이나 광고·선전 따위를 위하여 알뜰하게 맨 작은 책자
- * chart - 차트, 지도·해도 따위의 도면
- * curtain - 커튼(카튼, 커텐X)
- * kocher - 코펠
- * clinic - 클리닉, 특정한 병이나 장애 따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

45번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북엇국[부견국] : bugeotguk(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 된장국[된장국] : doenjangguk
- * 다슬깃국[다슬길국] : daseulgiguk
- * 맑은장국[말근장국] : malgeun-jangguk
- * 떡배기만둣국[떡빼기만둣국] : ttukbaegi-mandutguk

22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

웃음가마리 : 남의 웃음거리가 됨. 또는 그런 사람

(유의어)웃음거리 : 남으로부터 비웃음과 놀림을 받을 만한 일. 또는 그런 사람

웃음꾼 :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또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웃음살 : 웃음으로 얼굴에 번지는 환한 기운 (예) 웃음살이 피다, 웃음살이 벌어지다

웃음새 : 웃는 모양새 (예) 웃음새가 곱다, 웃음새가 예쁘다

웃음바다 : 한데 모인 수많은 사람이 유쾌하고 즐겁게 마구 웃어 대는 웃음판

17.

우수(憂愁) : 우수에 젖은 눈

(동음이의어) 우수(雨水) : (1) 빗물 (2) 24절기의 한 때

자웅(雌雄) : 암컷과 수컷. 승부, 우열, 강약 따위를 비유. (예) 자웅을 겨루다, 자웅을 다투다

사족(蛇足) : 화사첨족의 준말.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아니한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는 말 (예) 사족을 달다, 사족을 붙이다

산실(産室) : 해산하는 방. 어떤 일을 꾸미거나 이루어 내는 곳, 또는 그런 바탕

선풍(旋風) : 회오리바람.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18.

염치(廉恥) :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면목(面目) : 얼굴의 생김새 (예) 면목이 없다

골치 : '머리' 혹은 '머릿골'을 숙되게 이르는 고유어 (예)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썩다

부아 : '허파'를 가르키며 노엽거나 분한 마음을 뜻한다

오금 :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 (예) 오금이 저리다 :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인다

19

재우 : 매우 재계

사뭇 : 거리낌 없이 마구. 내내 끝까지. 아주 단 판으로.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

내쳐 : (1) 어떤 일 끝에 더 나아가 (2) 줄곧 한결같이 (예) 같은 증세가 내쳐 계속되다. 한달 내쳐 가물다

바투 :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예) 머리를 바투 깎다. 날짜를 바투 잡다

지레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예) 지레 꿰지다 : 일의 앞뒤 맥락은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참견하기를 좋아하다. 지레 채다 : 지레짐작으로 알아차리다

20.

갈그락갈그락 : 붙어 있는 찌꺼기 따위를 자꾸 긁어내는 소리

잘파닥잘파닥 : (1) 얇은 물이나 진창을 자꾸 거칠게 밟거나 치는 소리나 모양 (2) 여럿이 다 조금 힘없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소리나 모양 (예) 가뭄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잘파닥잘파닥 넘어졌다

후드득후드득 : 깨나 콩 따위를 볶을 때 크게 잇따라 튀는 소리. 멀리서 총포나 딱총 따위가 매우 부산하게 잇따라 터지는 소리. 나뭇가지나 검불 따위가 불뚱을 튀기며 기세 좋게 잇따라 타들어 가는 소리. 굵은 빗방울 따위가 성기게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

왁자글왁자글 : =왁자지껄. 여럿이 한데 모여 잇따라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모양

고시랑고시랑 :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자꾸 줌스럽게 하는 모양. 여러 사람이 자꾸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 모양

구시렁구시렁 :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자꾸 듣기 싫도록 하는 모양

21.

쓰다

- (1)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 (2) 장구나 옷놀이 따위에서 말을 규정대로 옮겨 놓다
- (3)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

22.

출제(出題) : 문제나 제목을 내다

공유(共有) :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선사(膳賜) :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주다

상연(上續) : 연극 따위를 무대에서 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일

조리(調理) : 음식을 만듦. 도는 그 방법이나 과정

재단(裁斷) : =마름질.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

23.

두둔(斗頓)하다 : 편들어 감싸 주거나 역성을 들어주다

(유의어)감싸다 : 흥이나 허물을 덮어주다

(유의어)편들다 : 어떤 편을 돕거나 두둔하다

(유의어)비호(庇護)하다 : 편들어서 감싸주고 보호하다

(유의어)역성들다 : 누가 옳고 그른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한쪽 편만 들다

(유의어)끼고돌다 : 상대방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

감돌다 : (1) 돌레를 여러번 빙빙 돌다 (2) 기운이 가득 차서 떠돌다

24.

대다 : (1)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다 (2) 정해진 시간에 닿거나 맞추다 (3) 서로 견주어 비교하다 (4) 무엇을 덧대거나 뒤에 받치다 (5) 어떤 것을 목표로 하여 총, 호스 따위를 겨냥하다

25.

분다 : (1)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2)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붓다 (활용) 부어, 부으니, 붓는

붓다1 : (1)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2)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

붓다2 : (1)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2) 모종을 내기 위하여 씨앗을 많이 뿌리다 (3) 불입금,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4) 시선을 한곳에 모으면서 바라보다

불다 : (1)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2) 유행, 풍조, 변화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3-1) 입을 오므리고 날숨을 내어 보내어, 입김을 내거나 바람을 일으키다 (3-2)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그 사이로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3-3) 코로 날숨을 세계 내어보내다 (3-4) 관악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3-5) 풀무, 풍구 따위로 바람을 일으키다 (4) 숨겼던 죄나 감추었던 비밀을 사실대로 털어놓다

26.

개정(改正) : 문서의 내용을 고쳐 바르게 함 (예) 헌법 개정, 회칙 개정, 악법 개정

개정(改定) : 정한 것을 다시 정함 (예) 요금 개정, 날짜 개정
개정(改訂) : 틀린 곳을 바로 잡는다 (예) 개정 증보판, 원고 개정

27.

상이(相異) : 서로 다름
벽두(劈頭) : 글의 첫머리 또는 일의 시작된 머리
신봉(信奉) : 사상이나 학설, 교리 따위를 옳다고 믿고 받들
혼동(混同)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판단(判斷) :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28.

견마지로 :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룸
혼정신성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
반포지효 :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
풍수지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
망운지정 : 자식이 객지에서 교향에 계신 아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29.

코(가) 빠지다 :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
밥 위에 떡 : 좋은 일에 더욱 좋은 일이 겹침
새가 뜨다 : 사람 사이의 관계가 벌어져 소원해짐
마른 논에 물 대기 : 일이 매우 힘들거나 힘들여 해 놓아도 성과가 없는 경우
목(을) 놓아 : 주로 울거나 부르짖을 때에 참거나 삼가지 않고 소리를 크게 냄 (예) 목 놓아 부르다, 목 놓아 울다 (잘못된 예) 목 놓아 기다리다

30.

무데뽀 : 일본어 '無鐵砲'. 일의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른다. '막무가내', '무모' 로 순화
아싸리 : '차라리'로 순화
쿠사리 : 일본어 '쿠사리'. '면박', '핀잔'으로 순화
유도리 : '용통성'으로 순화
소쿠리 :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이란 뜻의 순우리말

31.

(친구들과 잘) 사겨서 ▶ 사귀어서
(신경을 안) 쓸래야 ▶ 쓰려야
(담배) 피다 ▶ 피우다
-르께요 ▶ -르게요

32.

쫄들리다 : 어떤 일이나 사람에 시달리거나 부대끼어 괴롭게 지내다

진무르도록 ▶ 짓무르도록

짓무르다 : 살갓이 혈어서 문드러지다. 채소나 과일 따위가 너무 썩거나 무르거나 하여 폭 물크러지다. 눈 자위가 상하여서 핏발이 서고 눈물에 젖다

널부러져 ▶ 널브러져

널브러지다 : 너저분하게 흐트러지거나 흩어지다. 몸에 힘이 빠져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축 늘어지다

들이키고 ▶ 들이켜고

들이키다 :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 (예)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발을 들이켜라

들이켜다 :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단숨에 마구 마시다. 혹은 공기나 숨 따위를 몹시 세차게 들이마시다

메식거린다, 메식꺼린다 ▶ 메숙거린다

메숙거리다 :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같이 속이 자꾸 심하게 울렁거리다 (유사 형용사) 메스껍다

33.

어쭈장게 ▶ 어쭈장게

어쭈장다 :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 아주 서투르고 어설피다. 또는 아주 시시하고 보잘 것 없다

몽기적거리다, 밍기적거리다 ▶ 몽그적거리다, 몽그적대다

몽그적거리다 :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 큰 동작으로 자꾸 게으르게 행동함

괘시리 ▶ 괘스레

괘스레 : =공연스레.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데가 있음을 이르는 말

꺼림직하다, 꺼름직하다 ▶ 꺼림칙하다, 꺼름칙하다

꺼림칙하다 : 매우 꺼림하다

구슬르다, 구실리다 ▶ 구슬리다

구슬리다 : 그럴듯한 말로 꺾어 마음을 움직이다

34.

따위 : 앞에 나온 대상을 낫잡거나 부정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 띄어 쓴다

-까짓 : 업신여기는 뜻에서 '어떤 정도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앞말에 붙여 쓴다

하고 : 구어체에서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앞말에 붙여 쓴다

더러 :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앞말에 붙여 쓴다

-끼리 :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 앞말에 붙여 쓴다

35.

되려 : '도리어'의 강원, 경상, 전남, 충남 방언. '되레' 표준어

어데 : '어디에'의 줄임말로 표준어

어쩜 : '어쩌면'의 줄임말로 표준어

첨 : '처음'의 줄임말로 표준어

널 : '내일'의 줄임말로 표준어

36.

[자연스러운 문장 찾아내는 문제라 통과합니다]

37.

38.

39.

뉘뉘 : '뉘은 뉘'의 구성에서 용언의 어미 '-은'이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뉘뉘 : 명사 '뉘'과 '뉘'의 통사적 합성어

뉘뉘 : 명사 '뉘'과 '뉘'의 통사적 합성어

뉘뉘 : '뉘다'의 관형형 '뉘'에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뉘'이 합성한 구조로 관형어 + 체언 단어 배열 방식의 통사적 합성어

뉘뉘 : '차다'의 관형형 '차'에 명사 '뉘'이 합성된 통사적 합성어

40.

뉘뉘 : '뉘(주어)+뉘다(서술어)'의 의미관계. 뉘이 좋은 점이나 우월한 점이 뉘다. '뉘뉘어울 것이 없다.' '뉘뉘지 않다.'와 같이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뉘뉘다 : 뉘보다(부사어) 뉘다(서술어)

뉘뉘뉘다 : 뉘에게(부사어)+ 뉘뉘다(서술어). 창피하여 뉘을 대하기가 뉘뉘다는 뜻

뉘다르다 : 뉘과(부사어)+다르다(서술어). 보통의 사람과 유난히 다르다는 뜻

뉘모르다 : 뉘(주어) + 모르다(서술어). 뉘이 알지 못하다는 뜻

41.

문법 형태소 '-었-'의 의미

-과거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

(예)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 작년 스승의 날에는 초등학교 은사님을 뵈었다.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철수는 이미 밥을 다 먹었다. 그녀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 신발을 신었다

-완료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

-상태 지속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기정사실화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예)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고추 농사는 다 지었다

42.

반점(.)의 사용은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제시어 다음에, 도치된 문장에,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
뒤에,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3.

커트 (1)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 내는 일. 또는 진행되던 일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일 (2)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일. 또
는 그 머리 모양 (3)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가 바라던 공이 아니거나 치기 거부할 때 배트를 살짝 대어 파울 볼로 처
리하는 일 (4) 탁구에서, 상대의 공에 역회전을 걸어 넘기는 타법

컷 (1)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이르는 말. '장면04'로 순화. (2) 대본이나 촬영한 필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
는 일 (3) 인쇄물에 넣는 삽화. '삽화02'로 순화. (4) 영화 촬영에서, 촬영을 멈추거나 멈추라는 뜻

44.

속리산[송니산] : Songnisan
관악산[과낙산] : Gwanaksan.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룡산[계/계룡산] : Gyeryongsan
묘향산[묘향산] : Myohyangsan
금강산[금강산] : geumgangsant

45.

메[메]주 : 콩을 삶아서 찜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베[베:]다 : 누울 때 베개 따위를 머리 아래에 받치다
세[세:]다 : 힘이 많다
헤[헤:]프다 : 쓰는 물건이 쉽게 닳거나 빨리 없어지는 듯하다
계[계:] : 십각목의 갑각류

제23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애오라지: '겨우'를 강조하여 이르거나,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길차: 가는 길의 근처

재겍계: '조금 지겹다'의 뜻

들마: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몰큰: 냄새 따위가 한꺼번에 확 풍기는 모양 (비슷한 의미의 어휘: 몰큰)

17번

졸지(猝地): 갑작스러운 판국

만반(萬般):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

공전(空前):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는 없음 (예시:공전의 성공, 공전의 성황, 공전의 히트)

차제(此際): 때마침 주어진 기회

와중(渦中): 원래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고 가운데'라는 의미로 확장적으로 쓰임

렵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18번

추서(追殺):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

재원(才媛):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 젊은 여자만을 가르킨다는 점에 유의

임종(臨終): '죽음을 맞이하다'라는 뜻과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 두가지

를 의미

보무(步武): 위엄있고 활기 있게 걷는 걸음

봉정(奉呈): 문서나 문집 따위를 삼가 받들어 올림

(예시: 저서 봉정, 기념집 봉정, 논문 봉정)

19번

메다: 어떤 장소에 가득 차다

매다: 1.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2. 가축을 기르다

3. 옷감을 짜기 위하여 날아 놓은 날실에 풀을 먹이고 고루 다듬어 말리어 감다.

배다: 스며들거나 스며 나오다

베다: 1.누울 때, 베개 따위를 머리 아래에 받치다

2.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

3.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다

떼다: 배우던 것을 끝내다

때다: 아궁이 따위에 불을 지피어 타게 하다

20번

흐슬부슬: 차진 기가 없고 부스러져 헤어질 듯한 모양

티적티적: 남의 흠이나 트집을 잡으면서 자꾸 비위를 거스르는 모양

담상담상: 드물고 성긴 모양. '듬성듬성'과 비슷한 뜻을 지님

우럭우럭: 1.불기운이 세차게 일어나는 모양

2.술기운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

3.병세가 점점 더하여 가는 모양

4.심술이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모양

엇기정기: 질서 없이 여기저기 벌여 놓은 모양

21번

뽑다: 1.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

2. 속에 들어 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
3. 무엇을 들인 돈이나 밀천 따위를 도로 거두어들이다
4. 원료나 재료로 길게 생긴 물건을 만들다
5.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

빚다: 1. 흙 따위의 재료를 이겨서 어떤 형태를 만들다

2. 가루를 반죽하여 만두, 송편, 경단 따위를 만들다
3. 지에밥과 누룩을 버무리어 술을 담그다
4. 어떤 결과나 현상을 만들다

갈다: 1.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2.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3.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보충

갈다-1

1.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2.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갈다-2

1.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
2.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3. 먹을 풀기 위하여 벼루에 대고 문지르다
4.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고 문질러 소리내다

갈다-3

1.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2. 주로 발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22번

접두사 ‘한-’의 의미

한-1

1. ‘큰’의 뜻 (예시: 한걱정/한길/한시름)
2. ‘정확한’, ‘한창인’의 뜻 (예시: 한가운데/한겨울/한낮/한밤중/한복판/한집)
3. ‘같은’의 뜻 (예시: 한패/한마을/한집안)

한-2

1. ‘바깥’의 뜻 (예시: 한데)
2. ‘끼니때 밖’의 뜻 (예시: 한동자/한음식/한저녁/한점심)

23번

글눈: 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장사눈: 장사의 잇속에 대한 안목

참눈: 사물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

도둑눈: 밤사이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

설눈: 설날에 내리는 눈

보충

가자미-눈: 화가 나서 옆으로 흘려보는 눈

송곳-눈: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초리

나비-눈: 못마땅해서 눈알을 굴려, 보고도 못 본체하는 눈짓

가루-눈: 가루 모양으로 내리는 눈

봄-눈: 봄철에 오는 눈

소나기-눈: 폭설

쇠-눈: 쌓이고 다져져서 잘 녹지 않는 눈

싸라기-눈: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24번

남실바람: 풍력 계급 2의 바람. 초속 1.6~3.3미터

산들바람: 풍력 계급 3의 바람. 나뭇잎과 잔가지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깃발이 가볍게 흔들

리는 정도의 바람
가 흔들리고 바다에서는

건들바람: 풍력 계급 4의 바람. 육지에서는 먼지가 일고 종잇조각이 날리며 작은 나뭇가지

걸이 인다.

물결이 인다.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5.5~7.9미터

흔들바람: 초속 8.0~10.7미터로 부는 바람으로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바다에서는 작은 물

육지에서는 보기 드문 엄

씩쓸바람: 풍력 계급 12의 몹시 강한 바람으로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32.7미터 이상이며,

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바다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킨다.

25번

순서

그꼬저께 - 그저께(그제) - 어제 - 오늘 - 내일 - 모레(내일모레) - 글피

26번

적벽가에서의 '적벽'은 붉은 절벽이라는 뜻이다.

붉을 적(赤), 벽 벽(壁)으로 표기해야 한다.

27번

서두(序頭): 일이나 말의 첫머리

선두(先頭): 대열이나 행렬, 활동 따위에서 맨 앞

각설(却說): 주로 글 따위에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

설명(說明):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 또는 그

런 말

교역(交易):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서로 바꿈

친교(親交): 친밀하게 사귀는 것 또는 그런 교분

진로(進路): 앞으로 나아갈 길

도로(道路):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28번

가마 타고 웃고름 단다.: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
(비슷한 의미의 속담: 말 태우고 버선 킁는다.)

29번

두부살: 피부가 희고 무른 살. 또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

바늘뼈: 바늘처럼 가는 뼈라는 뜻으로, 몸이 가늘고 호리호리한 사람의 뼈대

두부살에 바늘뼈 같은 사람: 두부같이 힘없는 살에 바늘처럼 가는 뼈를 가진 몸이 아주 연
람

약한 사

30번

순화어

로드맵 - 이행안

옵서버 - 참관인

리스크 - 위험

태스크포스 팀 - 전략 팀

제로베이스 - 원점

31번

사과를 하나씩만 따 가라: ‘따’는 ‘따다’의 어간 ‘따-’에 어미 ‘-아’가 붙어 ‘따아’가 되는 것 이 준 것

어서 일어나 학교에 가자.: 어간 ‘가-’에,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가 어울린 것

예전엔 나룻배로 강을 건넜지.: 어간 ‘건넜-’은 모음 ‘ㅓ’로 끝나는 어간 ‘건너-’에 어미 ‘-었-’이 붙어 본래 ‘건넜었-’이 되는 것이 ‘건넜-’으로 준 것

늦었으니까 다들 어서 차에 타.: ‘타’는 모음 ‘ㅏ’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가 붙어 ‘타아’가 되는 것이 준 것

누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어간 ‘들어갔-’은 모음 ‘ㅏ’로 끝나는 어간 ‘들어가-’에 어미 ‘-았-’이 붙어 본래 ‘들어가았-’이 되는 것이 ‘들어갔-’으로 준 것

32번

고기를 양념에 재 두어라.: ‘재’는 기본형 ‘재다’의 어간 ‘재-’에 ‘-어’가 어울려 본래 ‘재어’로 쓰는 말이 준말의 형태로 쓰인 것

일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돼’는 ‘되어’의 줄임말

신발 끈을 단단히 매 두어라.: ‘매’는 기본형 ‘매다’의 어간 ‘매-’에 ‘-어’가 어울려, 본래 ‘매어’로 쓰는 말이 준말의 형태로 쓰인 것

셈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세다.: ‘세다’는 기본형 ‘세다’에 과거형 어미 ‘-었-’이 붙은 것인데, 이 역시 ‘세’ 뒤에 ‘-었-’이 어울려 본래 ‘세었다’로 쓰는 말이 준말의 형태로 쓰인 것

손가락으로 문풍지에 구멍을 내다.: 기본형 ‘내다’에 과거형 어미 ‘-었-’이 붙은 것이므로, 본래 ‘내었다’로 쓰는 말이 준말의 형태로 쓰인 것

33번

뉘달: 남을 단단히 욕박질러서 혼을 냄

덤터기: 1. 남에게 넘겨쓰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2.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

등쌀: 몹시 귀찮게 구는 짓

뒤치다꺼리: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34번

-ㄹ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ㄴ결: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구어체 종결 어미.

-ㄹ밖에: ‘-ㄹ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

만큼: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ㄹ뿐더러: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뿐: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35번

표준어

안팍: 1. 안팍 두 짝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에서 안에 있는 짝

2. 나이나 거리 따위가 일정한 수효에 미치지 못한 범위

몽창: '모두'의 전남 방언

대뜸: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의 뜻을 지니는 부사

거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의 뜻을 지니는 부사

반절: '절반(折半)과 같은 뜻

36번

지나친 명사화 구성으로 인해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의 경우

도시 재개발은 안정적인 주택 확보와 환경을 개선하려고 추진되고 있다. (x)

도시 재개발은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0)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지나친 관형격 조사의 사용'

그렇지만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통의 파괴 또한 못지않다는 문제가 있다. (x)

그렇지만 도시를 재개발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전통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0)

주어부와 서술부가 호응을 이루고 있는 자연스러운 문장.

더군다나 원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도시 재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0)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로 인해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된 경우.

재개발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한 주거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은 것이다. (x)

재개발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한 주거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0)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로 인해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원치 않는 재개발로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x)

이러한 현상은 원치 않는 재개발로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0)

37번

'에': 앞말이 '말아 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내 친구가 학급 회장에 뽑혔다.

'에게':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는 격 조사

예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으로': 움직임을 방향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부장님은 부산으로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에서': 어떤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그는 바닥에서 자는 아들을 안아 일으켰다.

'의':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사물을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누나는 취직을 해서 서울의 회사로 떠났다.

38번

문장의 중의성

-고 있다.: 1.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2.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이 진행 중인 경우

39번

서술어로 쓰인 '거냐'의 '거'는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것'은 '것이다'와 같이 '이다'와 결합하므로, '것'의 구어적 표현인 '거' 역시 '이다'와 결합한다.

서술어로 쓰인 '밝으냐'의 '밝-'은 형용사 '밝다'의 어간이다.

서술어로 쓰인 '싫으냐'의 '싫-'은 형용사 '싫다'의 어간이다.

서술어로 쓰인 '짜냐'의 '짜-'는 형용사 '짜다'의 어간이다.

40번

‘있다’의 의미

-형용사 ‘있다’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예시: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2.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이다. 예시: 좋은 일이 있다.
3.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 예시: 그는 있는 집 자손이다.

-동사 ‘있다’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예시: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
2.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예시: 가만히 있어라.
3.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예시: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41번

‘으로’의 의미

1.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집으로 가는 길/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다.
2. 움직임의 경로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홍콩으로 해서 미국을 들어갈 예정이다.
3.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다./세상이 암흑으로 변했다.
4.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콩으로 메주를 쑤다/흙으로 그릇을 만들다.
5. 어떤 일의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톱으로 나무를 베다./붓으로 글씨를 쓰다./약으로 병을 고치다.
6.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격 조사.
7.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 ‘말미암아’, ‘인하여’, ‘하여’ 등이 뒤따를 때가 있다.
예시: 병으로 죽다./지각으로 벌을 받다./가난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었다.
8.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시: 회원으로 가입하다./회장으로 뽑히다./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42번

문장부호 규정

1.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반점을 쓴다.
예시: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큰 따옴표를 쓴다.
예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
3. 빈 자리임을 나타낼 때는 소괄호를 사용한다.
예시: 우루과이의 수도는 ()이다.
4.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물결표를 쓴다.
예시: 새마을: ~운동, ~노래
5.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는 빗금을 쓴다.
예시: 남궁만/ 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원

43번

Beatles:비틀즈->비틀스

외래어 용례 표기 원칙 제 6장에 따르면, 어말 -s[z]는 ‘스’로 적는다.

Renoir:르노와르->르누아르

Dracula:드라큐라->드라쿨라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6항에 따르면,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르르’로 적는다.

Columbus: 콜럼부스->콜럼버스

Tchaikovsky: 차이코프스키->차이콥스키

외래어 표기법 제3장 21절 1항에 따르면, 파열음과 마찰음 f,v는 무성 자음 앞에 있으므로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44번

소래길: Sorae-gil

북평리: Bukpyeong-ri

곡성읍: Gokseong-eup

덕림동: Deongnim-dong

별내면: Byeollae-myeon

‘행정 구역 단위’나 ‘가(街)’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붙임표(-)를 넣어야 하는데, 이때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충

관련 로마자 표기법

제2항

[붙임 2] ‘르’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르르’은 ‘ll’로 적는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do, si, gum,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45번

불별더위[불별더위]: 햇별이 몹시 뜨겁게 내릴 췌 때의 더위

일단락[일딸락]: 일의 한 단계를 끝냄

한자어에 ‘르’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제 26조항과 ‘ㄴ’은 ‘르’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제 20조항을 따름

폭발음[폭빠름]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ㅍ), ㅂ(ㅂ, ㅃ, ㅍ), ㅅ(ㅅ, ㅆ, ㅈ)’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 23조항을 따름.

뇌수막염[뇌수망념]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제 29조항을 따름.

문득[문득]

제24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6번

*부아: 노엽거나 분한 마음

*양짜: 옛되게 점잔을 빼는 짓(‘성질이 간작간작하고 암상스러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음)

*가탈: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이라는 뜻도 있음)

*말미: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일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고유어 〇, 한자어x)

*결단: 어떤 일이나 물건 EK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cf.결단: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17번

*완벽: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결함이 없이 완전함’을 이르는 말

*석권: ‘뜻자리를 만다’는 뜻으로, ‘빠른 기세로 세력 범위를 넓힘’을 이르는 말

*추호: ‘가을철 짐승의 가는 털’이라는 뜻으로, ‘아주 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간발(間髮): 확장적 의미는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이지만, 한자를 살펴보면 ‘터럭과 터럭 사이’라는 뜻을 알 수 있다.(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x)

*도탄: '진흙 구렁과 숯불'이라는 뜻으로, '몹시 곤궁한 지경'을 이르는 말

18번

*송영(送迎): 가는 사람을 보내고 오는 사람을 맞음

*숙환(宿患): 오래 묵은 병, 비유적으로 오래된 걱정거리

*모략(謀略): 계책이나 책략(긍정적 의미),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남을 해롭게 함 또는 그런 일(부정적 의미)

*영고(榮枯): 번영함과 쇠퇴함

*점멸(漸滅): 점점 멸망하여 감(cf.점멸(點滅): 어떤 생각이나 현상 따위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번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토끼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노루잠, 깡이잠)

*갈치잠: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옆으로 끼어 자는 잠

*나비잠: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개잠: 개처럼 머리와 팔다리를 오그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잠

*겉잠: 깊이 들지 않은 잠

*고주박잠: 등을 구부리고 앉아서 자는 잠

*그루잠: 깨었다가 다시 든 잠

*꽃잠: 깊이 든 잠, 결혼한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함께 자는 잠

*꾸벅잠: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잠

*꿀잠: 아주 달게 자는 잠

*사로잠: 염려가 되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조바심하며 자는 잠

*시위잠: 활시위 모양으로 웅크리고 자는 잠

20번

*섬벅섬벅: 크고 연한 물건이 잘 드는 칼에 쉽게 자꾸 베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헤실헤실: 어떤 물체가 단단하지 못하여 부스러지거나 헤지기 쉬운 모양, 사람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싱겁고 실속이 없는 모양

*상글상글: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

*할금할금: 결눈으로 살그머니 자꾸 할겨 보는 모양

*조롱조롱: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21번

*옹골차다: 매우 옹골지다, 실속이 있게 속이 짝 차 있다

*알차다: 속이 짝 차거나 내영이 아주 충실하다

*아물다: 과실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다, 일 처리나 언행이 옹골차고 아무지다, 사람됨이나 씩씩이 따위가 딱 옹골차고 헤프지 않다.

*실하다: 든든하고 튼튼하다, 재산이 넉넉하다, 허실없이 옹골차다

*아무지다: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사람의 경우에만 쓰일 수 있는 서술어)

*실딱하다: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다

22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 배다

-일이 손에 () / 장난기가 () 있었다 / 다리에 알이 ()

23번

*별 것 아닌 일에도 종종 화를 냈다->발끈했다

-발끈하다: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왈칵 성을 내다, 뒤집어엎을 듯이 시끄러워지다(온 동네는 발끈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격한 감정이 갑자기 일었다->울컥했다

-울컥하다: 격한 감정이 갑자기 일어나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섬뜩했다

-섬뜩하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 *앞뒤 사정을 따져 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욱하는
-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다
- *주뻗하다: 무섭거나 놀라서 머리카락이 곳곳하게 일어서는 듯한 느낌이 들다

24번

-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 뜨다
- 궁금해서 슬쩍 () 보았다 / 도배지가 () 버렸다 / 행동이 () 어디 제대로 먹고살겠어?

25번

- *엿을 고아 / 할아버지를 위해 달이시던 한약냄새 / 간장을 넣고 조리시던 생선의 맛
- *쑤다: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히다
- *다리다: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

26번

- *분수령(分水嶺): 분수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 *분수(噴水): 압력으로 좁은 구멍을 통하여 물을 위로 세차게 내뿜거나 뿌리도록 만든 설비 또는 그 물. 뿜을 분(噴)
- *분수(分數):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엔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를 수 있는 한계

27번

- *동화(同化):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 *동화(同和): 같이 화합함
- *동화(童畵): 아동이 그린 그림
- *동화(童話): 어린이를 위해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 *동화(動畵): 만화 영화에서, 한 장면 한 장면의 그림을 이르는 말

28번

-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도둑맞고 사립 고친다
-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
-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
- *당랑거철(螳螂拒轍):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감탄고토(甘香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추우면 다가들고 더우면 물러선다
-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29번

- *비 오기 전에 집이다: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었음
- *비 오는 날 장독 덮었다: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유세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 *비 오는 날 소꼬리 같다: 몹시 귀찮게 구는 것
- *비 톨으로 빠져 나가겠다: 행동이나 동작이 매우 민첩함
- *비 오는 것은 밥 짓는 부엌에서 먼저 안다: 비가 오려고 기압이 낮아지면 아궁이에 불이 잘 안 붙으므로 부엌의 아낙네들이 비 오는 것을 먼저 알게 된다는 말

30번

- *트렌드->경향, 추세
- *핀트->초점
- *스캔들->추문
- *붐->대성황, 대유행, 성황
- *데드라인->마감

31번

- *틀린 표현: 정들은옛집, 옥상에 넌은빨래, 땀에 절은 옷, 거칠은벌판
- *올바른 표현: 정든, 넌, 거친

*짐을 실은(○) 트럭이: '신다'는 '신고, 실어, 실으니, 실은' 등으로 활용

*한글맞춤법 제4장 제2절 제18항: 'ㄹ'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임을 나타내는 어미 '-ㄴ'이 붙으면,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지며 준 대로 적는다

32번

*산은 신록으로 덮혀(x) 있었다 ->덮여

*소매를 걷어부치고(x) ->걷어붙이고

*물이 부딪질(x) 듯 세차게 ->부서질

*손을 담궜더니(x) ->담궜더니

*엷히고설킨(○)

33번

*긱불(x) ->긱불(○): 긱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답을 맞히다(○), 맞추다(x): '맞히다'에는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정답을 골라낸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맞추다'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져서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와 같은 경우에만 쓴다

*어이없다(○), 어의없다(x)

*눈살(○), 눈쌀(x)

*오지랴(○), 오지람(x)

34번

*손님더러(○): '더러'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안 하느니만(○): '-느니만'은 어미 '-느니'에 보조사 '만'이 결합한 것으로, 답지에서와 같이 주로 '-느니만 못하다'의 구성으로 쓰인다

*보냈다뿐이지(x)->보냈다 뿐이지(○):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뿐'은 답지에서와 같이 주로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원칙대로(○), 자식들에게서조차(○): '대로'와 '조차' 역시 보조사 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35번

*표준어: 아서라, 애고(아이고의 준말), 어찌, 얼씨구

*하먼: '아무렵'의 전라도 방언

36번

*숲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의 낙원이자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x); '어떤 대상'에게 숲이 '생물의 낙원이자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자연스럽게 연결됨

*특히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에는 놀랄 만큼 많은 생물 종이 살고 있으며,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x):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에 해당하는 주어를 밝혀야 함

*그런데 농지 개간과 목재 생산으로 열대 우림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을 파괴하는 원인이 눈앞의 작은 이익과 방관 때문이라는 것은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여 준다 (x): '작은 이익'과 '방관'에 해당하는 서술어 생략, '방관'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생략되어 있어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불분명. (->숲을 파괴하는 원인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꾀하고, 자연 파괴를 방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구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의 이름은 바로 인간이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몰락해 가는 어리석은 동물이다(x):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몰락해 가는 어리석은 동물'에 해당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아 부자연스러움. (->지구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의 이름은 바로 인간이며, 이 인간이야말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몰락해 가는 어리석은 동물이다)

37번

*그 사람과는 도무지 말이 잘 통한다(x): '도무지'는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야 자연스러움

*제시간에 도착한 것은 비단 나뿐이었다(x): '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

*정원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가 않았다(○): '여간'은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간-않았다'의 호응 관계가 있어야 함

*그는 비록 몸은 피곤하면서 마음만은 편안했다(x): '비록'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의 뜻, '-르지라도', '-지마는'과 같은 어미가

붙는 용언과 함께 쓰여야 함

*그녀는 결코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x):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의미를 가짐.

38번

- *별은 보통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다 ->별은 보통의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다
- *그녀는 웃으면서 달려오는 동생을 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달려오는 동생을 보았다
-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어떤 학생이든지 선생님은 만나고 싶어한다(중의성 해소x)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또는 '어떤 학생이든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로 수정
- *반드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 *많은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39번

*보기와 관련 없는 것은? ④

해라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 ①이기고 돌아오라 ②인재가 되라 ③그날을 기억하라 ④물러서지 마라 ⑤끝까지 싸우자
- '하라체'에 대한 설명. 간접 명령의 하라체는 화자가 3인칭으로, 단체나 복수의 성격을 띠며, 상대방이 특정 개인이 아닐 때 낮춤과 높임이 중화된 느낌을 주는 종결형이다. 주로 광고문, 연설문 따위의 문장에 쓴다. 따라서 답지에서 하라체의 종결어미 '-으라'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를 찾으면 된다. '마라'는 '말+-아라->말아라->마라'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므로, '-으라'가 아닌 '-아라'가 결합한 것이다.
- ①'돌아오-'에 '-으라'가 결합
- ②'되-'에 '-으라'가 결합
- ③'기억하-'에 '-으라'가 결합
- ⑤'싸우-'에 '-으라'가 결합

40번

*㉠에 해당하는 말끼리 올바르게 짝 지은 것? 높다-길다 (높이, 길이 둘 다 명사이면서 부사)

우리말 형용사에 접미사 '-이'를 붙이면 명사나 부사를 파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몇몇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와 부사는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41번

- *온다고 했다->온됐다: '-다고 했다'가 '-됐다'로 줄어든 말
- *오신다니까: '-다다니까'는 '-다다고 하니까'가 줄어든 말
- *들었다네: '듣+-었+-다네'로 준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간담니까: '-갑니까'는 '-다다고 합니까'가 줄어든 말 험
- *하내도: '-내'는 '-냐고 해'가 줄어든 말
- *받았대요: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

42번

- *표어에는 온점을 쓰지 않는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o)
-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뒤에는 반드시 반점을 쓴다 - 밥을 먹었다. 그러나, 아직 배가 고프다 (x): 반점은 일반적으로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물음의 말로써 놀람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느낌표를 쓴다 - 이게 누구야! (o)
-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경우에 대괄호를 쓴다 - 낱말[單語]
-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경우에 줄표를 쓴다 - 어머님께 말했다가 -아니, 말씀드렸다가- 꾸중만 들었다

43번

- *올바른 표기: 헥타르
- *기브스->깁스, 컬럼->칼럼, 렌터카->렌터카, 부저->버저

44번

*웃닭 Otdak / 편육 Pyeonyuk / 꼬리찜 Kkorijjim / 모듬회 Modumhoe

*빈대떡 Bindaeddeok(x) ->Bindantteok

-자음 'ㄷ'은 'ㄸ'로 적어야 함

45번

*긴 소리: 윈(50), 만(10000), 오(5), 사(4)

*짧은 소리: 천(1000)